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5

군선교, 청년

제26회 군선교신학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 이규철·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진중군인교회 찬양영성

주 제 1 : 발제·임정인 논찬·주연종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주 제 2 : 발제·이석곤 논찬·전요섭 군인교회 회중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구위원 논문

전요섭·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상담동기강화를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

안남기·군선교교역자의 목회 서사 전환과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일반 논문

박형곤·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최용훈·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미래: 회중 찬양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전략

김이석·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Just Peacemaking Theory)"에 대한 이해와 평가

202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 곧 생명력 있는 선교입니다. 청년 전도가 매우 어려운 요즘 20대의 건강한 청년들이 가정을 떠나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는 기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침례)를 주고, 양육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군인교회를 비롯하여 전체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마 28:19~2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고자 1972년 (故)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초교파 범교회의 연합으로 설립되어 군종목사파송교단 및 전국 군선교 회원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전문 대표기관으로 공익법인기관입니다.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 군인교회당 건축, 군선교사 파송, 군선교신학회, 군선교연구소, 각종 교육 사업 및 정책사업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후원으로 소중한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이 사 장 : 김삼환 목사
· 한국군선교신학회장 : 곽요셉 목사
· 비전2030 실천운동본부장 : 권오성 장로
· 한국군선교교육원장 : 임석순 목사
· 한국군선교연구소장 : 소강석 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사무총장 : 이정우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선교사역을 전개하고 다원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널리 전파되도록 2002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조직된 세계 유일의 "군선교신학회"입니다.

· 회　　장 : 곽요셉 목사
· 부 회 장 : 이정숙 교수 · 권수영 교수 · 김영신 교수
· 신학연구위원장 : 이규철 교수
· 교육연구위원장 : 김선일 교수
· 상담코칭위원장 : 권수영 교수
· 연구위원 : 김철홍 교수 · 김성중 교수 · 오덕교 교수 · 주연종 목사 · 조성재 교수
신옥수 교수 · 최두열 교수 · 김윤태 교수 · 이용락 목사 · 박한수 교수
박보경 교수 · 전요섭 교수 · 우기식 목사 · 문시영 교수 · 황성준 목사
김선영 교수 · 이상훈 교수 · 유영권 교수 · 김아영 교수 · 김은혜 교수
김상만 교수 · 민선기 교수 · 안남기 교수 · 최용희 목사
나성한 군종목사 · 김일수 장로
· 군종목사연구위원 : 이석곤 군종목사 · 임정인 군종목사 · 장윤진 군종목사
이재광 군종목사
· 당연직위원 : 이정우 목사 · 양재준 목사

· 제25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 이규철
– 위　　원 : 이규철 · 전요섭 · 김상만
– 담　　당 : 박종민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5

군선교, 청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꿈이 담긴 비전2030 실천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 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하여
3. 10만 명의 기독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례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말

군선교는 청년을 복음으로 세우고, 한국교회의 내일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복음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군에서 시작된 믿음이 전역 후에도 교회와 가정, 사회로 이어질 때 군선교의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군선교 현장은 많은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군의 환경이 달라지고 청년 장병들의 가치관과 종교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선교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열정과 헌신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학문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연구가 연구에 머물지 않고 군선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살피며, 그 결과가 군선교 정책과 사역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가 되고, 연구가 정책이 되며, 정책이 다시 현장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선교논문집 『군선교, 청년』 제25권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집에 담긴 연구와 제안들이 오늘

의 군선교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미래 군선교의 방향과 정책을 세워가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선교 현장과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선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귀한 글을 써주신 모든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군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더욱 든든히 하고,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한 장병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한국교회의 내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군선교, 청년』 제25권을 통해 학문과 현장, 연구와 정책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청년 장병을 향한 복음의 사명이 이 시대에 더욱 힘있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

발간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변화하는 국방 환경 속에서 군선교 신학의 새로운 실천적 지평을 열어가며, 조국의 군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가 군선교 현장의 신학적 토대를 견고히 세우고 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가운데, 학술적 성숙과 연구의 결실을 담은 군선교신학논문집『군선교, 청년』제25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25권의 연구 과정의 여정은 군(軍)이라는 특수한 선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성경적 진리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 조명하고, 야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온 귀한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군선교 현장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국방혁신 4.0'에 따른 AI·과학기술 강군의 추진과 부대 통폐합, 그리고 MZ세대 장병들의 탈종교화와 개인주의적 성향은 기존의 군선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전환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시대에 군선교 신학은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군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을 이해하며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25권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 응답하여 군선교 현장의 실제적 과제와 신학적 성찰을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찬양 영성의 회복을 폭넓게 조망하였고, 기존의 병사 중심 군선교에서 더 나아가 간부와 군무원, 군인 가족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대상을 확장하며, 주둔지 통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거점교회 연합사역'과 '기능적 팀 리더십'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군인교회의 회중 찬양을 단순히 예배의 한 요소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복음 선포와 공동체 형성, 치유와 위로, 신앙 훈련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선교의

통로로 조명하고 비자발적 참여자가 많은 군선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년 장병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30분 찬양 모델과 군종병 양성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군 사역자들의 목회 서사와 치유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는 상처를 돌보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인적 목회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현장성과 학문성을 함께 담아 귀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날카로운 학문적 비평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포지엄을 위한 발제자, 그리고 논찬자 그리고 연구위원 교수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선교 신학 연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선교, 청년』 제25권이 일선 야전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밝히는 든든한 지침서

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는 청년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신학적 마중물이 되고,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에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논문집에 담긴 연구와 성찰을 통해 장병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군선교신학회장
곽요셉 목사

차 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 4
■ 발간사 | 곽요셉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장) … 6

심포지엄 논문

15 **기조강연**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진중군인교회 찬양영성 | 이규철

49 **발제1**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 임정인

78 **논찬1** 임정인의 논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에 대한 논찬 | 주연종

83 **발제2**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이석곤

119 **논찬2** 이석곤의 논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전요섭

연구위원 논문

125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상담동기강화를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 | 전요섭

167 군선교교역자의 목회 서사 전환과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 | 안남기

일반 논문

205 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 박형곤

241 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미래: 회중 찬양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전략 | 최용훈

257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 (Just Peacemaking Theory)"에 대한 이해와 평가 | 김이석

부록 1

288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294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298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306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 현황(2002년~2026년까지)

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진중군인교회 찬양영성

| 이규철 |

발제1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 임정인 |

논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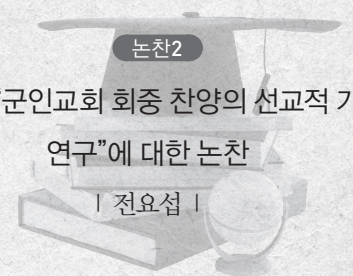
임정인의 논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에 대한 논찬

| 주연종 |

발제2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이석곤 |



논찬2

이석곤의 논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전요섭 |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진중군인교회 찬양영성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and the Praise Spirituality in Military Churches

» 이규철 Ph.D.*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방개혁2.0'에 이은 '국방혁신4.0'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군인교회 찬양 영성'에 대한 신학적 검토이다. 한국군선교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군인교회 찬양영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군선교가 진중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 장병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인간'(homo venerabundus)으로 자리매김하는 웅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진하고자 함이다.

중심단어

변화하는 국방 환경, 진중군인교회 찬양영성, 현대 찬양예배, 혼합예배, 조화로운 예배

•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4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2026년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은 진중군인교회의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군인교회 찬양 영성'에 대해 신학적 검토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한국군선교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군선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명으로서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1]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개혁2.0'에 이은 '국방혁신4.0'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군선교 전략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군인교회 찬양영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군선교가 육해공군해병대 진중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국군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인간'(homo venerabundus)으로 자리매김하는 웅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진하고자 함이다. 이에 진중군인교회 예배의 현 주소[2]가 직면하고 있는 '전통예배'와

---

1) 전요섭, "군선교는 여전히 중요, 이제는 '그물' 아닌 '낚시'의 시대," 『군선교신문』 409호 (2026. 5. 29).

2) '최용훈'은 한국군의 국방 환경 변화가 군인교회 예배에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평가한다. "최근 군 구조와 장병 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군인교회 역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예배와 찬양의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기타 한 대와 몇 명의 찬양 인도자만으로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장병들이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군인교회 자체의 인적·물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들의 예배와 찬양에 대한 경험과 기대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군인교회의 찬양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거나 최신 찬양곡을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변화된 군 구조와 청년세대의 문화 속에서 군인교회가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군선교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최용훈, "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개선해야 할 이슈, 효과적인 방안 제시," 「군선교, 청

'현대 찬양예배'의 현실적 긴장 상황에서 기독 장병들의 찬양영성을 제고(提高)하여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예배 찬양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한다.

2. 변화하는 국방 환경

1) 한국군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변(多變)한 세계

한국군의 변화를 요구하고 촉진하는 다변한 세계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첫째, 사상적 측면에서 현대를 주도하는 사조(思潮)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3]을 주목해야 한다. '신정현'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문헌 비평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반세기를 '포스트모던 시대'(the postmodern age)라고 부르고, 이 시대에 대한 이념적 태도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고 부른데서 기인한다.[4] 따라서 신정현은 포스터모더니즘을 "계몽주의 역사의 끝자락에 선 포스트모던시대의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분별력'인 이성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표현"[5]이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포스트모던시대가 '합리에의 환상'에 봉착했다는 점이

년」 25 (2026).

3) '남경태'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그치지 않고 근대 이성에 대한 체계적인 공략에 나서는 특징을 보인다. 곧 계몽주의 이래 세계를 관장해오던 이성을 거부하고 비합리주의를 앞세우는 조류는 모더니즘에서부터 나타났는데, 의식보다 무의식을 강조하고 주체 대신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주의 경향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과 도덕을 거부하고 합리주의로 위장된 억압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주력한다. 남경태, 『개념어 사전』 (파주: 들녘, 2006), 411.

4) 신정현,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6.

5) *Ibid.,* 467.

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은 '대의민주주의 실패, 세계 차원의 전쟁, 잔학무도한 인종청소, 대규모 학살, 테러, 물질만능주의 배태로 인해 인본주의적 전통적 가치들을 붕괴시키는' 폐단을 양산했다.[6] 이에 신정현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고해질수록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전체주의의 힘이 확장되고 물질문명 속의 개인은 무의식을 유린당한 채 기꺼이 자신의 개체성의 죽음을 유발시켜"[7] 현대인들의 정신적, 윤리적, 사상적 해체가 촉진된다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한다.

둘째, 현대과학의 발전은 현대인들의 삶과 가치체계의 변화를 강력히 유도한다.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와 '데이비드 슈타인들-라스트'(David Steindle-Rast), 그리고 '토마스 매터스'(Thomas Matus)는 근대를 넘어선 현대 과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 첫째, 부분에서 전체로의 전환: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선,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해도 부분의 특성을 합하면 전체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선,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바뀐다. 부분의 특성은 전체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밝혀지며, 따라서 뚝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부분이란 쪼갤 수 없이 얽히고설킨 관계의 그물에서 드러난 특정한 무늬이다.
>
> 둘째, 구조에서 과정으로의 전환: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선 골격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작용하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역학 관계가 어떤 과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서 드러난 구조는 모두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표현이며 전체적인 관계의 그물은 그 본질상 역동적이라고 본다.

---

6) *Ibid.,* 476.

7) *Ibid.,* 477.

셋째, 객관적 학문에서 인식론적 학문으로서의 전환: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선 관찰자나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상관없는 객관적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지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지를 연구하는) 인식론도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넷째, 건물에서 그물로 전환하는 지식의 체계: 서구의 과학과 철학에선 수천 년 동안 지식을 기초 법칙, 기초 원리, 기초 단위 등의 건축에 비유하였다. 현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건물이라는 비유가 그물이라는 비유로 바뀐다. 우리 현실이 관계의 그물로 여겨지듯, 서술하는 양식도 관찰된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의 그물로 바뀐다. 관계의 그물에는 계층적인 위계질서도 없고 특별한 기본 요소도 없다. 건물에서 그물로의 전환과 더불어 이전에는 현실을 관념화한 물리학이 모범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분야의 과학 모두가 나름의 독특한 양식을 내놓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다섯째, 절대치에서 근사치로의 전환: 데카르트식 패러다임은 과학의 진리를 통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개념이나 이론들과 발견이라는 것도 결국 제한된 범위 안에서 통용되는 근사치임을 인식한다. 과학은 실상(reality)을 온전히 이해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결코 아니다. 어떤 현상과 이에 대한 서술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학자는 진리의 절대치를 다룬다기보다 실상(reality)을 제한된 범위에서 근사치로 표현하고자 한다.[8)]

현대과학의 발전은 '드론, 자동화 무인전투체계화'와 같은 한국군의 과학화로의 변환기제 추동력을 제공한다.

셋째,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현대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8) 프리초프 카프라 외, 『그리스도교의 아주 큰 전환』, 김재희 역 (서울: 대학문화아카데미, 2014), 20-25.

고 있다.

'이규철'에 따르면, 이 시대의 문명 특성이 제4차 산업혁명의 그늘 아래로 집결하고 있다.[9] '김문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경(靜境)을 "'ICBM'으로 통칭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e) 및 모바일(Mobile)'에 생명공학과 감지 기술 등이 가세해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기계로 대체되는 것"[10]이라고 소개한다. '김도현'에 의하면, 정보화 시대는 '인간의 학습 능력에 따른 추론과 지각과 판단 등과 같은 여러 이성적 능력(intelligence)을 인공적으로(artificially)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시스템[11]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를 일컫는다.

요는 인간 삶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인공지능의 편만(遍滿)이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폐단의 그림자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이다. '박종균'은 사이버 기기(機器)에 노출된 대중의 군상을 이렇게 집약한다.

> 21세기 대중들은 주체적인 인식이나 판단 없이 사이버 공간을 표류하고 미디어와 자본의 포로가 되어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소비하며 자신들을 억압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모든 현실과 진리를 상품화된 이미지나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조작해 버리는 허상들에 가려져, 대중들은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정은 거세당하고 있다. 대중은 문화적 상징의 파괴

9) 이규철, 『모든 사람의 본분: 현대인을 위한 전도서』 (창원: 한길로, 2025), 98.

10) 김문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사회: 신기술의 도전과 인문학적 응전," 「제6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안동: 한국정신문화재단, 2019), 51.

11) 김도현, 『AI 시대의 삶과 신앙-AI의 도전,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울: 생활성서, 2026), 28.

와 삶의 의미 및 정신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12)]

이처럼 숨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AI의 급격한 확산은 인간 삶의 편리성 증대를 가져오지만 사람들 사이의 거친 고립감을 양산하고 인간성 상실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는 부정성이 넘쳐나게 한다.

넷째, 세계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한 한국 국방 환경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국립평화통일민주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2010년대 이후 본격화 되어 2020년대에도 여전히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 친환경 전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 중이다. 중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13)]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안보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개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사회가 유지해 온 '주권 존중, 무력 사용 금지, 집단 안보 체제'라는 핵심 규범과 제도가 실제 분쟁에서 억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사한다. 더욱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강화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

12) 박종균, 『전환시대의 기독교와 윤리』 (성남: 북코리아, 2014), 445.

13) 국립평화통일민주연구원, 『202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연구원, 2026), 96-97.

럽의 정세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속화시킨다.[14]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비단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자유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全方位的) 위협이 된다고 역설하는 '카를로 마살라'(Carlo Masala)의 통찰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민주사회를 향해 이렇게 조언한다.

> 군비부족 외에도 러시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사회적 결의의 부족 또한 러시아를 승리로 이끈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방식에 의해 민주사회의 공존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회, 나아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민주주의라는 국가 형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회는 위기에 맞서 버텨낼 회복력이나 저항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
> 회복탄력성은 앞으로 수년간 유럽 국가 앞에 놓이게 될 과제를 감당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다. 러시아를 저지하고 봉쇄하는 일은 유럽 사회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로 결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동맹 방위를 위한 인명 희생이라는 형태로 치러질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비용이라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을 관철하려면 다른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적어도 그만큼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는 국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
> 하지만 사회적 회복탄력성 부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은 재정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대는 부여된 임무를 장기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회복탄력성, 즉 사회 전반의 저항 능력이 결정

14) 국립평화통일민주연구원, *Ibid.,* 100.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 분쟁의 동시다발적 확산과 갈등 당사국 간 대립 구도의 심화는 국제 안보 질서를 점차 분절화 된 진영 구조로 재편한다. 곧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북한·중국·러시아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은 연합 방위 체계를 제도화하며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영 간의 대립구도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지역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bid.,* 102.

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있어야 정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15)]

다섯째, 세계의 평화를 위한 멈추지 않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인류의 관제다.

'정지섭'은 "아브라함 협정이 이삭 협정을 낳았다"는 칼럼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모색하는 세계 도처의 정황을 이렇게 집약한다.

2020년 9월 1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섰다. 트럼프의 중재로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두 아랍 국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에서 공통으로 섬기는 '믿음의 조상'을 협정 이름으로 삼은 것이 화제였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6년 4월, 네타냐후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중남미 국가들의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삭 협정(Isaac Accords)' 출범을 선언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유대인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아브라함 협정을 합작한 미국 트럼프 정권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최근 블루타이드(중남미 연쇄 우파 정권 집권)의 맏형 격인 밀레이가 가세해 국제 질서 재편에 나선 것이다. 네타냐후와 밀레이는 이삭 협정에 대해 "이삭의 후손들과 유대교·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뜻을 함께 하는 나라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테러리즘, 반유대주의, 마약 범죄에 맞서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자리에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스라엘·아르헨티나의 삼각 연대를 축으

15) 카를로 마살라, 『러시아가 승리한다면-2028년 전쟁 시나리오』, 이지윤 역 (고양: 시프, 2026), 176-178.

> 로, 이스라엘의 군사·경제력을 활용해 블루 타이드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父子) 협정'을 활용해 중동과 중남미에서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UAE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던 석유수출국기구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한 중동 질서 재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를 현 4국(UAE·바레인·모로코·수단)에서 더 늘리고 궁극적 목표인 '사우디·이스라엘 수교와 이란의 완전 고립'을 성사시키려는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16]

바야흐로 평화에 목마른 세계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마태복음 5: 9).

"하나님은 뛰어난 의무감이 없는 나라에 뛰어난 평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맥킨리(William McKinley, 1843~1901, 미국의 25대 대통령)의 통찰은 천부적 권리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세계인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라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깊이 채근한다.

2) 변화하는 국방환경

변화하는 한국군의 국방환경은 한국군의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과 연동된다. 『국방백서 2020』은 군사전략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과 건설방향을 구

16) 정지섭, "'아브라함 협정'이 '이삭 협정'을 낳았다," 『조선일보』 2026. 5. 5.

체화한 것"[17]이라고 해제한다. '김희수'에 의하면, 한국의 군사전략은 대한민국의 현존 위협인 북한에 대항함에 있어 동맹(同盟)인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비롯한 한국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다.[18] 국군 창군 이래 한국 군사전략의 주요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군사전략의 변화[19]

1945~1959년 (6·25전쟁 전후기)	• 바람직한 군사전략 미수립, 작전계획 수준의 38도선 방어 계획 • 한미동맹 기반한 6·25전쟁 전후복구, 미군 의존 수세적 방어전략
1960~1969년 (국방체제 정립기)	• 미국에 의존하되 북한의 침략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전략 • 한미동맹 기반 평시 제재적 억제, 전시 수세적 방위 전략
1970~1979년 (자주국방 추진기)	•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전투력 증강' 및 '방위 산업 구축' 전략 • 한미연합전력 기반 평시 제재적 억제, 전시 수세적 방위전략
1980~1998년 (자주국방 강화기)	• 국가 근대화에 기반, 자주국방 강화와 전력의 질적 우위 확보 전략 • 한미연합전력 기반 가부적 억제 전시 방어 후 공격전략
1998~2008년 (국방태세 발전기1)	• 탈냉전시대 평화정책 지향을 위해 연합전력을 기반으로 평시 전쟁 도발 억제, 전시 공세적 방위 전략 • 북한 포함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 전시 전략개념을 포함 수도권 방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 추구
2008~2021년 (국방태세 발전기2)	• 한미 연합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 적극적·능동적 억제, 최단시간 내 전승 및 공세적 방위, 북한의 핵 증강 위협 대응전략 집중 • 북한 및 외부의 군사위협 대응체제 유지하되 적의 전략 중심을 무력화하여 전승달성 추구

작금의 국방환경변화는 '국방태세 발전기2'와 연동된다. 『2022 국방백서』는 2006년부터 추진하여온 '국방개혁2.0'의 추진 결과를 이렇게 집약한다.

>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군 구조, 국방운영, 병

1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20』 (서울: 국방부, 2020), 41.

18) 김희수,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軍史硏究」 153 (2022), 72.

19) *Ibid.,* 104-105.

> 영문화, 방위사업 등 국방 전 부야에 대한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2.0'은 '국방개혁 06~20'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이의 구현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고, 병 복무기간 단축, 많은 부대 해체, 영창제도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력 증강 이전에 무리하게 부대 및 병력을 감축하고, 장군 수 감축, 문민화, 영내에서 병 휴대전화 허용 등 외형적 측면의 개혁에 치우쳤으며,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과제들이 근시안적이고 첨단과학기술 활용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0]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국방혁신4.0'을 추진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한국군이 '국방혁신4.0'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세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불안정성의 증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심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와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등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21]이다. 이에 '국방혁신4.0'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국군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인 과학기술에 기반 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 전력, 군 구조 및 교육 훈련,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

20) 대한민국 국방부, *Ibid.,* 106.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상비 병력을 2017년 48.3만 명에서 2022년까지 36.5만 명으로 11.8만 명을 감축했다. 같은 기간 군단은 8개 군단에서 6개 군단으로, 사단은 39개 사단에서 34개 사단으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병력감축에 따른 부대의 개편과 전력증강은 2020년대 후반에 완료될 예정이다.

21) *Ibid.,* 107. '국방혁신4.0'은 한국군을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국방혁신4.0'은 창군 이래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는 4번째 계획, 즉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1980년대)→5개년 국방발전계획(1990년대)→국방개혁(2000년대)→국방혁신(2020년대)으로 이어지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3)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군선교전략 제언

⑴ 다변한 세계적 상황에서 작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방환경의 다변화는 국가의 안보와 미래 발전을 지탱하는 국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류기현'과 '정지수'는 "미래의 군 구조와 통일 이후의 군 구조는 미래의 안보 상황과 연계한 전쟁과 분쟁 발생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기에 위기(risk)에 대한 해석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22]고 본다. 이에 한국 군종목사들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다변하는 한국군의 국방환경에 대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세부 대응 실제를 궁구(窮究)하되 미래에 있을 통일을 대비하는 군선교 전략과 정책 또한 준비해 나가는 심려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⑵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성장한 후 다변한 국방 환경에서 복무하는 신세대 장병에게 최적화된 보편적인 리더십[23]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가치[24]를 구현하고 '제4세대전쟁'을 넘어 '제5세대전쟁'(Fifth Generation

22) 류기현, 정지수, "통일 이후 한국군 조직구조의 설계 방안: 자원동원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의 적용" 「韓國軍事學論集」 76(1) (2020), 224.

23) '김재철'은 한국군의 리더십 환경이 '지식·정보화 사회, 인간 중시 사상, 신세대의 특성'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공간을 초월한 리더의 덕목과 행동을 리더 스스로가 체질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오덴틱(authentic) 리더십, 그리고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재철, "한국군 리더십의 변화와 발전,"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2013), 1.

24) '박정곤'과 '박영택'이 집약한 한국군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육군(2002)-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 해군(2015)-명예, 헌신, 용기 / 공군(2007)-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 해병대(2009)-충성, 명예, 도전.' 박정곤, 박영택,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한국군 정신전력 혁신방향" 「韓國軍事學論集」 74(1) (2018), 115.

Warfare)[25]과 같은 전쟁양상 변화에 적응하는 한국군의 정신전력을 기독교 신앙으로 보정하는 군종활동에 전념하도록 특화되어야 한다.

⑶ 다변한 국방환경은 좀 더 세밀한 친밀감을 통해 복음 전도를 모색하는 전략의 변화를 요구한다. '전요섭'은 최근 군구조 개편과 함께 군인교회 통폐합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군부대 개편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조건 작은 교회를 폐쇄하고 거점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최선의 전략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군선교가 예전에는 그물로 퍼 올리듯 대중전도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낚시하듯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과 친밀감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26]고 강조한다. 특히 "군선교의 본질은 군목과 군선교사의 연합에 있기에 군목은 군선교사를 지지하고, 군선교사는 군 체계를 존중하며 군목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협력하며,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 현장의 신학적 문제를 연구하고 군진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27]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⑷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변한 국방 환경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여기에 군선교 현장 또한 예외가

---

25) 〈1세대 전쟁〉은 활강 화승총과 대규모 상비군이 등장한 나폴레옹 시대의 전열 보병 전술이다. 〈2세대 전쟁〉은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기관총과 참호, 압도적인 화력 중심의 1차 세계대전 형의 소모전이다. 〈3세대 전쟁〉은 기동전과 침투 전술(전격전)을 중시하는 제2차 세계대전 방식이다. 〈4세대 전쟁〉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테러리즘, 게릴라전, 사이버전 형태이다. 〈5세대 전쟁〉은 정보, 우주,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를 활용한 전면적인 미래전이다. 이수진, 박민형, "제5세대 전쟁: 개념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 (2) (2017), 1-34.

26) 전요섭, *op. cit.*

27) Ibid.

아니다. 김도현이 "AI 시대의 도래가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회의 적절한 대응은 매우 필요하다"[28]고 밝힌 것처럼, 진중군인교회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 또한 AI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김도현은 AI를 '인공 지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인공 이해력'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 점이다. 김도현은 AI를 '인공 이해력'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를 이렇게 집약한다.

> 동아시아에서 흔히 '지능(知能)'으로 변역되는 'intelligence'는 '이해력'을 의미하는 라틴어 'intelligentia'의 영어식 표현이다. 곧 intelligence는 기억력과는 별개의 이성적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intelligence는 어원적으로 '이해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intelliger'에서 파생된 단어이기에 '이해력'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기에 AI를 인공지능보다는 인공 이해력으로 표기함이 더 정확하다.

특히 김도현은 AI가 가진 장점들인 '탁월한 기억력, 탁월한 이해력'을 잘 활용하되 '의지력의 부재, 지적 호기심의 부재, 상식의 부재, 감정의 부재, 학습된 내용에 관한 비판 능력의 부재, 도덕·윤리적 판단 능력의 부재'와 같은 AI의 한계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9] 따라서 군선교 현장에 선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은 "AI를 활용한 교회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모색하되,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AI 발전에 비례해 신앙과 종교적 감각을 잃어가면서 무신

---

28) 김도현, op. cit., 16. 김도현은 이렇게 강조한다. "AI 역시 다른 과학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이한 목적으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을 테지만……모든 기술의 발전에는 저마다의 명암이 존재한다. 곧 기술 발전이 명(明)이라면 암(暗)은 발전된 기술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발전된 기술이 누군가의 몸과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경우이다." *Ibid.,* 6-7.

29) *Ibid.,* 72-101.

론적 과학만능주의(atheistic scientism)에 빠지는 것을 경계"[30]하는 기독교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5) 다변한 국방환경이 무인화된 방위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해도 국군 장병이 그 자동화된 무인 장비 시스템을 조종해야 한다. 이에 국군 장병의 생명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군종목사의 역할은 더욱 긴요하게 요청되며 증대된다. 특히 현대 유수 전쟁에 참전한 자유우방국들의 용사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전투현장에 함께하는 군종목사들이 그 위기 속의 장병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보편화된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일선 지휘관들은 군종목사들로 하여금 무형전력강화를 위해 장병중심의 임재사역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부대중심의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6) 국군장병들이 주말 휴식 여건 보장으로 일요일 종교 행사 참여 숫자가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은 장병들과의 접촉면 확장을 위해 더욱 힘을 낼 필요가 있다. 특히 군종목사들은 계급과 직책에 따른 임무 수행에 만전을 다하되 '장병 사생관 확립, 회복 탄력성 교육, 행복플러스 교육, 선도활동, 인성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부대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변한 국방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군종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무형전력을 극대화하는 군종장교들의 역량 강화는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

30) *Ibid.,* 109.

조하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견인해 줄 필요가 있다.

(7) 다변한 국방환경이 부대 구조의 변화를 촉진함에 따라 군인교회 및 군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거점진중군인교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군종목사가 임관하고 군선교사가 보임되도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긴밀히 협력하여 극대화된 신앙전력화를 위한 인적 자산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다변한 국방환경에서도 진중군인교회의 복음적 정체성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드레아스 린데만'에 따르면, 그리스도인과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은 '구분함(Abgrenzung)과 거리둠(Distanz)'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는 주변 세계에 계속 적응해 나갔다.[31] 안드레아스 린데만이 파악한 초기교회의 '구분함'과 '거리둠'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다른 식별 방법(할례, 안식일 법, 정결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함과 거룩성'을 포괄한다.[32] '석원식'에 따르면, 비록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인 구별함과 거리둠을 공유하였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변 세계에 적응하였다."[33] 이처럼 초대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31) 안드레아스 린데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부천: 하나님의 나라 & 성서연구소, 2010), 49.

32) *Ibid.*

33) 석원식, "인공지능(AI)과 '코로나 19' 시대가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성서적 관점에

에 적응하되 복음의 창조적 대응을 했다는 점은 오늘날 변화하는 국방환경에서도 한국군을 위한 복음사역에 진력하는 군선교관계자에게 주는 영감이 크다고 사료된다.

3. 진중군인교회 찬양 영성

진중군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신앙을 처음 접하는 장병들에게는 복음의 접촉점을 형성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며, 이미 신앙을 가진 장병에게는 군 복무 가운데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기반이기에 더욱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1) 위기의 한국교회 예배 찬송

한국교회에 찬송가가 전래된 것은 복음의 전래와 함께한다. '서형일'에 의하면, 1885년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방 안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함께 들어있었다. 한국교회는 1892년 존스와 로스와일러의 『찬미가』와 1894년 언더우드의 『찬양가』를 예배 때 부르면서 신앙의 언어를 배워갔다.[34)]

한국 사회가 찬송가와 보편적으로 접한 것은 20세기 벽두였다. '권도희'에 의하면, 조선인들에게 최초의 향유되었던 서양음악의 갈래는 찬송가와 창가였다. 찬송가는 예배라는 전례(典禮)를 위해 종교인의 자발적 의지로 불려졌다. 창가(唱歌)는 일제의 힘에 복속된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이 주도한 근대 음악을 억압적으로 습득해야 했다. 찬송가와 창가는 음악 구조적으로 서로 변별되지 않는 경

서" 「인공지능(AI)과 코로나(COVID19) 시대가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과 대안」 (안동: 경안대학원대학교, 2020), 83.

34) 서형일, "어느새 '찬 밥'이 된 찬송가" 『한국성결신문』 2026. 5. 16.

우도 있지만 찬송가와 창가는 각각 별도의 문화사적 국면을 배경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갈래로 인식되었다.[35]

실로 한국교회에 있어 찬송가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도,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드리는 예배에서도, 6·25 폐허 위의 교회에서도 한국교회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 담아온 그릇이었다."[36] 이처럼 찬송가를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교회연합의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2006년부터 『21세기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고 진중군인교회에도 보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브리서 13: 15)는 성경 말씀을 적극 성취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 한국교회의 예배 찬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서형일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찬송가의 위기를 이렇게 직시한다.

> 복음성가, CCM, 경배와 찬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찬양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어느새 찬송가는 뒤로 밀려났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음악 언어로 접근하여 복음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새로운 찬양 가운데 신학적으로 깊고 음악적으로 훌륭한 작품도 많다. 그러나 일부 가사가 신학적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성경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감성적 표현에 치우쳐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가사가 예배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현실은 수백 년간 복음 공동체의 신학적 정제를 거친 찬송가와 대조적이다. 더 깊은 우려는 세대의 단절이다. CCM만으로 예배하며 자란 세대가 장년이 되면서 찬송가는 낯선 노래가 되었고, 회중이 함께 만들어 내는 화성의 풍성한 이름다움을 경험해 본적도 없다. 이 흐

35) 권도희, "근대 음악사회의 형성," 김시업 외,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서울: 소명출판, 2009), 39.

36) *Ibid.*

> 름이 이어지면 찬송가는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37]

'김은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배 찬양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회중들을 만족시키는 예배와 예배 찬양'[38]에 있고 '신학이 부재된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 찬양'[39]에 기인한다. 김은희는 예배와 예배 찬양과 관련한 현대 한국교회의 일반적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집약한다.

> 현대 한국교회 예배에서 예배자들이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들여다보는 회개의 과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세속적이며 실용적 요소들이 예배와 예배 찬송에 깊숙이 들어와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위로와 평안함을 추구하는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고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해된다면 기독교 예배는 이방종교의 제사와 같은 공로주의가 전제된 예배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0]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예배 순서에는 수평적 요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전제하에 "예배와 예배 찬양이 자기 추구나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예배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다"[41]고 평가한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의 한국교회가 '예배 전쟁' 상태에 놓인 것이

---

37) 서형일, *op. cit.*

38) 김은희, "한국교회 예배 찬양 갱신을 위한 고찰," 「개혁논총」 45 (2018), 142.

39) *Ibid.,* 143.

40) *Ibid.,* 144-145.

41) James F. White, New Forms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44.

다. '엘머 타운스'(Elmer Towns)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안된 '구도자 중심의 집회'(seeker-sensitive service)가 도입된 이후 많은 교회에서 소위 '예배전쟁'(worship war)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42] 김은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공(公)예배와 예배 찬양이 구도자 전도 목적을 위해 시작된 서구의 몇몇 대형 교회의 예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성경적 예배의 본질적 의미와 이해를 상실함으로써 고귀한 예배가 변절되는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43]

한국교회가 직면한 예배와 예배 찬송의 위기는 형태와 내용은 달리하더라도 진중군인교회가 직면한 예배와 예배찬양의 현실이다. 일례로 육군훈련소에서 열화와 같은 찬송으로 충만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와 예배 찬송의 감격을 누린 장병들이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자대 교회의 예배와 예배 찬양이 육군훈련소교회의 예배 역동성에 미치지 못함을 실감하여 기독 장병들의 신앙 열의가 쇠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진중군인교회 기독 장병들이 주일마다 직면하는 '고전적 전통예배'(Classical Traditional Worship)와 '현대 찬양예배'(Contemporary Praise Worship) 사이의 내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배 음악의 균형과 조화'(Balance of Service Music)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진중군인교회 예배찬양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모색

앞서 언급한 바, 진중군인교회가 직면한 예배 찬송과 예배 전쟁

---

42) Elmer Towns, *Putting An End to Worship War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 1997), 9-21. 엘머 타운스에게 있어 예배 전쟁은 오늘날의 교회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 마치 전쟁을 치르듯 경쟁을 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

43) 김은희, *op. cit.,* 149-150.

이슈는 한마디로 고전적 전통예배와 현대 찬양예배의 긴장이다. '에두아르트 슈바이처'(Eduard Schweizer)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제의적 엄격성은 오히려 성령의 자유를 제한시킬 위험성이 있고, 성령의 자유로움에 대한 지나친 개방성은 과도한 개인주의적인 열광주의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44] 예배의 제의적 엄격성과 개방성에 대한 에두아르트 슈바이츠의 평가는 진중군인교회가 직면한 예배 찬송과 예배 전쟁 이슈의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준다.

'양정식'은 예배찬양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이렇게 조언한다.

> 고전적 전통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정숙하고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예배음악들이 활용되고 있고, 경배와 찬양예배를 드리는 현대 찬양 예배는 현대 악기를 사용하여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다양한 음악들이 사용되고 있다……성가대와 관현악 등 음악적으로 숙련된 성도들이 이끄는 교회음악과 경배 찬양팀을 위주로 한 찬양음악 간의 연합사역을 이끌어내어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예배 음악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45]

양정식은 예배 음악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 방안으로 '로버트 웨버'(Robert Weber)가 강조한 '혼합 예배'(Blended Worship)[46]를 제시한다. 양정식은 고전적 전통교회와 경배찬양의 현대교회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혼합예배

---

44) E. Schweizer, "The Service of Worship: An Exposition 1 Corinthians 14" *Interpretation* 13 (1959), 407

45) 양정식,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2010), 341.

46) Robert We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99-204. 양정식, *Ibid.,* 341-342에서 재인용.

의 당위를 이렇게 해제(解題)한다.

> 많은 교회들이 1부는 전통예배, 2부는 현대예배, 3부는 통합예배 등 예배를 다분화(多分化)하는 전략을 세운다. 고전적 전통예배를 드려오던 교회들은 회중 구성층이 청장년층에서 50대 이후의 노년층으로 국한되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 20-30대와 청장년층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팀을 세워 그들만의 예배의 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족 또는 그 이상이 상주하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기준을 가진 세대들을 위한 예배들과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속속히 생겨나고 빠른 시대적 변화에 교회가 반응하고 수정과 변혁의 구조적 조정과정을 과감히 수용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에 웨버는 미래적 예배의 통합 원리를 설명하며 세대적 공감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혼합예배를 역설하고 있는지 모른다.[47]

이처럼 음악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 방안으로 혼합 예배를 강조한 양정식은 '온 회중이 함께 하는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2부 구조 회복'을 열망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가 없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조화로운 예배'(Balanced Worship)[48]를 역설한다. 양정식에 따르면, 조화로운 예배는 늘 유동적이고(Flexible) 포용적(Catholic)이어서 어떤 특정한 형태와 대상을 전제로 드려지거나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문화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예배'이다. 특히 양정식은 '조화로운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모임 활성화, 대중악

47) 양정식, Ibid., 341-342.

48) *Ibid.,* 344.

기와 관현악기의 통합적 활용, 예배인도자들의 예술적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라고 제안한다.[49] 이는 진중군인교회의 예배 온전성 강화와 신앙적 찬양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적극 고려해 봄직한 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된다.

3. 군선교를 촉진하는 진중군인교회의 찬양 영성 부흥 제언

진중군인교회의 찬양부흥은 한국 군선교의 증진과 촉진을 이루는 필수사항이기에 군선교를 촉진하는 진중군인교회 찬양 영성 부흥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1) 찬양의 의미 재인식

진중군인교회의 찬양 영성 부흥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 찬양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명한다.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 6).
>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 21).

교회의 역사를 이끈 신앙의 선진들은 찬양을 중시했고 사랑했다. 일례로 '어거스틴'은 노래로 기도하는 찬양이 "영혼에게 신앙심

---

49) 양정식에 따르면, '예배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모임 활성화'는 습관적 관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항상 준비되고 변화할 수 있는 포용적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 '대중악기와 관현악기의 통합적 활용'은 고전적 전통예배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 운동의 형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회중 모두가 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세대 간의 거리감도 훨씬 줄여서 각각의 예배 안에 소중한 신앙적 가치관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담지 하도록 한다. 또한 음향시설을 통해 찬양 밴드와 관현악 사이의 소리 균형을 잘 조율하는 것과 같은 '예배인도자들의 예술적 전문성 향상'도 조화로운 예배를 위해 필수 사항이다. 양정식, *Ibid.,* 345-347.

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50]고 찬양의 가치를 높인다. 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 시편은 노래이다. 아무렇게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십현금(a psaltery)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이다. 찬미를 노래하는 사람은 목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현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한다. 그 악기에 맞추어 손놀림에 목청이 어울려 나는 것이다. 그대가 찬미를 부르고 싶은가? 그대의 목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그대의 행실이 그대의 목소리에 어우러지게 하라…… 그대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경우에는 그대가 곧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 목청으로 노래 불러 귀에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라. 하지만 마음이 입 다물고, 삶이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면서 속임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하나님께 찬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51]

'로빈 리버'(Robin A. Leaver)에 따르면, 음악을 사랑한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는 "음악이 인간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52]이라고 평가한다. 음악 자체에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감미로운 음악에 의해 우리 마음에

---

50) Augustine, *LETTERS OF ST. AUGUSTINE*, 55, 18, 34, Ed., Philip Schaff,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 CO., 1994).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로 표기한다.

51)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 147. 2, *NPNF.*, VOL. VIII.

52) Robin A. Leaver, *Luther's Liturgical Music: Principles and Implic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7), 70.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나아지고 강건해진다"[53]고 역설하면서 찬송의 위력을 확증한다.

'칼빈'(John Calvin)은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고 단언하면서 "신자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노래를 부르라"고 역설한다.[54]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할 확실한 이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자연히 신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55]고 적시한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찬송을 단순히 예배의 부속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학'이자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보았다.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웨슬리는 1761년 발간한 '찬송집 서문'(John Wesley's Select Hymns, 1761)에 '찬송가를 부르는 지침'(Directions for Singing)을 명시하여 경건하게 제대로 찬송할 것을 당부했다.

> 첫째, 다 함께 부르라(Sing all).
> 둘째, 열심히 부르라(Sing lustily).
> 셋째, 겸손하게 부르라(Sing modestly).
> 넷째, 알맞은 속도로 부르라(Sing in time).
> 다섯째, 영감으로 부르라(Sing spiritually).[56]

---

53)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53: 328: Liturgy and Hym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65).

54) 존 칼빈, 『基督敎綱要(中)』 20. 28, 이종성 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55) *Ibid.*

56) "John Wesley's Directions for Singing" 〈https://hymnary.org/hymn/VU1996/720#google_vignette〉

찬양은『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제1문에 명시된 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영 기뻐하는 것"(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57]이다. 이에 찬양을 "성도의 의무이자 인간 공동체와 전(全)창조세계(all creation)의 궁극적 소명(ultimate vocation)"[58]이라고 집약한 '월트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의 사유는 진중군인교회 찬양 영성 부흥을 이룸에 있어 이상에 피력한 찬양의 기본적인 의미 재인식의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2) 찬송가의 신앙적 가치와 영적 감동이 상존하는 진중군인교회 예배찬송

찬송가의 핵심은 감정적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찬송가 가사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수백 년간 다듬어진 고백이기에 찬송가의 가사는 중요하다.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면 예배와 찬양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찬송가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잊혀도 좋은 것은 아니다.[59]

그런데 '전무용'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하여 온『통일찬송가』나『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많은 찬송가들이 번역곡이어서 우리 언어에 맞지 않은 어색함이 상존하니[60] 찬송가 가사를 곡에 맞게 조정해서 부르면 훨씬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고 가사도 훨씬

57) The Westminster Divines,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WITH SCRIPTURE PROFFS(ILLUSTRATED)*. Ed., Berenice Aguilera (Independently Published, 2023), 3.

58) Walter Brueggemann, *Israel's Praise: Doxology against Idolatry and Id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

59) 서형일, *op. cit.*

60) 전무용, "찬송가에 나타난 가사와 곡의 부조화,"「기독교사상」(9) (2022), 168-169.

잘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영역이자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개선해야 될 이슈이다. 이에 진중군인교회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찬송가를 바탕으로 현대 찬양을 적절히 가미하여 청년의 영적 정서적 감각과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대 찬양 사이에 찬송가 한 곡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61]는 서형일의 강조는 신앙적 가치와 영적 감동이 상존하는 진중군인교회 예배 찬송을 위한 시사점이 있다.

2) '혼합 예배' 형태를 적용한 '조화로운 예배' 모색

진중군인교회 주일 오전예배의 경우, 정규 예배 시작에 앞서 찬양팀의 찬송 인도를 통해 예배자의 마음 문을 열고, 이어지는 정규 예배는 찬송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 경건의 영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중군인교회의 주일 오후(저녁)예배는 경배와 찬양팀을 활성화하여 기독 장병 예배자의 영적 감성도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진중군인교회가 조화로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독 장병 예배자의 예배 영성을 강화하고 복음의 증진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도록 모색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진중군인교회의 예배는 한국교회의 예배와 "서로 연결하여"(jointed together, 에베소서 2: 21)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에베소서 2: 21) 지향해야 한다. 곧 진중군인교회에서 예배드린 기독 장병들이 전역 후 한국교회에도 잘 적응하여 복음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61) 서형일, *Ibid.*

3)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전문성 향상 필요

진중군인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 장병들이 잘 균형 잡힌 '조화로운 예배'를 드려 신앙심을 향상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존립하게 하는 일은 예배를 인도하는 군종목사나 군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찬양을 인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공통된 사명이다.

요는 바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예배의 섬김을 이끄는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진중군인교회별 '예배 기획 모임'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예배 기획 모임에서는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찬양 인도자들과 복음의 비전과 목회 계획을 공유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한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영적 섬김에 깊이 감사하고 격려하며, 나아가 예배 찬양에 있어 실제적인 적용을 함께 의논하여 신앙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군종목사단에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협의하여 지역 군종목사단 예하 진중군인교회 찬양 인도자들의 영성을 함양하고 찬양전문성을 제고하는 찬양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복음의 전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회중찬송 부르기 활성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야고보서 5: 13)는 말씀을 받들어 진중군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독 장병들의 영혼과 육체에 회중찬송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 예배와 찬송의 유기적 특성을 강하게 집약한 김남수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에의 부

름을 받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은 예배에의 본질로서 기능을 한다."[62] 주일아침에 드리는 전통예배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선함을 추구하며 드리는 혼합예배나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드리는 현대예배(contemporary worship) 등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회중찬송은 예배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예배의 필수이자 교회음악의 꽃이다.[63] 이 점에서 군인교회 찬양영성 강화를 위해 회중찬송의 열기 증대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김남수는 회중찬송 부르기 활성화를 위한 다음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진중군인교회에서 적극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첫째, 다양한 방법으로 찬송 부르기를 시도하라.
> 둘째, 찬송교실을 운영하라.
> 셋째, '찬송 찬양대'를 운영하라.
> 넷째, 찬송시를 쓰도록 하라.
> 다섯째, 달마다 분기별로 찬송가를 지정하여 불러라.
> 여섯째,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하라.
> 일곱째, 소식지나 광고란을 통해 찬송가 해설을 게재하라.
> 여덟째, 예배 시간 전에 잘 모르는 찬송을 교육하라.
> 아홉째, 찬송가 외우기를 격려하라.
> 열째, 강대상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해서 예배 찬송의 기능적인 면을 강화하라.[64]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국군 병영에 자리한 진중군인교회의 군종목사들과 군

62) 김남수, "찬송가 부르기의 활성화 방안과 자세," 『예배와 찬송』 (서울: 비전사, 2009), 302
63) *Ibid.*, 308.
64) *Ibid.,* 308-310.

선교사들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군인교회 찬양 영성' 이슈를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주지의 사실인 바, 현대 세계는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역동적 세계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대처해나가듯이 한국군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세대정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선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군신자화 운동, 군복음화 운동, 비전2020 실천운동, 비전2030 실천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군선교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감으로써 한국군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민족복음화에의 비전을 품고 21세기 복음의 실천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방환경은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시편 16: 6)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기에 '군인교회 찬양 영성'을 강화하는 것은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의 목회적 사명이자 한국교회가 깊이 검토해야 할 신앙적 과제이다.

바라기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순응하는 한국군 병영과 국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고(역대상 12: 40) 강력하게 고양되게 하자. 그리하여 국군장병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써 본분을 다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성령과 함께하는(역대상 12: 18)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자.

특히 군선교에 임하는 모든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종병과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기본 임무수행에 더욱 충실하자. 세상은 변화해도 진리의 복음은 불변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 2).

Abstract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and the Praise Spirituality in Military Churches

Kyu Chul Lee

This study is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anging defense environment" and the "praise spirituality of military churches" within the Korean military, which is currently implementing "Defense Innovation 4.0" following "Defense Reform 2.0."

The necessity of examining the changing defense environment in relation to Korean military missions stems from the fact that while the essence of the Gospel remains unchanged, the methods of conveying it must be renewed to suit the times.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aise spirituality of military churches is to advance Korean military missions by sharing the grand vision of establishing soldiers worshipping in military camp churches as "worshiping human beings"(homo venerabundus) who fully praise and worship God. Accordingly, amidst the realistic tension between "traditional worship" and "modern praise worship" currently faced by military camp churches, this study seeks "balance and harmony in worship" to enhance the praise spirituality of Christian soldiers and foster their growth as complete Christians.

Key Words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Praise Spirituality in Military Churches, Contemporary Praise Worship, Blended Worship,

Balanced Worship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A Suggestions for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 임정인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방혁신 4.0에 따른 병력 구조 변화와 부대 구조 개편 및 대규모 타운형 군 관사 건립과 민간주택 활용 확대로 인한 주거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제시하고, 육군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교 전략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선교 사역 대상을 병사 중심에서 간부, 군무원, 군인 가족으로 확장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주둔지 통합과 타운형 군 관사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연합 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민간교회와의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방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현장 사역자의 실증 데이터를 통합하여 미래 군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중심단어

군선교, 군선교 대상 변화, 권역별 연합 사역,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7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9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군종목사(군종 64기), 신학과학연구소 커넥트 마인드 대표

I. 서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대면과 비접촉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으면서 재택근무와 실시간 화상회의가 표준 소통 방식으로 정착되었고,[1] 교육·소비·여가 등 일상 영역 전반이 디지털 플랫폼과 개인화된 실내 활동 중심으로 재편되었다.[2]

군선교 현장도 예외 없이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민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방역 및 격리 조치로 인해 장기간 대면 종교행사가 중단되면서 전반적인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진중세례식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3]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신앙교육 등 선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고, 병사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제도가 팬데믹 기간에 전면 실시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군선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4]

군선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군선교 전략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선교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은 개별 교회의 사역 및 목회 프로그램과 관계된 내용

---

1) "화상회의·재택근무·유연근무제…일터를 바꾼 코로나19", https://www.mt.co.kr/industry/2020/03/25/2020032418374243433, 『머니투데이』, 2020.3.25.

2) "코로나로 바뀔 일상들(초저출산을 포함하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9484, 『중앙일보』, 2020. 3. 26.; "커피 마시러 나가기도 힘들다면…'구독'이 필요한 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266931, 『헤럴드경제』, 2020. 3. 25.; "언택트족·홈트족…'뉴노멀' 이미 시작됐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9298426, 『매일경제』, 2020. 4. 15.

3) "'진중세례식 중단' 코로나19가 바꾼 군선교 현장",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7256, 『기독일보』, 2020. 3. 5.

4) "군선교,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도약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8754&code=23111111&cp=nv. 『국민일보』, 2022.4.11.

이 대부분이며, 군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5] 2020년 이후 실시된 일부 연구는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에 대한 군선교 전략을 제안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배춘섭(2025)은 군선교사 제도화와 지역 교회 연계 모델 구축 및 입대 전 청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군선교 전략으로 제안했지만 변화되는 국방환경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김진석(2021)은 국방개혁 2.0을 분석했지만 국방혁신 4.0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희준(2021)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토대로 군인교회 활성화, 세례와 양육 및 파송을 군선교 전략으로 제안하였고, 유경하와 허경화(2026)는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Z세대 군 장병들이 군선교에 대해 갖는 인식을 분석하여 군선교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군선교 대상으로 용사만 상정한 한계를 가진다.[6]

---

5)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군선교 전략을 주제로 작성된 논문은 총 4편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성훈,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군선교 정책 전략," 「장신논단」 48(2) (2016), 331-358.; 김성훈, 임세현,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에 대한 혼합연구," 「신앙과 학문」 23(2) (2018), 65-89.; 배춘섭,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역할과 전략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71(3) (2025), 167-207.; 유경하, 허경화, "Z세대 군장병들의 군선교 인식 분석-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복음과 선교」 73(1) (2026), 123-166.
군선교신학에 게재된 논문 중 비전2020 실천운동 및 비전2030 실천운동 평가가 중심인 논문을 제외하고 군선교 전략과 관계된 논문은 총 3편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오희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군선교신학」 22 (2023), 179-209.; 임정인, 정세준,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군선교신학」 24 (2025), 279-307.; 정비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군선교신학」 23 (2024), 15-44.

6) 본 단락에 인용된 논문 중 배춘섭(2025)과 유경하와 허경화(2026)은 5번 각주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학위논문의 출처만 밝힌다. 김진석,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군선교 전략,"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오희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세례, 양육, 파송을 중심으로,"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선교 현장과 관계된 다양한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을 대상으로 먼저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으로 국방혁신 4.0에 따른 병력 구조의 변화, 부대 구조의 개편, 그리고 대규모 타운형 군 관사 건립과 민간주택 활용 확대 등 주거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변화의 시대에 적절한 군선교 전략으로 군선교 사역 대상 확장 및 맞춤형 전략, 권역별 연합 사역 및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과 협력 사역을 제안할 것이다. 추가로 현장 사역자(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안하는 미래 군선교 전략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과 함께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II. 변화하는 환경 이해

1. 병력 구조 변화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방혁신 4.0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7]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만 의미하지 않으며,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중요한 배경으로 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미래 국방환

7) 2019년부터 추진되던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국방혁신 4.0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국방개혁 4.0에 내포되어 있다.[8)]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병역자원 감소로 나타난다. 군 입대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2년에 25만 명이었지만 2035년이 되면 21만 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3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9)]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현역병 입영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2021년까지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8만 명대로 줄어들었으며,[10)]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병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인원도 감소하고 있다. 학군 및 학사 장교후보생의 연도별 모집 경쟁률은 2018년부터 하락 추세에 있으며,[11)]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3년 48%에서 2024년에는 42.5%까지 하락했다.[12)] 2025년에 임관한 사관학교(육사/3사) 출신 장교는 2024년보다 약 20%(150여 명) 감소했고, 학군장교는 2022년 대비 약 20%(800명)가 줄어들었다.[13)] 즉, 병사와 간부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8) 국방부, 국방개혁 4.0, 2023, 7.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방개혁 4.0에서 국방환경의 도전요인으로 언급되는 네 가지 요인 중 하나이다. 자료에 따르면, 22년도에 25만 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35년도에 21만 명, 40년도에 13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병역자원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강점이다.

9) *Ibid.*

10) 국방부, 2025년 국방통계연보, 2025, 113.

11) *Ibid.,* 116.

12) "일관성 있는 군 의무복무 장려금의 필요성",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50848. 법률방송, 2026. 4. 2.

13) "'사라진 소위 1000명'…초급간부 처우 개선해야", https://www.ajunews.com/view/20250408080333967. 아주경제, 2025.4.9.

간부와 병사 등 신분에 관계없이 병역자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병력 내 신분 비율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간부 20만 명과 병사 40만 명의 구조였지만 2022년에는 간부가 20만 명에 병사는 30만 명으로 2018년 대비 병사 숫자만 10만 명 감소하면서 간부 비율이 높아졌다.[14] 미래 군 병력 구조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3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15] 비전투 분야 직책은 현역에서 군무원으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으며, 2017년에 약 26,000명이던 군무원 정원은 2025년에 약 46,000명으로 증가했다.[16]

즉,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병력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간부와 군무원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병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병사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 군선교 사역의 핵심 대상이 간부와 가족, 군무원에게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부대 구조 개편

부대 구조 개편은 군부대의 창설과 통폐합 및 주둔지의 재배치를 포괄한다. 국방개혁 2.0에 근거하여 부대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육군의 개편 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육군은 2018년 11월 제8보병사단과 제26기계화보병사단을 제8기동사단으로 통합한 것을 시작으로 부대 개편을 본격화하였다.

---

14) 김신숙, "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 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국방정책연구」 39(4) (2023).

15) "국방부, 인구절벽으로 현역 군인 간부 비율 2040년까지 63%로 확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1011070471136. 『매일신문』, 2026.6.10.

16) "軍 인력 부족한데…군무원, 퇴직자 10명 7명이 중도퇴직 '비상'",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4986. 『서울경제』, 2026. 3. 4.

2019년 1월에는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제11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제11기동사단으로 통합되었으며, 제2보병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개편되었다.[17] 아울러 제6군단과 제8군단, 제27보병사단과 제28보병사단 등이 해체되었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다수의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대(1·2·9·23·25·30사단 등) 역시 순차적으로 해체 및 통합되었다.[18]

이러한 부대 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 주둔지의 변화를 수반하며, 향후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를 통해 소규모 주둔지 통합 계획을 제시했으며,[19] 육군 또한 '2026 육군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800여 개의 대대급 주둔지 가운데 통폐합이 가능한 곳들을 선별하여 2036년까지 여단급 중심 주둔지로 통합·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20]

이 같은 부대 구조 개편과 주둔지 통합은 미래 군선교 사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대급 주둔지 통폐합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부대 내 교회의 폐쇄로 이어져 대대급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군선교사의 사역지 조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은퇴 시점이 도래한 군선교사는 자연스럽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은퇴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있는 군선교사와 해당 부대(군종목사)는 원활한 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주둔지 통폐합

17) "'국방개혁2.0' 3년간 73개 부대 개편…'제2창군' 그간 어떻게 진행?",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1705191893. 『국방일보』, 2021. 7. 8.

18) "'병역자원 급감' 1·9·25사단 신교대 해체…28사단 2025년 부대 해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06000017. 『뉴스핌』, 2023. 12. 6.

19) "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https://www.seoul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2. 『서울포커스』, 2026. 6. 9.

20) "김규하 육군 총장 'AI·드론 연계 스마트 운용, 2027년 시범 부대 완성'",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50081. KBS 뉴스, 2026. 4. 30.

으로 인해 같은 주둔지에 여러 개의 독립된 부대가 주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같은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은 대부분 같은 부대 소속이었지만 부대 구조 개편과 주둔지 통합이 진행되면 단일 군인교회에 다양한 소속의 장병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들은 연합 사역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대 통폐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군선교사가 사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역량이 여전히 충분하고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 상담, 심방, 양육 등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군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 군선교사 수급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같은 주둔지에 위치한 경우, 연합 사역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병사들은 각자의 소속을 따라 주둔지 인근의 각기 다른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주둔지 내 군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대규모 타운형 군 관사 건립과 민간주택 활용

2009년에 준공된 육군 용인관사를 시작으로 육군의 군인아파트 건축은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건립되기 시작했고,[21] 이후 신축 또는 재건축이 실시된 대부분의 군인아파트 역시 BTL 방식에 의한 대규모 타운형 단지로 건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서부 지역의 경우 2015년을 전후로 하여 1사단 문산전진타운, 9사단 탄현아파트, 25사단 행복마을, 2기갑여단 미소마을아파

21) "벽산건설, BTL 군 관사 신축 사업 준공", https://www.breaknews.com/115723. 브레이크뉴스, 2009. 12. 3.

트 등이 BTL 방식으로 건축되었다.[22]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아파트 단지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거점 지역에 타운형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부대가 밀집한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타운형 군인아파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3]

군 관사가 대규모 타운형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군 관사의 운영 주체도 개별 부대에서 상급 부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방 지역의 경우에는 군단 사령부에 설치된 주거지원TF가 작전지역 내 군 관사 및 간부숙소를 통합해서 관리 및 운영한다. 과거에는 A부대 간부는 A부대가 관리하는 관사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군단 소속이라면 군단 주거지원TF에서 관리하는 모든 군인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군인아파트 단지에는 같은 지역 내 여러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와 가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A사단 소속이라도 여단, 대대 등 세부 소속이 다르면 같은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B사단 소속 기혼간부도 A사단 작전지역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BTL 방식의 군 관사 건립이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개념이라면 민간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지원은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개념이다.[24] 민간주택 매입은 기존에 건립된 지역 내 민간주택

---

22) "대규모 군 관사 BTL사업으로 통합 조성", https://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1. 『파주타임스』, 2014. 8. 20

23) "국방부 '대단지 관사 조성해 군인가족 주거만족도 높이겠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77718. 『매일경제』, 2026. 6. 18.

24) 국방부, op.cit., 251. 전세자금 지원에는 원금지원과 이자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금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간부가 전세자금을 대부받으면 국방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을 국방부에서 매입하여 간부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국방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이 두 제도의 공통점이다.

대규모 타운형 군인아파트 건축과 민간주택 활용의 증가 등 변화된 기혼간부의 주거형태는 군선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혼간부 대부분이 부대 근처에 거주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혼간부의 거주지 인근에 타 부대 군인교회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소속 부대의 군인교회 출석을 고민할 수 있다. 게다가 타 부대 군인교회라도 신앙생활 제반 여건(예: 교회학교, 소그룹 양육 및 교제, 주중 예배와 기도회 등)이 소속 부대 군인교회보다 좋다고 생각되면 간부 신자 가정이 예전처럼 같은 부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부대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연합 사역은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기혼간부와 가정에 긍정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변화하는 환경 속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지금까지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군선교 사역 대상 확장 및 맞춤형 선교

먼저, 간부와 가족,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미래 국방인력의 구조는 병사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간부와

군무원은 대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군선교 사역 대부분은 여전히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군선교 핵심 대상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2040년까지 간부 63%, 용사 37%의 비율로 병력구조를 조정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간부와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로 사역의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한다. 더불어 군선교는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사역이므로 군선교 사역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군선교 관계자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병사와 간부, 군무원, 가족 등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임정인과 정세준(2025)은 교회에서 제공되는 간식이 병사들의 예배 참석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간식의 효과는 2023년보다 2019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병사의 봉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26] 병영생활 여건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27] 과거와 비교해 군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28] 이는 병사들을 일방적인 돌봄과 물질을 제공받는 수혜적 군선교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세워가며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동역자이자 선교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5) 임정인, 정세준(2025), *op.cit.,* 279-307.

26) 국방부, *op.cit.,* 42.

27) *Ibid.,* 315.

28) *Ibid.,* 337.

오히려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선교는 위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간부는 직업군인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29] 이러한 결과는 병사와 달리 간부는 군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군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간부들에게 복음은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군선교에서 간부와 가족은 선교의 대상이기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목양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신자 간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타운형 군인아파트 단지에서 비신자 간부 및 가족들과 군인교회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들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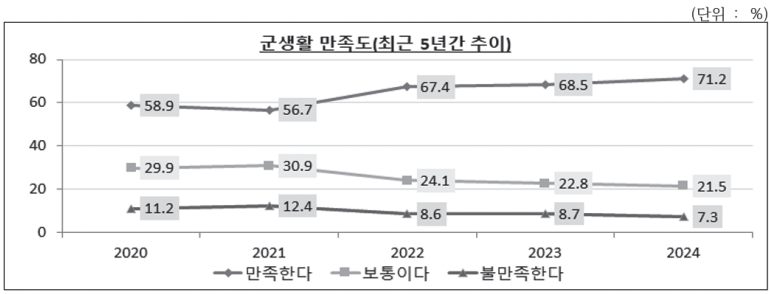
한편 군무원은 예전보다 인원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병력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선교적 관심에서 소외받기 쉽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의 첫걸음으로는 MCF(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개념의 확장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MCF는 현역 기독 군인의 모임으로 정의되었다. 군무원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과 함께 국군을 이루는 구성원이므로[30]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군무원들이 MCF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감을 없애고, 나아가 비

29) *Ibid.*,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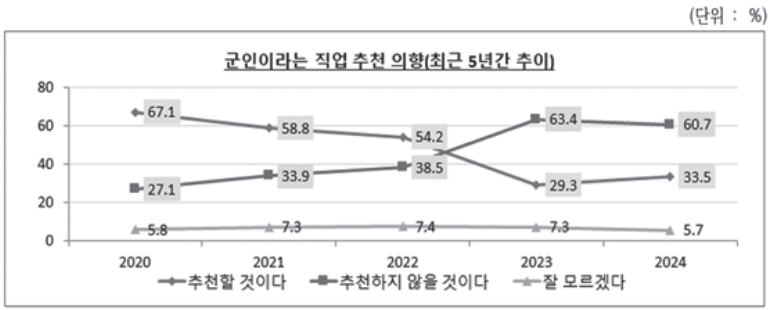
30)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신자 군무원들도 MCF 신앙공동체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군생활 만족도(병)〉



〈그림 2. 군인이라는 직업 추천 의향(간부)〉



2. 권역별 연합 사역

다음으로, 권역별 거점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합 사역이 요구된다.[31] 효과적인 권역별 연합 사역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한다.

31) 정비호, *op.cit.,* 15-44.

먼저 적절한 권역 내 거점 교회가 선정되어야 하고, 사역자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거점 교회를 선정할 때는 영내/영외 여부, 군 관사로부터의 거리, 교통 등 접근성과 함께 예배당, 교육관, 소그룹 공간, 편의시설, 주차 등 교회 내부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교회 내부 요인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교회가 거점 교회로 선정된다면 연합 사역의 동력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역할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의 분명한 역할 구별은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 구성원간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집단의 업무 성과도 높인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32] 연합 사역에서도 사역자들의 역할 구별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보병사단을 예로 들면, 사단 군종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연합 사역 전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분담한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부서와 간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성경공부 등 성도들의 필요와 사역자들의 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역자들을 배치해야 한다.

성공적인 연합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자 모두가 기능적 팀 리더십(functional team leadership)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33] 그중에서도 담임목사 역할을 하는 사단 군종목사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기능적 팀 리더십 이론에서 팀 리더는 팀 구성원의 인지적/동

32)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생활관구조와 분대장 과업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2016), 1-25.

33) Zaccaro, S. J., Rittman, Al L., & Marks, M. A., "Team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12(4) (2001), 451-483.

기적/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주어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팀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팀 리더는 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단 군종목사는 예하 부대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지지적인 조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병사들을 대상으로는 각 부대의 상황에 따라 개별 사역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간부와 달리 병사들은 자유롭게 주둔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내에 교회가 있다면 영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부대별 거리와 출석 인원, 이동수단 등을 고려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여러 군인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주일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사역 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연합 사역에 참고할 부분이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병사단 교회에서는 오전에 군인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단 교회에서 간부와 가정들이 연합 예배 및 부서별 모임을 가지고, 오후에 성도들이 소속된 부대의 교회에 가서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실행하였다. 오전에는 연합 사역을, 오후에는 개별 교회 사역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교회의 독립성과 연합 사역의 유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개별 군인교회에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던 특별 집회가 연합 사역의 틀 안에서는 가능해질 수 있다. 연합 사역을 통해 특별 집회의 정례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병사와 간부, 가족 등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기독교

인들을 초대하는 전도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권역별 연합 사역의 실행과 관계된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성공적인 연합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및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단기간에 연합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사역자와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연합 사역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군인교회의 특성상 군종목사와 성도가 바뀔 때마다 연합 사역의 틀이 흔들린다면 사역은 지속될 수 없다. 기독교 신자 지휘관의 의도도 중요한 변수이다. 기독교 신자 지휘관이 취임할 때마다 지휘하는 부대에서의 독립된 신앙생활을 강조한다면 연합 사역은 지속되기 어렵다. 즉, 해당 지역을 초월하여 군인교회 전체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성도 모두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3.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 및 협력 사역

또한, 민간교회와의 지속가능한 자매결연과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협력 사역이 진행된 대표적인 방식은 위문예배와 대규모 진중세례식 후원이었다. 위문예배와 진중세례식 후원을 통한 민간교회와의 사역 협력은 많은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진중세례식 후원은 대부분 양성교육기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병사와 간부가 실제 군복무를 하는 부대의 군인교회에서는 민간교회 후원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위문예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매결연을 맺은 군인교회와 오랫동안 협력하는 민간교회에 의해 위문예배가 실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문예배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된다.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사역이 가능하다면 제반 여건이 열악한 대대급 이하 군인교회는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자는 군선교 현장에서 실제 진행된 협력 사역 사례를 소개하며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 및 협력 사역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지역방위사단에 근무하면서 지역 내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 지역방위사단에서 운영하는 해안 소초에는 소초마다 군선교사가 사역하는 군인교회가 있다. 사단 교회는 예하 대대 및 소초 교회들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지역 내 민간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대대급 이하 교회에 대한 후원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지역 내 민간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교회와 연결되었고, 민간교회 담임목사님과 자매결연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수요저녁예배 설교와 군선교 특강을 통해 군선교의 중요성, 특히 지역 내 소규모 군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즉, 군종목사를 통해 민간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가 먼저 지역 내 소규모 군인교회를 섬기고 후원하는 사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성도들까지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 8개월 동안 지역 내 군인교회와의 지속적인 자매결연 사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회 차원에서 자매결연 사역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지만 실제 사역은 교회 내 소그룹(순)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해안 소초에 주둔하는 전 병력이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소그룹 1개가 소초 교회

뿐 아니라 소초 전체를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게 되어 사역의 기초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민간교회 성도들이 시작 단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교회는 이전까지 군선교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배경에서 민간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한 자매결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초 교회를 섬기는 군선교사와 장병들의 기도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격오지에서 외롭게 군선교 사역을 하는 군선교사와 가정, 그리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부활절과 성탄절 등 교회 절기 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처럼 특별한 날을 전후해서 1년에 2~3회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특별간식이나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하되 일반적인 위문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고, 단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특별순서 준비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장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셋째,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더라도 토요일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도 있다. 해안 소초 주둔지는 해수욕장에 있고, 소초마다 근처에 관광명소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별 단합대회를 겸해서 편하게 소초를 방문하는 개념이다. 선교지인 소초 교회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섬김의 사역이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조언했다.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성도들은 거부감 없이 자매결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연구자가 사단을 떠난 후 군종목사가 세 번째 바뀐 2026년까지도 자매결연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 군종교구의 역할은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군종교구에서는 실제적인 자매결연 사역을 할 수 있는 민간교회를 군인교회와 연결해 주어야 한다. 연구자의 경우 특별한 계기를 통해 지역 교회와 연결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 군종목사 또는 군선교사의 노력으로 민간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군종교구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기독교 군종교구가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민간교회와의 1:1 자매결연이 포함된 '대대급교회 아웃리치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교회가 연결된 이후에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민간교회와 협력하여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군선교에 대해 갖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교회의 리더십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민간교회 담임목사와 당회 등 리더십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매결연 사역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는 것이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Ⅳ. 군선교 사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군선교와 관계된 변화하는 환경과 미래 군선교 전략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군선교 사역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육군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 49명과 군선교사 3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군종목사 중 남성은 48명, 여성은 1명이었고, 군선교사 중 남성은 28명, 여성은 10명이었으며 나이와 사역기간의 통계치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었다.[34)]

〈표 1. 군선교 사역자의 나이와 사역 기간 기술통계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이(전체)	86	28	78	46.26	11.61
군종목사	48	28	49	38.23	6.27
군선교사	38	40	78	56.39	8.38
사역기간(전체)	86	1	30	11.83	7.01
군종목사	48	1	24	10.98	6.60
군선교사	38	2	30	12.89	7.44

〈표 2. 군선교 사역자의 사역 기간 범주〉

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군종목사	12	7	11	15	3	48
군선교사	7	4	11	8	8	38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군선교 대상이다.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군선교 대상과 미래 군선교 사역에서

34) 나이와 사역 기간 응답에서 두 항목 모두 99라고 응답한 자료 1개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이와 사역 기간이 포함된 분석은 총 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을 질문하였고, 이를 통해 군선교 사역 대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군선교 사역의 어려움이다.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느끼는 사역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미래 군선교 전략 수립의 자료로 삼고자 했다. 셋째, 미래 군선교 전략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 군선교 사역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전략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먼저 항목별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전체 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신분과 군선교 사역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신분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역 기간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역 대상의 변화

현재와 미래 시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대상의 변화에 대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병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이지만 미래에는 중요성이 감소되었다(86.2%→67.8%). 반면 간부는 현재와 미래 모두 비슷한 비율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81.6%→82.8%). 간부/군무원 가족(29.9%→39.1%)과 군무원(2.3%→9.2%)은 미래에 더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대상은 '병사'와 '간부/군무원 가족(이하 가족)' 및 '군무원'이었다. 미래 군선교에서 병사를 중요한 선교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선교사가 92.1%(35/38명)였고, 군종목사는 49.0%(24/49명)였으

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은 $p < .001$이었다. 미래에 중요한 군선교 대상으로서 가족에 대한 응답 비율은 군종목사가 46.9%(23/49명)였고, 군선교사는 28.9%(11/38명)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은 $p < .05$였다.

사역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군선교 사역자들 중 5년 미만 사역자들은 현재(100%, 19/19명)와 미래(78.9%, 15/19명)에 병사를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 인식했다. 10년 이상~15년 미만 사역자들은 미래 군선교 사역에서 병사(86.4%, 19/22명 → 54.5%, 12/22명)보다 간부(81.8%, 18/22명 → 90.9%, 20/22명)와 가족(27.3%, 6/22명 → 45.5%, 10/22명)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년 이상 사역자들은 가족(0%)보다 현재와 미래 모두 동일한 비율로 병사(90.9%, 10/11명)와 간부(100%, 11/11명)가 더 중요한 사역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군선교 대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현장 사역자들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병사는 현재와 미래에 여전히 중요한 선교 대상이지만 미래에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역에 집중하면서 간부/군무원 가족과 군무원에게도 선교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군선교 장애물 인식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75.9%)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개선된 병영문화(34.5%)와 간부 신자의 출석 감소(33.3%), 민간교회의 후원과 소통 부족(26.4%), 병역 자원 감소(23.0%)가 뒤를 이었으며, 군선교사의 수급 어려움(6.9%) 응답은 가장 적었다.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선된 병영문화'와 '간

부 신자의 출석 감소'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선된 병영문화'는 군선교사의 52.6%(20/38명)가 군선교의 장애물로 응답했고, 군종목사는 20.4%(10/49명)만 군선교의 어려움으로 인식했다($p < .01$). 반면 '간부 신자의 출석 감소'는 군종목사의 44.9%(22/49명)가 군선교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식했고, 군선교사는 18.4%(7/38명)만 군선교의 장애물이 된다고 응답했다($p < .05$).

사역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항목별 응답 비율이 〈표 3〉에 제시되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사역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역자들이 군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응답했고, '개선된 병영문화'는 10년 이상 사역자들이 10년 미만 사역자들과 비교할 때 더 큰 어려움으로 인식했다. '간부 신자의 출석 감소'는 20년 이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군선교의 위기로 인식했고, '병역 자원 감소'는 10년 미만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들보다 군선교의 도전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민간교회의 후원/소통 부족'은 20년 이상 사역자들이, '군선교사의 수급 어려움'은 10년 이상~15년 미만 사역자들이 군선교의 장애물로 인식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간부 신자의 출석 감소'를 군선교의 장애물로 인식한 결과는 미래 군선교 사역에서 간부 신자의 출석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표 3. 사역 기간에 따른 군선교의 장애물 인식〉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집단별 사례수(명)	19	11	22	23	11
종교에 대한 무관심	68.4%	81.8%	77.3%	69.6%	90.9%

개선된 병영문화	21.1%	18.2%	40.9%	39.1%	45.5%
간부신자 출석감소	42.1%	36.4%	31.8%	39.1%	9.1%
병역 자원 감소	36.8%	36.4%	13.6%	17.4%	18.2%
민간교회 후원/소통 부족	26.3%	27.3%	22.7%	26.1%	36.4%
군선교사 수급 어려움	5.3%	0%	13.6%	8.7%	0%

3. 미래 군선교 전략

미래 군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에 대한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개별 교회의 예배 및 소그룹 양육(73.3%)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권역별 연합 사역(65.1%)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46.5%)과 위문예배 및 문화공연(10.5%)이 뒤를 이었고, 대규모 진중세례식(3.5%)은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신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문예배 및 문화공연'은 군선교사의 21.1%(8/38명)가 미래 군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응답한 반면 군종목사는 2.0%(1/49명)만 응답했으며, 집단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은 $p < .05$였다.

사역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항목별 응답 비율이 〈표 4〉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사역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개별 교회 예배 및 소그룹 양육'과 '권역별 연합 사역'을 미래 군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응답한 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선교의 상징으로 여겨진 '대규모 진중세례식'과 '위문예배 및 문화공연'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10년 이상~15년 미만 사역자들은 모든 집단 중 유일하게 '개별 교회 예배 및 소그룹 양육'보다 '권역별 연합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했고, 20년 이상 사역자들은 다른 항목들보다 '개별 교회의 예배 및 소그룹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민간교회 자매결연'은 모든 집단에서 중간 정도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군선교를 대표하는 사역으로 여겨진 대규모 진중세례식과 위문예배/문화공연이 미래 군선교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개별 교회의 예배 및 소그룹 양육과 권역별 연합 사역이 중요하다는 결과는 미래 군선교에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 사역 기간에 따른 미래 군선교 전략 인식〉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집단별 사례수(명)	19	11	22	23	11
개별 교회 예배/소그룹	78.9%	72.7%	68.2%	69.6%	81.8%
권역별 연합 사역	57.9%	63.6%	81.8%	65.2%	45.5%
민간교회 자매결연	42.1%	54.5%	40.9%	47.8%	54.5%
위문예배/문화공연	10.5%	9.1%	9.1%	13.0%	9.1%
대규모 진중세례식	5.3%	0%	0%	4.3%	9.1%

V. 한계 및 미래연구제안

본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육군 군인교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 공군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별 특성을 고려한 선교 전략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 군선교 전략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과 시범운영 실시결과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자가 제

안한 미래 군선교 전략에 대한 현장 사역자들의 응답을 통해 본 연구결과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 인원도 적었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현장 적합성이 의미 있게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문항들로 구성하여 보다 많은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국방환경의 변화 - 국방혁신 4.0에 따른 병력 구조의 변화, 부대 구조 개편 및 주둔지 통합, 대규모 타운형 관사 건립과 민간주택 활용 확대 - 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였다. 또한 육군의 군선교 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전략들의 현장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역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신분 맞춤형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 비율이 확대되는 국방인력의 구조개편에 발맞추어 군선교의 패러다임은 '병사 중심 선교'에서 '간부/가족/군무원을 포괄하는 확장형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병사는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 동역자로 세우고, 간부와 가족에게는 위로와 목양적 돌봄을 제공하며, 군무원에게는 MCF를 통한 포용적 선교가 요구된다.

둘째, 권역별 연합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둔지 통폐합과 BTL 관사 건립으로 주거 및 부대 환경이 광역화됨에 따라 개별 부

대 중심의 사역 한계를 극복할 권역별 연합 사역이 필수적이다.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춘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무엇보다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 연합 사역을 통한 효과적인 군선교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민간교회와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매결연이 요구된다. 기독교 군종교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간교회가 연결되고, 자매결연 사역에 대한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역이 진행될 때, 의미 있는 결실이 나타날 것이다.

Abstract

A Suggestions for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Jung In L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nging military mission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military ministry. To this end, it analyzed structural changes in military personnel under Defense Innovation 4.0, troop and unit reorganizations, and residential shifts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town-type military quarters and the expanded use of private housing. Based on these environmental analyses,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were proposed, and their field applicability was empirically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87 military chaplains and military missionaries serving in Republic of Korea Army churches.

The key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of military ministry must expand from an enlisted-soldier-centered model to include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civilian militar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transitioning into customized ministries tailored to each group. Second, in response to base consolidations and the rise of town-type military residences, regional joint ministries centered on designated hub military churches must be implemented. Third, sustainable cooperative ministr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practical sister-church partnerships with civilian churches.

This study hol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as it integrates structural shifts in the defense environment with empirical

data from field ministers to present a clear direction for a paradigm shift in future military ministry.

Key Words

Military Mission, Shift in Ministry Targets, Regional Joint Ministry,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Civilian Churches

논문 기고자 Email

lji4019@naver.com

임정인의 논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에 대한 논찬

A Comment: A Suggestions for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 주연종 Ph.D. *

임정인 박사의 본 연구는 초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방혁신 4.0에 따른 병력구조의 변화와 부대 개편 및 대규모 타운형 군 관사 건립과 민간주택 활용의 확대 등에 따른 육군 군 간부의 주거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육군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구자는 국방혁신 4.0의 요체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변화로 보았고 이를 통해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국방혁신의 필요 중의 하나로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2040년에는 현역병이 13만 명대로 감소하고 장교 및 부사관의 충원율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혁신의 필요의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28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군종목사(예 군종 50기), 사랑의교회

두 번째 요소는 부대 구조 개편인데 군부대의 창설과 통폐합 그리고 주둔지의 재배치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부대 구조의 개편은 육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큰 개편은 제1·3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개편된 것이고 여러 보병사단들이 '신속대응사단' 혹은 '기동사단' 등으로 통합 재편되었다. 더 나아가 제6군단과 제8군단, 제27보병사단과 제28보병사단 등을 포함해서 다수의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대(1·2·9·23·25·30사단 등) 역시 순차적으로 해체 및 통합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부대 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 주둔지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주둔지의 변화가 미래 군선교 사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착안하였다. 그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현상이 기존의 단일부대 단일종교 시설이 이제는 다양한 부대가 하나의 종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간부 가족의 숙소가 각각의 부대마다 별도로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BTL 사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타운형 군 관사 혹은 민간 주택을 관사 개념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향후 국방부가 군인아파트 단지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거점 지역에 타운형으로 조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아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관사의 운영과 관리 또한 별도의 체계로 진행될 것은 물론 아예 관리 주체가 필요 없이 민간 주택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세자금 지원 등의 개념도 소개하였다.

군의 병력구조의 변화와 군부대 구조의 개편, 그리고 육군 군 간부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래 군선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핀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로

평가할 만 하다.

본 연구는 군선교 사역의 대상을 간부와 그 가족, 그리고 군무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병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군 인력구조의 비율상 간부와 군무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병사 37%, 간부 63%로 병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국방부의 계획을 고려한다면 간부와 군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군선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선교 및 목양의 대상으로서의 병사와 간부에 대한 접근이 과거와 달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함도 지적하고 있다. 병사는 오히려 군선교의 동역자로, 간부는 위로와 격려의 대상자로 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신자 간부가족 혹은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선교적 접근 및 목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속해서 본 연구에서 군선교 대상의 변화에 따른 선교 방식의 전환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 거점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연합사역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영내/영외 여부, 군관사 혹은 타운형 숙소로 부터의 거리, 예배당, 교육관, 소그룹 공간,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연합사역을 위해서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등의 기능적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에 적절한 모델로 기능적 팀 리더십을 제시했다. 팀 리더십은 사단급 군종목사를 정점으로 구성되고 활용된다면 효과적인 팀 사역이 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거점 연합사역의 주요 변수로는 민간교회와의 자매결연 및 협력사역을 들고 있는데 기존의 위문예배와 진중세례의 부족함

을 보완할 효과적인 유형의 연합사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소부대별 연결 및 절기에 따른 구체적인 맞춤형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군선교의 플랫폼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박사는 지금까지의 분석과 제안을 뒷받침할 만한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현황 분석과 전망과 설문의 결과는 비교적 일치되어 나타났다. 군선교 대상도 병사에서 간부 및 군무원 가족, 군무원 등으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군종목사가 군선교의 대상을 간부와 병사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본 반면 군선교사의 경우는 여전히 병사를 군선교의 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차이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군종목사의 신분이 참모장교이자 자애로운 성직자의 이중신분인 반면 군선교사는 민간 성직자로서 간부와의 접촉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고 병사와의 만남이 주된 만남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력구조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민간 성직자 역시 선교의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및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군선교의 장애물로서는 군 간부의 교회출석 감소와 병영문화의 변화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장병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 중요한 선교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군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군인력 구조의 변화, 부대 개편, 주거 환경의 변화, 병영문화의 변화로 보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전략의 수립과 기능적 팀 리더십이 형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그리고 향후 10-20년간 진행될 군의

내·외부적인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변화 요인을 추출하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함께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도 자인하다시피 그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은 향후에 제시할 것으로 미루어 두고 있다. 이는 미래 군선교의 현장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변동성이 크기에 여러 기능과 주체들의 협력과 토론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선교의 여러 주체들은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성찰하여 종합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 답을 한다면 군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논문 기고자 **Email**
yeonjong65@gmail.com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
— 군선교의 특수성과 청년 장병을 위한 회중 찬양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Military Mission and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for Young Soldiers

» 이석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군선교의 특수한 환경과 MZ세대 장병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회중 찬양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약 50만 명의 현역 장병이 복무하는 거대한 공동체로서, 연간 22만여 명의 청년이 새롭게 입영하고 전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MZ세대 장병들의 탈종교화 경향과 예배 참여율 저하, 그리고 군 특유의 환경적 제약은 군인교회 예배 사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의 관점에서 회중 찬양이 지닌 선교적 기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군종제도 창설(1951) 이후 현재까지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역사적 발전을 다섯 시대로 구분하여 추적한다. 셋째, 군선교의 특수성이 찬양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선교적 개방성과 포용성, 진정성과 군 문화와의 연결성, 그리고 단계적 회중 찬양 구조화라는 세 가지 기준에 기반한 회중 찬양 적용 모델을 제안한다.

중심단어

군인교회, 회중 찬양, MZ세대 장병, 예배 갱신, 선교적 예배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16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8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군종목사(군종 61기), 육군 군수사령부 칠성대교회 담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군대는 약 50만 명의 현역 장병이 복무하는 거대한 공동체이다. 병무청 『2024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22만 3천여 명의 청년이 현역병사로 입영하였다.[1] 이들은 본인의 신분에 따라 출석하는 군인교회를 통해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귀한 선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어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군종제도를 통해 군 안에는 760여 개의 군인교회가 있다.[2]

이러한 군인교회는 단순한 부대 내 종교 시설을 넘어 한국교회 청년 선교의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관문선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병교육대와 훈련소 그리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중세례운동을 실시하여 청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이진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독교 군종목사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상황은 군인교회가 한국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3]

하지만 최근 MZ세대 장병들의 종교 기피 현상과 예배 참여율 저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김성

---

1) 병무청, 『2024 병무통계연보』 (대전: 병무청, 2024), 119-122. 2024년 현역병 등으로 입영한 인원은 223,136명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인원은 221,604명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상비병력 규모는 약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 "현역 35만 명에 민간인력 15만 명을 더하는 아웃소싱 병력 모델" 선언, 2025).

2) 한국 군종제도의 창설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50년 12월 21일 대비지(대통령 비서실 지시) 국방신 제29호로 군목 파송을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육군은 육본일반명령 제31호(1951. 2. 7)로 군종업무를 창설하였다. 안광춘, "군목과 지도력," 『군선교신학』 9 (2011), 257-259.

3) 이진구, "한국 군종제도의 역사와 현황," 『종교문화비평』 29 (2016), 45. 이진구는 기독교 군종목사의 비율이 전체 군종장교의 약 55%를 상회함을 통계로 제시한다.

훈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독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군 복무 이전부터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대안으로 예배와 신앙 모임의 질적 강화를 제시하였다.[4] 또한 김성훈은 다른 연구를 통해 제1공병여단 362명을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시점에 걸쳐 추적 조사하여, 소속 부대 배치 후 기독교 비율이 이등병 33.1%에서 상병 30.4%로 소폭 이탈하며, 이탈 원인이 "신앙 성장의 부재, 지속되는 임무, 쉼의 필요"에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예배 형식을 다양화하고 편안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5]

더불어 군선교의 위기는 이제 현장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연구소(MDI)가 2026년 5월 개최한 「2026 군선교 세미나」에서 이정우 한국교회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은 "전국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 예정이고,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6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으며 군종목사 지원자도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세미나 논찬자 김형석 MDI 연구원은 "요즘 장병들은 단순한 종교 프로그램보다 관계와 공감, 상담과 돌봄의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고 진단하며,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6]

---

4) 김성훈,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군선교 정책 전략," 『장신논단』 48, no. 2 (2016), 331-358.

5) 김성훈,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군선교신학』 15 (2016), 216-245. 특히 217, 225-226, 242-243 참조.

6) 이정우, "2026 군선교 현황 보고," 2026 군선교 세미나 발제문 (선교와 디아코니아연구소 주관, 2026년 5월 28일). 손동준, "군교회 118곳 문 닫는다… 軍선교, 생존 기로," 국민일보, 2026년 5월 31일. 이 기사는 이정우 사무총장의 발제 내용과 김형석 MDI 연구원의 논찬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권수영은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기반한 군대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며, 특히 초급간부와 병사들 사이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소통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비폭력 대화(NVC)를 통해 MZ세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전략이 군선교에 필요함을 주장한다.[7] 또한 최은석은 MZ세대 장병들이 기성 간부 세대와 현격한 사회문화적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 정신교육이 아닌 세대의식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은 MZ세대의 예배와 회중참여에 있어서 접근법에 좋은 통찰을 제공한다. 곧 소통과 존중을 통하여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임정인은 기독교 군 병사 167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예배참석빈도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의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9] 군인교회 예배에서 찬양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한다면 예배참석빈도에 회중 찬양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교회 회중 찬양이 장병의 심리·영적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치유적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선교의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군인교

---

7) 권수영,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군선교신학』 23 (2024), 51-65.

8) 최은석, "선진 병영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군 정신교육: 신세대(MZ세대) 특징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3, no. 1 (2021), 29-63.

9) 임정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군선교신학』 20 (2022), 52-78.

회의 회중 찬양은 더욱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찬양은 설교에 앞서 장병들의 마음 문을 여는 선교적 관문이며, 복음을 전달하는 음악적 언어이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요소다. 오희준은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선교신학을 적용하여 진중세례 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식 부재와 생활의 변화 미흡이라는 현실을 진단하며, 용사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군선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군선교 전략에는 통합적 예배와 찬양 사역의 필요성이 담겨 있다.[10)]

그러나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선교적 기능에 관한 독립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군선교신학회가 발간해 온 군선교신학 논문집(제1~24권)에는 군선교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다루어졌다.[11)] 그러나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을 독립 주제로 다룬 논문은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학문적 공백이자 출발점이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네 가지 목적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회중 찬양이 군인교회에서 수행하는 다차원적 선교 기능을 신학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 시대적 찬양의 특징을 구조화한

10) 오희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군선교신학』 22 (2023), 179-209.

11) 그동안 비전2020운동, 여성의 역할, 성례전, 애국심과 개인윤리,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비전2020 중간평가, 군인교회 예배·설교·찬양 모범, 군 인권과 선교활동, 파트너십, 동성애와 군형법, 병역대체 복무제, 포스트 코로나·온라인 예배, 비전2030 선포, 전시 군종목사 역할, 정전 70주년과 한미동맹, 인구감소 시대 청년문화와 군선교,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등이 다루어졌다.

다. 셋째, 군선교의 특수성 - 비자발적 참여 구조, 신앙 배경의 혼재, 극한 실존적 환경, 단기 복무 순환 - 이 회중 찬양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유한 과제와 기회를 탐색한다. 넷째, MZ세대 장병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군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회중 찬양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현장 사역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신학적 분석을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예배학, 선교학, 군선교 관련 국내외 문헌 및 학술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한국군선교신학회의 군선교신학 논문집(제1~24권 전체)을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임정인·정세준의 예배 참석 동기 연구(제24권), 권수영의 MZ세대 청년문화 연구(제23권), 이규철의 군선교 역사 총괄 기조강연(제24권), 이종윤의 예배·찬양 모범 기조강연(제12권), 김성훈의 종단 데이터 기반 군선교 전략 연구(제15권) 등을 핵심 논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 기독교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군종제도 창설(1951)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

Ⅱ. 회중 찬양의 신학적 기초와 선교적 의미

1. 회중 찬양의 성경신학적 기초

회중 찬양(Congregational Worship)은 예배에 참여한 신자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공동체적 응답 행위라고 할 수 있다.[12] 이는 하나님과의

12)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45.

영적 교제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유대감과 영적 일치감을 강화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성경적·신학적 기능을 갖는다.[13] 특히 Robert Webber는 예배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극적 응답(dramatic response)으로 정의하면서,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찬양이 이 응답의 핵심 형식임을 강조한다.[14]

성경적으로 회중 찬양의 뿌리는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 발견된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공동체적 찬양을 촉구한다. 역대상 25장에 기록된 레위인 찬양대 제도는 예배에서 음악적 사역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를 권고함으로써, 찬양이 개인적 경건을 넘어선 공동체적 신앙 고백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특히 군인교회의 맥락에서 주목할 성경 본문은 역대하 20장이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기도한 후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두어" 전쟁터에 나아간 기록은, 극한 상황에서 드리는 공동체적 찬양의 신학적·군사적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15]

군인교회의 예배는 일반 교회 예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동원은 군인교회 예배의 특수성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강제적·반강제적 참여 구조 속에서 신앙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신앙 배경이 전혀 없는 비기독교인 장병들과 오랜 신앙인이 한 공간에 앉아 있다. 셋째, 전투·훈련·이별·죽

13) 김남수, "예배와 회중 찬송," 『복음과 실천』, 16, no. 1 (1993), 121-123.

14)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9.

15) 역대하 20: 21.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

음에 대한 공포 등 극한적 실존적 문제가 예배의 직접적 맥락을 형성한다. 이 세 가지 특수성은 군인교회 회중 찬양이 일반 교회와는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16]

김명혁은 군인교회가 가진 선교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군 복무 기간에 복음을 접한 장병들이 제대 후 지역 교회의 핵심 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17] 실제로 관문선교기관에서 입영 장병의 과반수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거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흥미,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점은 군인교회의 회중 찬양은 단순히 군 내부의 신앙 유지를 위한 기능을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선교적 교회론과 예배의 선교적 기능

가.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 명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음을 강조한다.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다.[18] 이성희는 선교적 교회론이 한국교회 맥락에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면서, 예배가 신자들의 내부 활동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적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배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순

16) 이동원, "군인교회 예배의 특수성과 목회적 과제"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2014), 34-38. 이동원은 이 세 가지 특수성을 근거로 군인교회 찬양이 비자발적 참여자를 위한 선교적 전략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17) 김명혁, "군 선교와 군인교회의 과제," 『복음과 실천』 18 (2005), 112.

18)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222-233.

환적 선교 운동의 중심에 있다.[19)]

나. 예배 전도(Worship Evangelism)의 개념

Sally Morgenthaler는 예배 전도(Worship Evangelism)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선교적 도구이며, 비신자들이 예배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예배를 전도와 신앙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사역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20)] 팀 켈러(Timothy J. Keller)는『팀 켈러의 센터처치』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전도적 예배(Evangelistic Worship)를 다루고 있다. 그는 예배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적 탁월함(Excellence)과 가사의 명확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술적으로 뛰어난 음악과 복음 중심의 가사는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21)]

이러한 개념은 군인교회 상황과 맥락에 잘 맞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인교회 예배에는 복음에 거의 노출된 적 없는 비신자 장병들이 상당수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자 장병들이라고 해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진정성 있고 문화적 적실함을 갖춘 회중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관문선교기관 중 특별히 연무

---

19) 이성희,『선교적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11. 이성희는 Darrell Guder 등 GOCN의 선교적 교회론을 한국교회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이와 같이 강조한다.

20) Sally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1995), 33.

21) 팀 켈러,『팀 켈러의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16), 642-648. 켈러는 이 2가지 외에도 진정성과 열정 (Authenticity & Passion), 문화적 적실성과 다양성 (Cultural Relevance & Contextualization)을 포함하여 전도적 예배에서 찬양이 가져야 할 4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군인교회의 경우 대표적인 찬양으로 알려진 "실로암"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한 영적 경험을 보여주는 특별한 예시일뿐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2]

다. 회중 찬양의 다차원적 선교 기능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은 네 가지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복음 선포 기능이다. 찬양의 가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를 선포한다.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가사를 함께 노래하는 행위는 비신자 장병들에게도 복음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선포 행위이다.

둘째, 공동체 형성 기능이다. Constance Cherry는 함께 노래하는 행위가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기제임을 강조한다.[23] 특히 관문선교기관에서 부르는 찬양의 모습은 간단한 안무와 함께 떼창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장병들의 하나 됨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치유와 위로의 기능이다. 군 복무의 극한 환경 - 강도 높은 훈련, 이별의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극도의 스트레스 - 은 장병들을 깊은 실존적 고통 속으로 내몬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노래하는 찬양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깊은 치유의 경험

---

22) 실로암 찬양은 1981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신상근 목사가 자신의 신앙고백과 요한복음 9장의 기적 내용을 바탕으로 18세의 어린 나이에 작사·작곡한 찬양이다. 1983년 군 입대 후 활동이 어려워졌으나,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찬양의 꽃다발』의 오픈 시그널송(Opening Song)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연무대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관련자료는 신상근 목사 간증 영상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79&second_category_id=145&id=113444&renew=001

23) Constance Cherry, *The Worship Architec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55.

을 제공한다. Matt Redman이 강조하고 있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Unquenchable Worshipper)"의 정신은 힘들고 어려운 군 복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장병들에게 놀라운 효과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24)]

넷째, 신앙 훈련 기능이다. 군인교회 찬양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는 회중뿐 아니라 찬양팀을 이루는 사람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섬김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찬양팀에 참여하고 악기를 훈련하며 찬양 기획에 동참하는 기독 장병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사역 역량을 키우게 된다.

Ⅲ. 한국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역사적 발전

<표 1> 한국 군인교회 회중 찬양 발전 연표

시대	주요 사건	찬양 형태	선교적 특징
1950년대	군종제도 창설 전쟁기 야전 예배	찬송가 중심 간이 예배	생존·위로 중심 순수한 예배의 원형
1960~70년대	군인교회 제도 정착 한국군선교연합회 창설(1968)	찬송가+복음성가 교단별 전통 혼합	초교파 협력 기반 교단 전통의 이식
1980~90년대	찬양과 경배운동 도입 CCM 유입· 밴드 편성	CCM·현대찬양 프로젝터 도입	감성적 참여 증가 예배 전도 실천
2000~10년대	전문 찬양 사역 체계화 군선교 협력 확대	현대 예배 정착 찬양 팀 전문화	체계적 예배 훈련 사역 역량 강화
2020년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코로나19 온라인예배	하이브리드·미디어 통합 찬양	MZ세대 맞춤 선교적 재설계 요구

24) Matt Redman, *The Unquenchable Worshipper* (Ventura: Regal Books, 2001), 63.

1. 창설기 (1950년대): 전시 예배와 찬송가 중심 찬양

한국 군종제도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창설기 군인교회의 예배는 전시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성재는 전쟁기 군 예배가 극도로 간소화된 형태였으며, 주로 야전에서 찬송가 몇 곡과 짧은 설교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한다. 이 시기의 찬양은 생사가 교차하는 전장 상황을 반영하여 위로와 보호를 주제로 한 찬송가들, 특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 주로 불렸다. 악기는 거의 없었고, 군종목사나 신앙인 장병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5] 전쟁이라는 생사의 경계에서 드려진 군 예배는 외형적인 제도나 교단적 형식을 넘어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절박함과 순수한 신앙적 고백"으로 채워졌다.[26]

이 시기의 군인교회 예배는 극한 상황 속의 드려지는 예배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와 찬양에 필요한 도구나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공포 앞에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 이는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으며, 이 경험은 많은 장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곽선희는 이 시기를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27]

---

25) 이성재, "1950년대 한국전쟁기 군 예배의 형성 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44 (2016), 78. 이성재는 이 연구에서 전시 군 예배의 찬양 목록을 1949년판 합동찬송가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26) 한경직, 『한경직 목사 회고록: 나의 길 나의 삶』 (서울: 오랜서적, 2010), 182-185. 한경직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선의 야전병원과 천막 예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회고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직면한 장병들이 부른 찬양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렬한 영적 위로와 소망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증언한다.

27) 곽선희, "머리말," 『군선교신학』 5 (2007), 4. "한국전쟁은 우리의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2. 정착기 (1960~70년대): 교단 전통과 초교파 협력의 형성

전후 복구기와 함께 군인교회는 군목제도의 정립을 통해 체계적인 형태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교단들이 군종 파송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각 교단이 지닌 고유한 신학적·음악적 전통이 군인교회 예배 현장에 자연스럽게 이식되었다.[28] 장로교의 찬송가 중심 예배, 감리교의 복음적 찬양 전통, 그리고 이후 순복음 계열 등의 역동적인 찬양 스타일은 각 부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군선교 음악의 기틀을 형성하였다.[29]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968년 한국군선교연합회의 창설이었다. 초교파적 군선교 협력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특정 교단의 찬양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기독교 전통의 자원을 군인교회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한국군선교 50년사』는 이 시기를 "군인교회의 기초 형성기"로 평가하면서, 초기 복음성가(Gospel Songs)의 유입과 도입이 장병들의 회중 찬양에 새로운 생동감을 더했다고 기록한다.[30]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기는 군인교회 찬양이 "교단적 정체성"에서 "초교파적 복음 찬양"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복음 성가의 도입은 신학적 배경이 다양한 장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찬양의 공통 언어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는 군인교회가 선교적 포용성을 갖

참혹했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군대에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8)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선교 50년사』 (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 2001), 85-92.

29) 김철웅, "한국 군선교 음악의 역사와 발전 방향," 『한국교회음악학회지』 22, no. 1 (2015), 48-50.

30)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선교 50년사』, 142-148.

추어 가는 중요한 걸음이었다.

3. 변혁기 (1980~90년대): 찬양과 경배 운동과 선교적 찬양의 실천

1980년대는 군인교회 예배 문화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한국교회 전반에 불어닥친 "찬양과 경배(Praise and Worship)" 운동은 군인교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찬양과 경배 운동은 회중을 수동적 감상자에서 손을 들고 율동하며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예배자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고백-감사-경배-결단'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찬양(Flow) 구조를 도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몰입형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31] 이러한 음악적·문화적 적실성은 대학가와 수련회를 넘어 군인교회(논산훈련소 등) 청년 장병들에게 강력히 이식되며 찬양 중심 군선교 예배의 기틀을 마련했다.[32]

이동원은 이 시기를 "군인교회 예배의 갱신기"로 규정하면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도입이 청년 장병들의 예배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33] 특히 기타와 드럼을 포함한 밴드 편성의 등장, 찬양 영상과 오버헤드 프로젝터의 도입은 군인교회 예배의 음향적·시각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최재성은 이 변화가 단순한 스타일의 전환이 아니라, 예배에서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는 예배에서 참여하는 예배로" 바꾸었다고 평가한다.[34] 이는 Morgenthaler가 이

---

31) 김성해,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8), 45-48, 52-55.

32) *Ibid.,* 68-72. 실로암 찬양 역시 이 시기부터 군인교회에 확장되었다.

33) 이동원, "군인교회 예배의 특수성과 목회적 과제," 51.

34) 최재성, "CCM 도입 이후 군인교회 예배 문화의 변화," 『군선교신학』 12 (2013), 88. 이 변화를 "수동적 예배(receptive worship)에서 능동적 예배(active worship)로의 이행"으로 정의한다.

론화한 예배 전도의 개념이 이 시기 군인교회 현장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35] 생동감 있는 회중 찬양이 비신자 장병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접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4. 성장기 (2000~10년대): 전문 찬양 사역의 체계화

이 시기 한국교회의 회중 찬양은 1980~90년대 유입된 "찬양과 경배(Praise & Worship)" 운동이 예배 현장에 완전히 정착하고 대중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36] 이러한 한국교회의 흐름은 군인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고 군인교회 찬양 사역도 전문 찬양 사역이 체계를 잡게 되었고 찬양 환경의 개선을 가져 왔다. 김철웅은 이 시기 회중 찬양의 가장 큰 특징이 멀티미디어 기술과 입체적 음향·조명 시스템의 도입되고, 스크린 자막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시각적·청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종합적 예배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말한다.[37]

음악적으로 현대적인 대중음악 장르와 모던 CCM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대부분의 군인교회에서 전문적인 밴드 구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밴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찬양팀을 중심으로 군인교회의 정기적인 사역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의 모습도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김성해는 '고백-감사-경배-결단'으로 이어지는 흐름(Flow) 중심의 찬양 구조가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착됨으로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35)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33.

36) 김성해,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평가," 75-78.

37) 김철웅, "한국 군선교 음악의 역사와 발전 방향," 58-60.

경험하도록 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38]

하지만 이 시기의 군인교회 회중 찬양은 감정주의(Emotionalism)와 오락성에 치우침으로 인하여 신앙적 행위로 나아가기보다는 일회성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적 흥분에 그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했고, 찬양팀 중심의 찬양으로 인해 회중이 자발적 고백의 주체가 아닌 공연을 관람하는 수동적 청중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커지게 되었다.[39] 그리고 군인교회의 규모에 따라 760여 개 교회 중에서 다수를 이루는 대대급 교회에서는 전문적인 찬양팀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회중 모두가 찬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인적인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회중 찬양의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5. 전환기 (2020년대~현재): 디지털 시대와 MZ세대를 위한 과제

맞춤형 회중 찬양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군인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군인교회 예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유튜브 스트리밍, 소그룹 형식 예배, 개인 찬양 영상 배포 등 다양한 대안적 예배 형태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군선교 현장의 미디어 음향 및 영상 인프라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40]

펜데믹 이후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서 군인교회 회중 찬양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찬양

38) 김성해,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평가," 80-83.

39) 김철웅, "한국 군선교 음악의 역사와 발전 방향," 64-65.

40) 한국군선교연구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선교 전략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21), 45-50.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병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병사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찬양 콘텐트에 쉽게 접근하고 자발적으로 개인 신앙을 함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41] 또한 MZ세대 장병들의 감성에 맞춘 모던 워십(Modern Worship), K-CCM, 숏폼/릴스 스타일의 찬양 콘텐츠가 예배 전후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병사들이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찬양에 대한 진입장벽도 한층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 인원 감소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군인교회 회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무종교 청년층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가운데 있다. 또한 위문 집회 축소로 인해 과거의 떼창 문화보다는 소그룹 중심의 내실 있는 찬양 사역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42]

코로나19 이후부터 2020년대 중반에 이르는 현 상황을 돌아보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2026년 군선교 사업 방향을 무종교 청년 맞춤 문화전략으로 전환하였다.[43] 현장 민간 군선교 사역자 고령화와 맞물려 회중 스스로 능동적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기보다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 관람객으로 전락할 목회적 위험 역시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맞춤형 회중 찬양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

4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엔데믹 시대 군선교 현장 리포트," 월간『군선교』, 2022년 6월호, 1418; "스마트 병영 환경과 모바일 군선교 전략," 월간『군선교』, 2023년 3월호, 2024 종합 참조.

42) 한국군선교연구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선교 전략 보고서』, 62-65.

4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26년 군선교 사업 방향: 무종교 청년 맞춤 문화전략,"『제80차 정기이사회 보고서』(2026년 1월 22일), 12-15.

Ⅳ. 군선교의 특수성과 회중 찬양의 과제

1. 군인교회 예배 환경의 특수성

<표 2> 군인교회 예배 환경과 일반 청년 예배 비교

비교 항목	군인교회 예배	일반 청년 예배
참여 동기	일부 비자발적 (부대 일과 포함 가능)	자발적 선택
회중 구성	동일 연령대(20대 초반) 신앙 배경 혼재, 단기 순환	다양한 연령·신앙 배경
공간·시설	군 부대 내 제한 공간 장비 부족	전용 예배당·전문 장비
신앙 다양성	기독교인·불신자·타종교인 동시 참석	주로 기독교인 중심
시간 제약	부대 일정에 종속 예배 시간 고정·단축	비교적 유연한 운영
영적 필요	극한 환경·스트레스 외로움·죽음·미래 불안	정체성·진로·관계 등 다양

이동원은 군인교회 예배의 비자발적 참여 구조를 "의도치 않은 선교 기회(unintended missional opportunity)"로 재해석하였다. 비자발적 참여자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선교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이 독특한 구조는 일반 교회가 갖지 못한 군인교회만의 선교적 자산이라고 강조한다.[44]

김종훈의 연구에 따르면, 군 장병의 예배 참여 동기 중 "자발적 신앙"에 의한 참여는 전체의 약 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선임·동료의 권유"(31%), "시간 활용"(17%), "기타"(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교회가 다양한 동기를 가진 회중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회중 찬양이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

44) 이동원, "군인교회 예배의 특수성과 목회적 과제," 34-38.

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45]

2.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강점

첫째, 공동체 결속의 강화이다. Constance Cherry는 함께 노래하는 행위가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기제임을 강조한다. 극한의 군 복무 환경에서 함께 찬양하는 경험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강렬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 연대감은 비신자 장병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사회적 다리가 된다.[46]

둘째, 진정성 있는 감성적 경험의 제공이다. Redman이 강조한 "언제나 예배하는 자"의 정신은 군 복무 환경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 훈련의 고됨, 이별의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 어떤 예배보다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47]

셋째, 선교적 개방성(Missional Openness)이다. 군인교회 예배의 비자발적 참여자들은 역설적으로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일반 교회에서는 비신자가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내적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군인교회에서는 비신자 장병들이 이미 예배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독특한 구조는 군인교회 찬양에 선교적 개방성이라는 귀한 특성을 부여한다.

---

45) 김종훈, "군 장병의 종교 생활 실태와 신앙 형성 요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9), 44.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3개 부대 장병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46) Cherry, *The Worship Architect,* 55-67. 체리는 공동 찬양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적 표현이며, 비자발적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47) Redman, *The Unquenchable Worshipper,* 101-115. Redman은 열악한 예배 환경이 오히려 찬양의 순수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도전과 한계

첫째, 신학적 깊이의 부족이다. Marva Dawn은 현대 예배 음악이 감성적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 속죄, 부활, 재림 - 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이는 군인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단순히 흥미위주나 기분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찬양에 머물 위험이 있다.[48)]

둘째, 전문 인력과 장비의 부족이다. 예배 음악의 질적 수준과 회중의 예배 몰입에 많은 영향을 준다. 손병덕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MZ세대 장병들이 기존의 일방적 예배 형식에 낮은 반응을 보이며, 유튜브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접하는 고품질 예배 콘텐츠에 익숙한 장병들에게 있어서 수준 낮은 군인교회 찬양은 오히려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9)]

셋째, 종교 다원주의 환경의 도전이다. 이종윤은 "20세기의 군 현장은 기독교 독점 선교시대였으나 지금은 타 종교가 선교·포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독교의 활동을 완전 모방함으로써 업그레이드를 하여 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50)]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타 종단은 중앙집권적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가 주도하던 대규모 세례식과 위문 사역 방식을 모방하여 군 현장에 적극 도입하였다. 이는 과거 기독교의 일방적 우위 구조를 해체하

---

48) Marva J.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Grand Rapids: Eerdmans, 1995), 88-95. Dawn은 현대 예배 음악의 신학적 빈곤을 "narcissistic worship"이라는 개념으로 비판한다.

49) 손병덕, "디지털 시대 예배와 예배 공동체," 『복음과 선교』 47 (2019), 145.

50) 이종윤, "발간사," 『군선교신학』8 (2010), 6.

고 군선교를 치열한 종교 간 다원주의적 경쟁 구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51]

넷째, 단기 순환에 따른 공동체 지속성의 약화이다.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18~21개월)은 군인교회 찬양팀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에 큰 장애요인이다.[52] 이는 예배 수준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하고 군인교회 찬양 사역의 수준이 정체되거나 하향 평준화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된다. 임정인과 정세준의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설문에서 기독교 병사의 예배 불참 사유가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귀찮음"이 압도적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53] 이는 공동체의 지속성이 짧은 관계로 예배를 드림이 삶의 자리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예배와 찬양이 그들의 마음에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섯째, 예배 참석 동기의 이원성 문제이다. 임정인과 정세준은 앞서 언급한 연구를 통해 무종교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가 "마일리지 보상"과 "맛있는 간식"(34%)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54] 이는 군인교회 예배의 참석률을 유지하는 것과 진정한 신앙심을 갖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보여준다.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진정성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진정한 복음 접촉의

51) 김철웅, "한국 군선교 음악의 역사와 발전 방향," 58-60.

52) 현재 병사들의 경우에는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고 양성기관에서의 기간과 개인 휴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본인이 근무하는 자대의 군인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로 제한적이다.

53) 임정인·정세준,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군선교신학』, 24 (2025), 279-310.

54) *Ibid.* 기독교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27-29%)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예배 참석의 주된 동기로 응답한 반면, 무종교 병사는 "마일리지 보상"과 "맛있는 간식"(34%)이 주된 동기였다.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V. MZ세대 장병을 위한 회중 찬양의 선교적 접근

1. MZ세대 장병의 문화적·신앙적 특성 분석

현재 군에 입대하는 20대 장병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들의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특성은 이전 세대와 현저히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탈제도적 영성(Post-Institutional Spirituality)의 경향이다. 정재영은 MZ세대가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영성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 제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영적 경험"을 갈망한다는 것이다.[55] 이러한 점은 군인교회 찬양이 제도적 형식보다 진정성 있는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양방향적 참여와 소통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Tapscott의 분석에 따르면, MZ세대는 일방적 전달(broadcasting)보다 양방향적 소통(interaction)을 선호한다.[56] 이들은 유튜브나 SNS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도 댓글, 반응, 공유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55) 정재영, "청년세대의 탈종교화와 교회의 대응 방안," 『기독교사회윤리』 41 (2018), 115-135.

56) Don Tapscott, *Grown Up Digital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New York: McGraw-Hill, 2009), 88-92. Tapscott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Net Generation)가 공유하는 8가지 핵심 문화적 규범(8 Net Gen Norms)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유 (Freedom of Choice & Expression), 맞춤화 (Customization & Personalization), 비판적 검증 (Scrutiny), 진정성과 투명성 (Integrity & Transparency), 엔터테인먼트와 놀이의 결합 (Entertainment & Play), 협업과 상호작용 (Collaboration & Relationship), 속도 (Speed), 혁신 (Innovation). 그 중에서도 협업과 상호작용 요소와 진정성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호한다. 군인교회 찬양이 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의 일방적 퍼포먼스보다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민감성이다. MZ세대는 연출되거나 인위적인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57] 반면,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의 삶에서 우러나온 찬양과 군 생활의 실제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 어우러지게 될 때 강한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

넷째, 즉각적이고 비판적인 검증의 과정을 선호한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 MZ세대는 정보와 대안의 과잉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첫 참석 때부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이탈하는 비판적 검증(Scrutiny) 성향을 갖고 있다.[58]

다섯째, 디지털 매개적 몰입과 시각화(Digital-Mediated Engagement)를 선호한다. 모바일 기기와 시각 매체에 익숙한 MZ세대는 텍스트 중심의 일방적 전달보다 자막, 미디어 아트, 입체 음향 등 감각적이고 몰입감 있는 미디어 환경을 통한 체험을 선호한다.[59] 이는 군인교회 회중 찬양이 단순한 음원 재생이나 일방적 가창을 넘어, MZ세대에 맞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미디어 연출과 숏폼·모바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과 회중의 자발적 몰입과 영적 고백을

57) *Ibid.,* 83-87.

58) 김성해,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평가," 85-88.

59) Don Tapscott, *Grown Up Digital,* 9510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월간『군선교』, 2023년 3월호, 2024.

다각도로 도모해야 함을 보여준다.[60]

2. MZ세대를 위한 선교적 찬양 접근 전략

가. 포용적 예배(Inclusive Worship) 설계

현시대 군인교회 회중 찬양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을 넘어, 입대 장병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신자 및 무종교 청년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적 예배(Inclusive Worship)" 설계로의 전환을 필요하다.[61] 정재영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년 세대의 무종교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독교 내부자 중심의 폐쇄적 언어나 강요된 행위는 비신자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62] 따라서 군인교회 찬양은 음악적 문턱을 낮추고 찬양의 가사와 신학적 의미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소통 구조를 갖춤으로써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전인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포용적 예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 진정성과 군 문화의 연결

군인교회 회중 찬양 가사가 군 장병의 특수한 삶의 정황과 밀접하게 연계될 때 높은 신앙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군 복무 중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고독과 불확실성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사명과 희생적 헌신", 그리고 "병영 공동체적 연대"와 같은 주제는 군 조직 문화 및 장병들의 심리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신학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63] 따라서 찬양 인도자는 단순한 음악적 선호나 일회성 감흥을 넘어 이러한 신학적 주제

---

60) 김철웅, "한국 군선교 음악의 역사와 발전 방향," 61-64.

6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26년 군선교 사업 방향: 무종교 청년 맞춤 문화전략," 12-15.

62)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한국교회와 가나안 성도』 (서울: IVP, 2014), 105-112.

6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월간 『군선교』, 2023년 3월호, 20-24.

의식을 바탕으로 곡을 선별하며, 찬양과 군 생활의 현장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회중의 신앙적 고백을 이끌어내는 해석적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찬양 전략

임정인·정세준의 육군 병사들의 예배 참석 동기 연구는 기독교 병사가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종교의 본질적 측면"(27-29%)과 "마음이 편안해짐"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64] 이러한 두 가지 내적 동기는 선교적 회중 찬양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 권수영은 MZ세대 선교 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이들은 자신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65] 이 원칙은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찬양 인도자가 일방적인 퍼포머가 되어 찬양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회중들이 능동적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에 도리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회중들이 능동적으로 찬양에 임하게 할 때 욕구 충족에 따른 마음의 편안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종교의 본질적 측면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회중 찬양은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니라 신학적 성찰이 담긴 구조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중 찬양의 구조화를 위해 다음 장에서 단계적 찬양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64) 임정인·정세준,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279-310.

65) 권수영,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문화의 동향과 미래 군선교 전망," 『군선교신학』 23 (2024), 62.

Ⅵ. 군인교회 회중 찬양 적용 모델 제안

1. 회중 찬양 모델의 핵심 기준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군인교회 회중 찬양 모델은 다음 네 가지 핵심 기준에 기초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개방성과 포용성이다. 이성희의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예배는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적 공간이어야 하며,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비신자 장병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6] 또한 포용적 예배를 전략으로 고려할 때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멜로디, 보편적 감성의 가사, 따라 부르기 쉬운 반복 구조가 도입부 찬양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성과 군 문화와의 연결성이다. 찬양 인도자는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 장병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선곡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찬양과 군 생활의 연결점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dy Park은 찬양 인도자의 핵심 자격으로 음악적 기량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강조하였다.[67] 이는 찬양 인도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회중들의 상황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찬양의 자리를 세워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적 찬양을 구성하는 것이다. 박은규의 예배 갱신 연구는 예배가 "부르심→응답→하나님의 말씀→파송"의 구조적 흐름을 따를 때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준다.[68] 기성

---

66) 이성희, 『선교적 교회론』, 198-215.

67) Andy Park, *To Know You More* (Downers Grove: IVP, 2002), 112-125.

68)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98-215. 박은규는 예배의 4중 구조(부르심-말씀-응답-파송)가 초대교회 예배의 보편적 패턴임을 역사적·신학적으로

교회 예배에서는 이러한 예배의 흐름 속에 회중 찬양이 곳곳에 나누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군인교회 예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간부들이나 군인가족들이 적은 여단급 이하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회중이 20대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팀에 의한 회중 찬양과 담임목사의 설교 중심의 단순한 예배 형식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경우 회중 찬양은 예배 앞부분에 30분 내외로 진행된다.

따라서 회중 찬양 역시 이 구조에 따라 선포적 찬양→경배 찬양→고백·기도→파송 찬양의 단계적 흐름을 구성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찬양의 구조화를 통해 신학적 내용을 강화할 수도 있다. Dawn이 말한 바와 같이 감성적 경험에 치우쳐 신학적 내용이 결핍된 찬양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69]

2. 실제 찬양 세트 구성 모델 (30분)

<표 3> 군인교회 선교적 회중 찬양 세트 구성 모델

순서	찬양 유형	예시 곡	신학적 선교 기능	시간
1. 오프닝	선포·환영 (비신자 포용)	"위대하신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나라 선포 참석자 환영	5분
2. 찬양 단계	감사·찬미 (공감 형성)	"주의 이름 높이며" "실로암" "감사함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공동체 감사	8분

논증하였다.

69) Marva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103-118.

3. 경배 단계	친밀·경배 (임재 경험)	"내 모습 이대로" "오직 주만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실존적 위로	7분
4. 기도·묵상	중보·고백 기도 (공동체 응답)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은혜"	회개·고백·중보 치유와 회복	5분
5. 파송 찬양	헌신·파송 (사명 확인)	"나를 사용하소서" "꽃들도"	사명 확인·군 생활 파송·선교적 결단 촉구	5분

위에 제시한 찬양 세트 모델은 30분 모델로서 전체 찬양을 단순한 곡 목록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찬양 선곡에 있어서 비신자 장병들도 부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으로 선택하였고, 관문선교기관(특히 연무대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찬양들을 포함하여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관문교회와 자대교회 찬양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선곡의 예시는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찬양인도자는 곡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찬양 세트를 적용할 때에는 예배 전체의 순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예배 순서에서 예배의 마지막을 파송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교회에서는 회중 찬양이 중복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5번의 파송 찬양을 예배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것도 의미있는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분배에 있어서도 20분 정도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2번과 3번의 찬양과 경배의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서 곡을 정리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3. 군종병 대상 단계별 찬양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표 4> 18개월 복무 주기 기반 군종병 찬양 사역자 훈련 커리큘럼

훈련 단계	기간/대상	주요 훈련 내용	담당/방법
1단계: 기초	입대~3개월 전원 참여	핵심 찬양 20곡 습득 개인 경건(QT) 훈련	군종목사 강의 선임 팀원 시범
2단계: 양성	4~9개월 찬양팀 지원자	악기별 기초 실기 회중 찬양 흐름 설계 실습 주1회 팀 연습 진행	선임 팀원에 의한 멘토링 군종목사 점검
3단계: 심화	10~15개월 찬양팀 핵심	회중 찬양 기획·인도 실습 찬양 인도 피드백 찬양 전문가 강의	군목단 지원하 외부 워크숍
4단계: 전수	16~18개월 선임 사역자	후임 멘토링 주도 찬양 사역 시스템 구축, 전역 후 지역교 회 연계 사역 노하우 문서화	자기 주도

군인교회 찬양 사역에서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찬양 인도자는 군종병(軍宗兵)이 하게 된다. 군종병 가운데는 신학 훈련과 찬양사역을 전공한 전문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임명직 군종병의 경우에는 비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18~21개월의 복무 기간이라는 시간 제약 속에서 찬양 사역을 배우고 세워 나간다는 점은 대부분의 군인교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명혁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일반 교회의 찬양 사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70]

따라서 본 연구는 18개월이라는 복무 주기를 사역 훈련의 단위로 삼아, 입대부터 전역까지의 전 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는 체계적 훈련 커리큘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이 훈련 모델은 군 복

70) 김명혁, "군 선교와 군인교회의 과제," 119.

무라는 독특한 맥락 안에서 찬양사역을 감당하는 군종병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4단계의 "전수" 단계는 단기 순환이라는 군인교회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선임이 후임을 훈련시키는 멘토링 문화가 정착될 때, 군인교회 찬양 사역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역 3개월 전부터는 사용하는 악보 목록, 음향 장비 운용법, 주간 예배 준비 체크리스트, 절기별 선곡 가이드를 포함한 군인교회 찬양 사역을 위한 인수인계 자료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군 차원의 찬양 사역 정기 프로그램 체계 확립

<표 5> 전군 차원 군인교회 찬양 사역 정기 프로그램 체계

주기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주관/대상
주 1회	찬양팀 합주 준비	찬양 세트 구성, 악기 합주, 기도 준비	개교회 담임목사 / 개교회 찬양팀
월 1회	회중 찬양 리뷰 세션	지난 회중 찬양 예배 영상 피드백(사단교회) 개교회 찬양요소 평가	사단급 군종목사 / 개교회 찬양사역자
분기 1회	찬양사역자 집체교육	1박 2일: 예배·기도·찬양 심화 교육 진행	지역군목단 / 개교회 찬양사역자
반기 1회	전군 찬양사역자 세미나	육·해·공·해병대 우수 찬양팀 선발 및 사역 사례 공유	한국군종목사단 및 군선교연합회 / 개교회 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를 세워 나가는 훈련 프로그램은 760여 개 군인교회 모두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전문성 확보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전군 차원의 정기적인 찬양 사역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와의 협력 하에 개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결국에

는 전군차원의 찬양사역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반기 세미나의 경우 현행 시행되고 있는 6·25 상기 구국성회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분기 단위 세미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역단위 군종목사단에서는 전문 찬양사역자 초청을 통하여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와의 연계와 협력사역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사랑의교회나 온누리교회와 같은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군사역자 세미나나 찬양사역자 클리닉이 진행된 바가 있다.[71] 이러한 협력사업을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가 함께 진행하여 찬양사역자와 지역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을 신학적·역사적·실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군선교의 특수성과 청년 장병을 위한 회중 찬양 적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신학적 차원에서, 회중 찬양은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복음 선포, 공동체 형성, 치유와 위로, 신앙 훈련이라는 네 가지 선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orgenthaler의 “예배 전도” 개념

71) 사랑의교회는 2015년부터 수도권 부대 군종목사 및 찬양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예배·찬양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관해 왔고, 온누리교회는 군선교 사역팀과 CGN/워십팀이 사관학교(해사, 공사 등) 및 전방 사단 군인교회 찬양팀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봄·가을 아웃리치 기간에 맞추어 현장 방문형 워십 클리닉과 음향/찬양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이외에도 신나는 교회의 선교찬양제와 격려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은 군인교회 회중 가운데 포함된 비자발적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선교적 도구로 예배와 찬양의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역사적 차원에서, 한국 군인교회 회중 찬양은 1950년대 창설기부터 현재까지 다섯 시대를 거치며 한국교회 회중 찬양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차별화되는 특수한 선교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부터 2020년대 중반에 이르는 현 상황을 돌아보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26년 군선교 사업 방향을 무종교 청년 맞춤 문화전략으로 전환한 바와 같이 현재 군인교회는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회중 찬양으로 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선교적 개방성과 포용성, 진정성과 군 문화와의 연결성, 단계적 회중 찬양 구조화라는 세 가지 핵심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기반하여 회중 찬양 모델을 제안하였다. 30분 회중 찬양 세트 구성 모델, 18개월 복무 주기 기반 군종병 찬양사역자 훈련 커리큘럼, 전군 차원 정기 프로그램은 현장 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제안임과 동시에 한국군종목사단이 비전2030 프로젝트를 위해서 풀어가야 할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세 가지 학문적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을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적 틀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시도라는 점과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역사적 발전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MZ세대 장병을 위한 회중 찬양의 선교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현장 사역자들이 적용 가능한 구체적 회중 찬양모델을 제시하였고 회중

찬양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군별 교회 요소 반영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른 회중 찬양의 차이점을 분석함에 미흡함이 있었다. 또한 회중 찬양의 현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장병들의 설문이나 자료 수집에 미흡함이 있었다.

3. 제언

첫째, 한국군선교신학회와 각 교단 군선교 기관이 협력하여 "군인교회 예배와 찬양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나온 군종목사들을 위한 "군인교회 예식서"나 "기도문"을 넘어 선교적 찬양 선곡 기준, 찬양 인도자 훈련 지침, MZ세대 장병 맞춤 예배 설계 원칙 등을 포함되어 있는 찬양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째, 군종병 찬양 사역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군종목사나 군선교사가 각 교회에서 군종병 찬양 사역자들을 지도할 수 있으나 찬양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디지털 훈련 플랫폼 구축하여 악기 기초 강의, 예배 신학 강좌, 찬양 세트 구성 실습, 선임 군종병의 사역 경험 나눔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 군별·규모별 군인교회의 예배 실태와 회중 찬양 실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임정인·정세준의 예배 참석 동기의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의 모델을 적용하여 회중 찬양 모델에 대한 장병들의 반응과 선호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군인교회 찬양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30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종병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체

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차원에서 수련회와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지역교회와 연계한 찬양 사역자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Military Mission and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for Young Soldiers

Seok Gon Lee

This study aims to theologically examine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and to present a concrete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that reflects both the unique environment of military mission 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young soldiers of the MZ gen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is a vast community of approximately 500,000 active-duty personnel, with some 223,000 young people newly enlisting and completing their service each year. Military churches serving this ever-renewing population thus constitute a critical frontline of youth mission for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However, the growing trend of de-religionization among MZ generation soldiers, declining rates of worship participation, and the structural constraints inherent to military life pose serious challenges to worship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This study pursues four principal objectives. First, it analyzes the multi-dimensional missionary functions of congregational wo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al Ecclesiology. Second, it tra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across five distinct era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chaplaincy system in 1951. Third, it examines the influence that the distinctive conditions of military mission exert upon worship and praise ministry. Fourth, it proposes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grounded in three criteria: missional openness and inclusivity, authenticity and connection with

military culture, and the structuring of a graduated congregational worship flow.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 that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performs not merely the function of liturgical music but an integrated set of missionary functions encompassing gospel proclamation, community formation, healing and consolation, and spiritual formation.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presence of large numbers of involuntary participants in military churches means that evangelism takes place through worship itself, and authentic congregational worship becomes a decisive channel through which unchurched soldiers encounter and receive the gospel. It is the earnest hope of this study that its findings will provide both theological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ose engaged in frontline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Key Words

Military Church, Congregational Worship, MZ Generation Soldiers, Worship Renewal, Missional Worship

논문 기고자 **Email**

bubuki@hanmail.net

이석곤의 논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A Comment: A Study on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Military Mission and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for Young Soldiers

» 전요섭 Ed. D.*

1. 핵심 요약

이 논문은 군인교회 회중 찬양을 복음 선포, 공동체 형성, 치유와 위로, 신앙 훈련을 수행하는 선교 활동으로 해석했다. 군 복무의 시간 제약, 다양한 신앙 배경, 일부 비자발적인 예배 참여를 고려해 30분 찬양 순서, 군종병 훈련 과정, 정기 교육 체계를 제안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 검토와 신학적 분석이었다.

2. 긍정적인 면

이 연구는 군인교회에 맞는 질문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교회의 찬양 방식을 군인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부대 일정에 따른 예배 시간의 제약, 제한된 장비, 짧은 복무 기간,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하는 회중 구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점이 연구의 강점이다.

또한 회중 찬양의 역할을 폭넓게 설명했다. 찬양을 설교 전 분위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4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6년9월 12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군종목사(예 43기), 성결대 명예교수

기를 만드는 순서로만 보지 않고, 가사를 통한 신앙 내용 전달과 공동체 경험, 위로, 찬양팀 참여를 통한 훈련으로까지 연결했다. 군인교회에서 왜 회중이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의 주장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1950년대 전시 예배부터 현대의 디지털 매체 활용까지 다섯 시기로 정리하여, 찬양 형태가 군 환경과 한국교회의 변화 속에서 달라져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적인 찬양팀이 생기면서도 회중이 공연을 관람하는 위치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은 오늘의 실천 과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30분 찬양 모델은 환영과 선포에서 감사, 경배, 기도, 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한다. 곡 목록만 나열하지 않고 각 단계의 목적과 시간을 적었으며, 예배 전체 순서에 따라 파송 찬양을 옮기거나 찬양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점도 실용적이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군종병의 복무 주기에 맞춘 단계별 훈련과 후임에게 악보·장비 사용법·예배 준비 자료를 넘기는 방안은 군인교회의 반복적인 어려움에 직접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한 번의 좋은 예배에 그치지 않고 사역이 이어질 조건을 생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이 연구는 청년 장병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군선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쉬운 가사와 멜로디, 군 생활의 실제 고민과 연결되는 선곡, 일방적인 공연을 줄이려는 방향은 처음 참석한 장병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고민하게 한다.

3. 아쉬운 면

이 논문은 회중 찬양이 복음 수용, 스트레스 완화, 예배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제안한 찬양 모델을 적용한 뒤 장병의 경험이나 변화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예배 참석 결과를 회중 찬양 자체의 효과로 연결하려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군대에서는 선임이나 동료의 권유가 개인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적으로 제시되었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논문은 디지털 매체 선호, 진정성 중시 등의 특성을 장병 전반에 적용하지만, 개인의 신앙 배경이나 음악 취향, 부대 경험에 따른 차이는 충분히 분석되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 스스로가 인정하듯 육·해·공군 및 교회 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한 부분이 더욱 보충되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향후 연구 방향

육·해·공군과 교회 규모별로 장병의 찬양 경험을 조사하고, 30분 모델을 실제 예배에 적용해 참여의 자발성, 가사 이해도, 공동체 소속감, 재참석 의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신자와 비신자의 응답을 구분하고, 인터뷰를 통해 부담이나 위로를 느낀 이유까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찬양안과 군종병 훈련안을 다듬는 방안이 이 연구를 선행연구로 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된다면 이 연구와 어우러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대해 더욱 확고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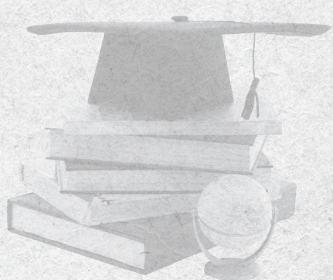
연구위원 논문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상담동기강화를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

| 전요섭 |

군선교교역자의 목회 서사 전환과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 안남기 |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상담동기강화를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ounseling Motivation of Involuntary Service Member Clients

» 전요섭 Ed. D.*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의 권고나 지시, 가족 및 간부의 요구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으로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장병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의 상담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과 기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비자발적 장병은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담을 평가와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의 보고, 동료에 의한 낙인 및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상담 회피나 형식적 참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침묵, 단답형 응답, 수동적 비순응, 적극적 저항 및 자기개방 회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발성은 고정된 특성이나 변화 가능성의 결여라기보다 상담 관계와 개입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저항을 제거하거나 내담자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내담자의 관점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여 외부의 요구로 시작된 상담을 내담자의 선택과 변화 동기에 기초한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비자발적 장병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에게 처음부터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군 조직 환경에서 내담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언어로 변화의 이유와 목표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중심단어

비자발적 상담, 장병 상담, 군종목사, 상담동기, 동기강화상담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4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2일

*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군종목사(예 43기), 성결대 명예교수

I. 여는 글

대한민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장병은 기존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계급과 명령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한다. 군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지속하는 환경은 장병에게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자율성의 제한, 계급관계의 긴장, 임무수행에 대한 부담, 대인관계 갈등 및 불안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휘관 상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군종장교 상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장병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장병은 상담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휘관이나 간부의 권유, 부대의 조치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상담에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는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담 자체를 통제와 평가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담 내용이 지휘계통에 보고되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동료들의 낙인 불안, 상담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저항 또는 형식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군종목사는 전문상담자는 아니지만, 장병의 심리정서적, 영적 어려움을 돌보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자발적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종목사는 장병의 지휘 및 처벌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아울러 죄책감, 삶의 의미, 용서, 희망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영적, 실존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반면 군종목사 역시 군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비밀보장과 보고 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담 전문성의 범위 및 지휘체계의 영향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비자발적 장병 상담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비자발적 내담자에 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주로 청소년의 상담 지속 요인이나 재판이혼 과정의 상담 관계 등 특정 대상과 장면에 한정되어 있다. 양미진과 이영희는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 지속 요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숙영은 재판이혼 과정에 참여한 비자발적 내담자의 상담 관계와 작업동맹을 연구하였다.[1)]

비자발적 내담자를 다루는 국내 상담 현장의 중요성에 비해 상담 과정과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홍혜숙과 왕은자도 학교, 부모 및 보호관찰소 등의 의뢰로 상담에 참여하는 비자발적 청소년이 많지만, 상담 현장에서 이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 과정과 상담 성과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2)] 특히 군 상담 기관 내담자의 71.5%가 비자발적 내담자로 보고되어 군 상담 현장에서 비자발적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이러한 현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장

1) 양미진, 이영희,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no. 1 (2006), 1-20; 이숙영, "재판이혼 중 비자발적 내담자-상담자 간 상담관계: 내담자-상담자 간 작업동맹 관점에서," 『아동복지연구』 8, no. 2 (2010), 23-45.

2) 홍혜숙, 왕은자,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 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 no. 2 (2016), 367-68.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109.

병의 상담 동기 형성과정이나 군종목사의 상담 개입 효과를 직접 검증한 국내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다.[4] 그리고 군종목사와 관련된 비자발적 상담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군 상담에서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심리정서적, 행동적 특성 분석을 고찰하고, 상담자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상담 전략 및 기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자발적 내담자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상담 동기결여, 심리적 방어, 저항 및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그러나 비자발성은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 상담 참여 동기의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내담자를 자발적 내담자와 비자발적 내담자로 구분하기보다 변화 동기와 상담 참여 수준의 연속선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군종목사의 법적 지위, 목회상담 기능 및 장병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역할을 검토하고, 계급체계와 조직문화가 상담에 미치는 제약을 함께 논의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문헌에서 도출한 이론과 원리를 군종목사가 비자발적 장병을 상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담 전략 및 기법은 모든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처방이 아니라, 내담자의 계급, 복무환경, 문제의 심각성, 변화 준비도, 종교

---

4) 정용철·양재혁, "비자발적 내담자의 성공적 상담을 위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 no. 8 (2020), 256-66. 비자발적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실증연구는 정용철과 양재혁의 공동연구가 유일하다. 이들은 장병 488명을 대상으로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실 환경이 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군종목사를 상담자로 특정하거나 상담 동기의 변화과정 및 구체적인 상담 기법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다.

적 배경 및 안전 위험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지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I. 비자발적 장병 상담과 내담자 심리 이해

1. 비자발적 상담의 개념과 자발적 상담 동기로의 전환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는 상담을 "개인, 가족 및 집단이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 조력관계"라고 정의했다.[5] Samuel T. Gladding은 상담은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전제로 하여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긴장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상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6] 이 정의에 따르면, 상담에 자발적 참여동기가 없다면 문제해결과 변화가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상담 받는 사람(counselee)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교사, 배우자, 직장동료 및 상사나 법원, 교정기관, 군 지휘관 등 외부의 권유, 요구 또는 명령에 의해 상담에 참여하는 비자발적 내담자도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는 상담 성패에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자발적 참여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상담에 필요한 주요 전략이자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비자발적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한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의 이유와 목표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5) David M. Kaplan et al., "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 no. 3 (2014), 366-372.

6) Samuel T. Gladding, *Counseling* (Boston, MA.: Pearson, 2018), 97.

고도의 상담 기법이기도 하다. 결국 비자발적 상담의 핵심 과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발적 상담 동기를 갖도록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Marianne S. Corey와 Gerald Corey는 "비자발적 상담이란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시작하는 상담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요구나 부모, 교사, 배우자, 직장 관계자 등 타인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상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내담자는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이 상담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상담 과정에서 주저함이나 방어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7]라고 정의했다.

Ronald H. Rooney와 Rebecca G. Mirick은 "비자발적 내담자의 정의를 법적 명령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성을 띠었거나 상담 동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8]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담 참여의 비자발성이 곧 변화 가능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성은 상담 관계와 개입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초기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과 거부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종목사는 지휘체계에 의해 시작된 상담이거나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상담을 장병과의 치료적 동맹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발적 상담 동기와 변화의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 Marianne S. Corey, & Gerald Corey, *Becoming a Helper.* 8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2021), 163-164.

8) Ronald H. Rooney, & Rebecca G. Mirick, (eds.) *Strategies for Work with Involuntary Clients.*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8), 4-6.

2. 비자발적 내담자의 특성

비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을 '비자발적 내담자'(involuntary client)라고 하며, 법원이나 기관의 명령 또는 제도적 요구에 따라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를 '의무적 내담자'(mandated client)라 부르기도 한다.[9] 또 이를 묘사하는 용어로 '비자원적 내담자'(nonvoluntary client)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어 단어 involuntary와 nonvoluntary에서 부정 접두어 'in'(반대 및 결여)과 'non'(속하거나 분류되지 않은)의 차이로서 우리말 '비자발적'과 '비자원적'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 상담 기관에 의뢰되어 상담 받게 될 경우 '의뢰된 내담자'(referred client)라 부른다. 여기서 '의뢰된'은 상담의 시작 경로를 나타낼 뿐, 상담 동기의 유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비자원적 내담자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부대에서 지휘관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장병으로 인한 부대 문제 노출, 자신의 지휘 역량 문제 노출 등의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상담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여 지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양면감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 노출을 꺼려하거나 상담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극적 내담자'(reluctant client)라 묘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상담자의 질문이나 개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상담 목표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10] 이러한 내담자를 '저항적

9) Richard J. Riordan, & Marvin H. Martin, "Mental Health Counseling and the Mandated Client,"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5 no. 4 (1993), 373-383.

10) Chris Trotte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New York: Routledge, 2023), 1-3.

내담자'(resistant client)라 표현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에 협력, 협조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이를 '비협조적 내담자'라 부르기도 있다.[11]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더라도 상담 초기 불안, 수치심 또는 불신 등의 이유로 상담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일 수도 있으므로 저항적 내담자가 비자발적 내담자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강제, 강압, 명령에 의해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을 '강제된 내담자'(coerced client)라 하는데, 이는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벌, 또는 중요한 권리의 제한이 예상되어 상담을 거부하기 어려운 내담자를 의미한다. 장병 상담에서는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하위유형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① 지휘관이 장병의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을 발견하여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명령 또는 권고하는 경우, ② 사고, 징계, 동료 장병 간 갈등이 노출되어 주변에서 당사자에게 상담 받아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 ③ 자살시도, 자살위험 및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나 의뢰되어 상담 참여에 동의했으나 자발성이 결여된 경우, ④ 본인은 상담을 원하지 않지만 가족이나 동료, 간부의 권유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요청받은 경우, ⑤ 군종목사와 우연한 기회에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1) 높은 수준의 저항과 불신

비자발적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흔한 반응은 저항(resistance)과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불신(distrust)이다. 이들은 불안, 긴장, 수치심 등을 느껴 상담자를 경계하거나 침묵, 자기

11) 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청소년상담모형개발연구 Ⅱ: 비협조적 내담자의 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1-64.

방어, 소극적 반응 등으로 상담 거부 및 회피를 할 수 있다.[12] 연구자의 비자발적 상담 경험에서 보면, 일부 내담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냥요." "별일 없었는데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거 같아요."와 같은 단답형 응답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자발적 내담자의 저항은 Jack W. Brehm이 제시한 '심리적 반발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13] 심리적 반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제한되었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반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은 상대방에 대한 반감, 설득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적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Larry E. Beutler 등은 내담자의 저항 수준에 따라 상담자의 개입방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14]

외부의 명령이나 의뢰에 따른 상담에서 나타나는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 반응을 상담자가 이해하지 못한 채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내담자는 자율성의 상실을 느끼고 방어적 저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비자발적 내담자는 상담자의 순수한 조력 의도, 전문성, 비밀보장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15] 특히 장병은 상담 내용이 지휘계통에 보고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

12) Larry E. Beutler et al., "Resist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no. 2 (2002), 207-215.

13) Jack W. Brehm,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66), 1-8.

14) Beutler et al., "Resistance in Psychotherapy," 207-215.

15) Headquarters Marine Corps, "Confidential Communications to Chaplains," July 24 (2013).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049명 가운데 63%가 군종목사에게 말한 내용이 비밀로 보호된다고 믿지 않았고, 별도 응답자 2,895명 가운데 65%는 특정 사안을 군종목사가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우려하여 상담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말하지 않을 수 있다.[16]

군 장병의 정신건강 도움 추구를 다룬 연구에서도 낙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비밀보장에 대한 염려 및 치료 효과에 대한 불신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보고되었다.[17] 불신의 심리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권위자에 대한 학습된 불신이다. 일부 내담자는 성장과정이나 조직생활에서 부모, 교사, 지휘관 또는 제도적 권위로부터 통제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상담자를 조력자가 아니라 평가자, 통제자로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방임, 거절 또는 외상적 대인관계 경험은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부 내담자는 상담자가 보여주는 공감과 수용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경

16) 지휘관에게 자신의 상담 내용이 보고된 후 자살 시도한 사례: 2015년 경기북부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대장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B일병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대대장의 폭언으로 인한 고충을 상담한 사례가 있다. 상담관은 B일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상담 내용을 대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대대장은 다음 날 B일병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궁하였다. 이후 B일병은 부대 내 창고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동료병사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건졌다. 군 당국은 상담관의 보고가 위험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신속한 발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 사건은 상담 내용의 보고가 내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질책이나 불이익으로 인식될 경우 상담자에 대한 배신감과 심리적 위기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환, "'상담 내용 알린' 軍상담관 때문에 육군 일병 자살 기도," 『뉴시스』, 2015년 3월 13일, https://www.newsis.com/view/ NISX20150311_0013529752. 미군의 유사 사례: 미 해군의 Brandon Caserta 사건은 군 지휘체계와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장병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3급 항공전기정비사였던 카세르타는 유해한 지휘환경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6월 25일 노퍽 해군기지에서 자살로 사망하였다. 유가족은 정신건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지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의 도움 요청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브랜던법은 장병이 구체적인 사유를 지휘계통에 공개하지 않고도 정신건강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 접근성과 비밀유지를 강화하였다. Alison Bath, "Navy Secretary Signs Order Mandating Mental Health Care, Confidential Evaluations," *Stars and Stripes*, July 12, 2023. https://www.stripes.com/branches/navy/2023-07-12/navy-mental-health-care-evaluations-10714374.html

17) Hom, "A Systematic Review of Help-Seeking," 59-78.

계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외상이나 불안정한 대상관계는 비자발적 내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성이 아니라 불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 이해해야 한다.

2) **수동적 비순응과 적극적 저항**

내담자의 저항과 불신에 대해 Denise Davis와 Steven D. Hollon은 비협조적 반응을 수동적 비순응(passive noncompliance)과 적극적 저항(active resistance)으로 구분하였다.[18] 수동적 비순응은 상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담 시간에 반복적으로 지각하거나 결석하고, 상담 과제의 수행을 미루거나 상담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모두 고의적인 저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과제의 난이도, 상담 목표에 대한 불일치, 상담자에 대한 불신,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또는 환경의 제약도 비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9]

적극적 저항은 상담자의 질문이나 개입에 반대하거나, 상담 목표와 방법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상담자가 제시한 변화 방향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내담자는 불편한 주제가 제기될 때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응답하고, 관련 없는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거나 때로는 상담자와 논쟁할 수 있다.[20]

3) **저항으로 나타나는 침묵**

침묵은 비자발적 내담자가 상담자의 질문이나 개입을 경계할 때

---

18) Denise Davis, & Steven D. Hollon, "Reframing Resistance and Noncompliance in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9 no. 1 (1999), 33-44.

19) Davis & Hollon, "Reframing Resistance and Noncompliance," 36-44.

20) Raymond M. Bergner, "Ideas for Enabling Involuntary Clients to Engage Voluntarily in Therapy,"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38 no. 2 (2019), 32-46.

나타낼 수 있는 비언어적 반응이다. 침묵은 상담자의 평가와 비난에 대한 불안,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 상담자에 대한 불신 또는 상담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을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담에서 침묵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 정서적 경험의 처리, 자기성찰, 상담자에 대한 관찰, 불안, 관계적 단절 또는 저항 등 다양한 기능일 수 있다.[21] 상담자는 침묵만으로 그 의미를 성급하게 저항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2]

3. 미군 내 상담 기피 및 심리적 저항

미 국방부 건강 관련 행동조사 자료를 분석한 Michael S. Dunba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현역 장병 2,336명 가운데 약 39%가 조사 이전 12개월 동안 정신건강 치료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 미군 장병의 정신건강 도움 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자기의존적 태도, 낙인과 경력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및 조직적 접근 장벽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휘관 지시에 의한 정신건강 평가

미 국방부는 2013년에 '지휘관 지시에 의한 정신건강 평가'

---

21) Heidi M. Levitt & Zenobia Morrill, "Silence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60 no. 3 (2023), 320-341,

22) Robert C. Lane et al., "Silence as Communication in Psychodynamic Psycho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no. 7 (2002), 1091-1104.

23) Michael S. Dunbar et al., "Heterogeneity in Unmet Treatment Need and Barriers to Accessing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U.S. Military Service Members with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52 no. 4 (2025), 701, 706-708.

(Command-Directed Mental Health Evaluation: CDMHE) 규정을 제정하고, 2020년과 2026년에 개정, 재발행된 바 있다. CDMHE는 지휘관이나 감독자가 장병에게 정신건강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건강 평가를 받도록 지시하는 공식 절차이다.[24] 그 평가 사유로는 (1) 임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2) 평소와 현저하게 다른 행동 변화가 나타난 경우 (3) 근무수행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5) 이상행동이나 정신상태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 (6)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신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CDMHE는 징계나 처벌 절차가 아니라, 장병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장병은 "나는 문제 장병으로 찍혔다." "부대에서 나를 감시한다." "나는 군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적 목적과 장병의 심리적 인식 사이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병은 상담 기록이 남거나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지휘계통에 보고될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비밀누설은 향후 보안 신원조회(예: 미군 신원조회서 Question 21) 불이익, 무기 소지권 제한, 보직 제한, 진급 및 장기복무 심사 탈락 등 경력과 진로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외부의 지시로 상담에 참여한 장병 내담자들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군대는 일반 사회보다 강인함(toughness), 자기통제(self-control), 자

24) U.S. Department of Defense, *Mental Health Evaluations*, DoDI 6490.04, enclosure 3.

기의존(self-reliance), 임무완수(mission accomplishment), 인내, 전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에서 장병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용사답지 못한 자아의 실패'로 인정할 수 있다. 또 "나는 약하다."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

Marie-Louise Sharp 등의 문헌고찰에서도 장병의 정신건강 도움 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낙인에 대한 우려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군인이 전문적 도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서 상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보고되었다.[25] 즉 "상담 및 심리치료 기록이 남으면 진급에 불리하지 않을까?" "지휘관이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중요한 임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보직이나 배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상담 기피 이유가 된다.

미군 군종목사는 상담과 영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병과 정신건강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26] 미군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더불어 군종목사를 장병의 비임상적 상담과 영적 돌봄을 위한 지원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병이 군종목사를 거부감 없이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종목사에게 인정되는 특권적 의사소통(privileged communication)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증거

25) Marie-Louise Sharp et al., "Stigma as a Barrier to Seeking Health Care among Military Personnel With Mental Health Problems," *Epidemiologic Reviews* 37 no. 1 (2015), 144-162.

26) Jessica K. Morgan et al., "Help-Seeking Behaviors among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2 no. 3 (2016), 102-117.

규칙(Military Rule of Evidence) 503은 장병이 군종목사에게 전달한 비밀 의사소통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한다. 지휘관이나 상급자도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는 의사소통의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장병들은 직업적 위협 없이 심리정서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감정 대피소'(emotional refuge)로서 군종목사를 선택한다.

2) 미군 군종목사의 비자발적 내담자 상담

미군에서 군종목사는 상담 동기가 낮은 장병에게 중요한 초기 접촉자(first point of contact)로 인식되고 있다. 군종목사는 종교의식을 주로 담당하는 성직자이지만 장병들의 개인적, 가족적, 관계적, 심리정서적,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Denise C. Cooper 등은 미군 장병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군종목사를 최초의 도움 제공자로 찾는 중요한 이유로 접근성, 강한 비밀보장, 상대적으로 낮은 낙인을 들고 있다. Jessica K. Morgan 등은 현역 미군 장병 889명에 관한 연구에서 군종목사는 군 의료시설의 정신건강 전문가 다음으로 많이 이용된 도움 제공자였다고 분석했다. 군종목사와 상담한 장병 가운데 50.8%가 우울 선별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고, 39.1%는 PTSD, 26.6%는 범불안장애 선별기준을 충족하였다.[27] 군종상담은 임상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로 진입하기 이전의 저문턱 지원체계(low-threshold support system)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Katie L. Nugent 등이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배치된 미 육군 장병 2,412명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5% 정도가 정신건강 위험군

27) Morga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102-17.

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가운데 37%가 도움을 받았는데, 군종목사나 동료 등 비전문적, 비임상적 존재가 도움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들 장병 가운데 군종목사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은 17%였다.[28] 이는 전투 환경에서 군종목사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병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간적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군종목사는 군 조직 내부에 있으면서도 지휘·통제 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병에게 접근한다. 즉, 장병의 입장에서는 군종목사가 '군인인 동시에 성직자'이고, 장교이면서도 인사평가나 징계권을 행사하는 지휘관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병들이 군종목사와의 대화에는 심리적 부담이 낮을 수 있다. Mark D. Layson 등의 문헌 고찰에서도 비밀보장, 접근성, 군종목사에 대한 신뢰, 개인적 친숙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분석되었다.[29]

상담 동기가 낮은 장병은 흔히 상담 자체보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지휘관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때 군종목사는 장병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상담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군종목사의 강점은 "상담을 잘한다"라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가지 않는 장병들이 군종목사는 만날 수 있다"라는 데 있다.

---

28) Katie L. Nugent, Lyndon A. Riviere, Maurice L. Sipos, & Joshua E. Wilk,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Barriers to Receiving Care in Deployed Soldiers," *Military Medicine* 185 no. 5-6 (2020), e625-e631.

29) Mark D. Layson et al., "Factors Influencing Military Personnel Utilizing Chaplain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61 no. 2 (2022), 1155-82.

3. 비자발적 상담 관점에서 본 나단과 다윗의 만남

성경에는 오늘날의 전문상담과 동일한 형태의 상담 장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삼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변화 동기를 촉진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만남이 비자발적 상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나단에 의해 원치 않는 상담을 하게 되었고, 나단은 다윗을 문제에 직면하게 하여 인지, 정서, 행동 변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삼하 11: 1-27; 12: 1).

이 상담은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으나 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상담의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30] 비자발적 상담의 핵심 과제는 외부의 개입으로 시작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의미를 발견하고 참여하는 협력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처음부터 비난하거나 왕의 도덕적 실패를 논박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비유를 먼저 제시하였다(삼하 12: 1-4). 이 내용을 들은 다윗은 부자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삼하 12: 5-6). 나단은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다윗의 행동과 그 결과를 직면시켰다(삼하 12: 7-12). 나단의 비유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방어, 회

30) Bergner, "Ideas for enabling involuntary clients to engage voluntarily in therapy," 32-46.

피, 합리화하거나 대화를 중단하지 않도록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했다.[31] 동시에 다윗으로 하여금 제삼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감과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었다.[32] 이러한 접근은 비자발적 내담자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상담 원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나단의 직면 이후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장면은 비자발적으로 시작된 만남이 개인적인 책임 인정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준다(삼하 12:13). 이것은 비자발적 상담 참여가 곧 변화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담 관계와 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비자발적 장병 상담 참여 동기 형성

내담자의 상담 참여 동기와 협력은 상담 관계의 형성과 치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외부의 요구로 상담을 시작한 내담자에게 처음부터 자발적 참여와 변화 의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내담자 자신의 변화 이유와 동기를 이끌어 내는 협력적 상담 방식이다. 동기강화상담의 기본정신은 협력(partnership), 수용(acceptance), 연민(compassion), 유발(evocation)로 구성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율성과 선택권을 지닌 사람으로 존중하며, 내담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변화의 이유와 능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

31) Peter K. McCarter J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hor Bible* 9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298-303.

32) David Janzen, "The condemnation of David's "taking" in 2 Samuel 12:1-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no. 2 (2012), 209-220.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의 비협조적 반응을 고정된 성격적 특성인 '저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담자의 언어를 '유지대화'(sustain talk)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나 대립을 '불화'(discord)로 구분한다. 변화하고자 하는 이유를 표현하는 '변화대화'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지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양가감정이다. 따라서 유지대화가 많다고 해서 내담자에게 변화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상담자와의 불화를 내담자의 성격적 저항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처음부터 문제를 규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면, 내담자는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고 상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동기강화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욕구에 따라 충고, 설득 및 논박을 강화하는 것을 '교정반사'(righting reflex)라고 설명한다. 상담자가 변화의 이유를 대신 강조하면 양가감정을 가진 내담자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게 되고, 상담은 대립적인 형태로 변한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보다, 장병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안전한 공간 확보라는 의미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설득하거나 문제를 즉시 교정하려는 '교정반사'를 자제하고, 개방형 질문, 인정하기, 반영적 경청 및 요약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관점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33] 그러나 수용과 공감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

33) Miller & Rollnick, *Motivational Interviewing*, 5-7, 62-90.

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상담의 목적을 함께 정하고, 변화대화를 유발하며, 변화에 대한 결심이 형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장병의 답변을 반박하지 않은 채 공감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발적 내담자가 상담 참여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을 표현할 때 상담자가 이를 논박하지 않고 충분히 듣고 반영하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병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지휘관이 억지로 보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군종목사는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지휘관이 보냈지 괜히 보냈겠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의 필요가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군요"라고 반영할 수 있다.

비자발적 상담에서 직면은 상담자가 관찰한 사실을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군종목사는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한 뒤, "동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화가 났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한 부분은 그 가치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상담 동기가 낮은 장병에게 문제해결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자발적 장병은 자신의 고통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면서도 상담이라는 도움의 방식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문제해결동기'와 '상담 참여 동기'는 서로 구분될 수 있다.[34]

예를 들어 장병이 불면, 연인과의 이별로 인한 무기력, 선임과의 갈등 및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상담자 및 상담 기관 방문은 거부할 수 있다.[35] 군종상담은 상담 참여 동기가 낮은 장병이 자신의 문제와 변화 필요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지원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36] 비자발적 장병 상담의 목표는 자신의 관점과 거부감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며, 변화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데 있다.

III. 군종목사 상담의 한계와 강점

군종목사의 상담은 군이라는 조직환경 속에서 장병의 심리정서적, 영적 어려움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군종목사 상담은 계급체계와 조직문화의 제약, 비밀보장과 안전보호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담 전문성 및 역할의 한계도 존재한다.

1. 군종목사 상담의 제약

1) 군종목사의 이중적 역할과 조직문화에 따른 제약

군종목사 상담이 갖는 한계는 군의 계급체계와 조직문화로부터

34) Bergner, "Ideas for Enabling Involuntary Clients," 32-46.

35) Dunbar, "Heterogeneity in Unmet Treatment Need and Barriers to Accessing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U.S. Military Service Members with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 701-12.

36) Morga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102-17.

독립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종목사는 성직자로서 장병을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군 조직의 임무와 규율을 준수하고 지휘관을 보좌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군종목사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긴장과 역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 육군 규정 AR 165-1은 군종목사의 핵심 역할을 '전문 군 종교지도자'(professional military religious leader)와 '전문 군 종교자문관'(professional military religious advisor)으로 구분하고, 두 역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 이는 균형유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제정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목회돌봄에 관한 역할이며, 후자는 지휘관에게 종교, 윤리, 도덕 및 장병의 영적 복지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참모 역할이다.[38] 군종목사의 임무,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지원, 부대행사 및 위기대응과 같은 조직적 업무에 참여하는 중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군 조직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상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문화가 상담 관계에 반영되면 장병은 군종목사의 질문을 평가나 조사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결과 군 생활의 어려움을 축소하여 말하거나 정보를 숨기고, 형식적인 동의, 형식적인 응답 또는 침묵과 단답형 답변만 하는 등으로 상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종목사가 장병과 동일한 조직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도 상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중관계는 군종목사가 장병의 일상

---

37) Department of the Army, *Army Chaplain Corps Activities (Army Regulation 165-1)*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15), 6-7.

38) *Department of the Army, Army Chaplain Corps Activities, Army Regulation* 165-1, 3-3, 7-8.

생활(훈련, 행군, 식사 및 생활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교로서의 관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39] 따라서 군종목사는 상담을 시작할 때 자신의 목회자·상담자·참모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비밀보장의 범위와 상담 정보의 관리방식을 알려야 한다. 군종상담에서는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안전하게 다루어진다고 신뢰하도록 돕는 과정도 상담 개입이다. 군종목사는 상담 관계의 목적과 한계, 비밀보장 및 다중관계의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련감독(supervision)과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상담 전문성 및 임상적 역할의 한계

상담에서 또 다른 한계는 상담 전문성과 역할 범위 문제이다. 군종목사는 신학과 목회 및 영적 돌봄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 죄책감, 상실, 대인관계 갈등, 도덕적 갈등 및 영적 위기를 다루는 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군종목사의 목회적 전문성이 정신건강 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심리평가 및 임상치료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군종목사가 별도의 상담 또는 임상 관련 자격과 수련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격의 범위 안에서 상담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군종목사의 상담 훈련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일부는 상담학,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가족상담 및 위기개입에 관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만, 모든 군종목사가 정신병리, 심리평가, 자살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관해 동일한 수준의 임상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복합적 정신건강 문제를 목회 경험이나 직

39)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sec. A.6.a-A.6.d.

관에만 의존하여 다루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성급한 조언이나 훈계는 내담자의 저항을 강화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장병에게 전문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량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40] 중증 우울 증상, 반복적인 자살사고, 정신병적 증상 또는 물질사용 문제처럼 전문적 평가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의뢰가 상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내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목회적·영적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 분야의 협력은 장병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상호 역할의 이해 부족과 비밀보장 문제로 인해 협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2. 군종목사 상담의 강점

군종목사 상담의 강점은 지속적인 돌봄과 접근성 그리고 장병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군종목사는 접근성, 비밀보장 및 상대적으로 낮은 낙인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장병의 초기 도움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또한 동일 부대에서 장병을 만날 수 있으므로 상담 이후의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군종목사는 내담자가 원할 때 영적 자원, 기도, 성경, 예배, 성례, 고백, 용서 및 애도 등을 통해 죄책감, 상실, 도덕적 갈등 및 삶의 의

40) Jason A. Nieuwsma et al., "Chaplaincy and Mental Health in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Department of Defense,"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9 no. 1 (2013), 3-21.

41) Morga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Active-Duty Military Personne," 102-17.

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개입은 장병이 고통의 의미를 탐색하고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다만 영적 자원은 내담자의 동의와 신앙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이나 무종교 장병에게는 동의를 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상담 성과로 연결하려면 치료적 동맹이 필요하고, 상담 목표와 과제를 내담자와 합의하고 동의를 얻어 설정해야 한다.[42]

IV.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 상담 전략 및 기법

비자발적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상담에서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상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43] 상담자는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방어와 심리적 반발을 줄일 수 있는 협력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비유와 유사 사례를 활용한 방어 완화와 자기통찰 촉진

비자발적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지적될 때 수치심, 불안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부인, 합리화 및 공격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비유와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심리적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이때 비유나 유사 사례는 내담자가 즉각적으로 자기방어를 하지 않고 사건의 의미와 결과를 검토하도록 돕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공간

42) Denise C.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Psychological Services* 20 no. 1 (2023), 56-65.

43) Rooney & Mirick, *Strategies for Work with Involuntary Clients,* 1-18.

을 제공한다. 내담자가 자신을 비판의 대상으로 느끼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 쉽지만, 제3자의 사례나 가상적 상황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할 수 있다. 이후 상담자는 "그 사례와 지금 본인의 상황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판단을 자기성찰로 연결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비유를 정답 유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유로운 통찰을 돕는 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내담자가 상담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중해야 한다.

선지자 나단의 접근을 현대 상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직접적인 논박을 유보하고 내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상담에 적용할 때에 현대의 상담기법과 동일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나단의 이야기는 현대적 의미의 상담사례나 임상적 개입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자발적 상담에 적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선택권, 상담자의 역할 명료화, 협력적 관계형성 등의 원칙 안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비유와 예화 및 유사 사례는 인지적 방어를 우회하고 약화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상황을 수치심이나 분노, 의식적 압박을 완화하여 전환시켜줌으로써 탐색을 촉진한다.

Harri Sarpavaara는 핀란드의 사법적 압력 아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용된 비유와 예화를 분석한 결과, 비유와 예화가 내담자 변화의 매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44)]

---

44) Harri Sarpavaara, "Use of Metaphors in Motivational Interviewing Sessions in the Probation Service," *Communication & Medicine* 7 no. 2 (2010), 177-186.

상담자의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비유나 예화로 드러내는 상호작용에서 변화대화와 상담 결과가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Linda M. McMullen과 Dennis Tay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용하는 비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 내담자가 생성한 비유를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성과 그 효과를 제시했다.[45] Frederick J. Heide의 주장은 "비유니까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옳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46] 정리하면,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오는 방어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적 탐색 수단으로 비유, 예화, 은유, 사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유와 함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과 사례의 유사점을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때 폐쇄형 질문이나 "왜"라는 질문은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더욱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명, 방어를 자극하므로 상담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2. 상담자의 자기개방을 통한 위계 완화와 치료적 동맹 강화

상담자의 적절한 자기개방(therapist self-disclosure)은 비자발적 내담자와의 위계적 거리를 낮추고, 치료적 동맹과 신뢰를 강화하며,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George Bitar 등은 법원 명령에 의해 상담에 참여한 멕시코계 미국인 남성과 백인계 미국인 상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자기개방

45) Linda M. McMullen & Dennis Tay, "Research review of psychotherapists' use of metaphors," *Psychotherapy* 60 no. 3 (2023), 255-265.

46) Frederick J. Heide, "The Agonistic Metaphor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7 no. 1 (2010), 68-82.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개방의 기능으로 ① 치료적 동맹 강화, ② 내담자의 문제 정상화, ③ 상담자-내담자 사이의 위계적 거리 완화, ④ 내담자에게 자기개방이 허용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 확인되었다. 비자발적 장병 상담에서 군종목사의 적절한 자기개방은 상담자를 단순한 권위자나 평가자로 지각하는 것을 완화하고 상담자를 한 인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 거부감 완화에 활용할 수 있다.[47)]

Jennifer R. Henretty 등은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비개방을 비교한 53개 실험연구를 메타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기개방을 한 상담자를 내담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상담자가 먼저 자기개방을 한 경우 내담자도 상담자에게 자기개방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상담자의 적절한 자기개방이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48)]

Jean Hanson는 상담 중인 18명의 내담자로부터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비개방에 관한 157개의 상담 사례를 수집했다. 자기개방 사례는 비개방 사례보다 내담자에게 두 배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비개방 사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두 배 정도 높았다.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난 영역은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이었다. 다만 자기개방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었고, 상담자

47) George W. Bitar et al., "Therapist Self-Disclosure and Culturally Competent Care with Mexican-American Court Mandated Cli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6 no. 3 (2014), 417-425.

48) Jennifer R. Henretty et al., "The Impact of Counselor Self-Disclosure on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no. 2 (2014), 191-207.

가 얼마나 적절하고 능숙하게 자기개방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했다.[49]

Heidi M. Levitt 등의 연구는 52개의 상담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방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상담자를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는(humanize the therapist) 자기개방과 상담자-내담자의 유사성을 전달하는 자기개방은 긍정적인 상담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군종목사의 자기개방에서 핵심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개방의 목적, 내용, 시점 및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 있다.[50]

Jake Phillips 등은 영국 보호관찰 실무에서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방은 크게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용도와 범죄 위험성과 욕구를 다루는 교정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51] 즉, 자기개방이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관계형성을 위한 실천기술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개방에서 상담자가 주의할 사항은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다." "내가 군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등의 진술을 통해 내담자 경험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2]

3. 내담자 관점 탐색과 개방형 질문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는 상담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지

---

49) Jean Hanson, "Should Your Lips Be Zipped? How Therapist Self-Disclosure and Non-Disclosure Affects Clients,"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earch* 5 no. 2 (2005), 96-104.

50) Heidi M. Levitt et al., "How Therapist Self-Disclosure Relates to Alliance and Outcom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9 no. 1 (2016), 7-28.

51) Jake Phillips, Andrew Fowler, & Chalen Westaby, "Self-Disclosure in Criminal Justice: What Form Does It Take and What Does It Achiev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 no. 12 (2018), 3890-3909.

52) Hanson, "Should Your Lips Be Zipped?" 96-104.

휘관이나 상담자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즉시 교정하기보다 "본인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휘관이 문제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비자발적 내담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판단하기보다 내담자의 경험을 그의 관점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53]

군 조직처럼 계급과 권한의 차이가 분명한 환경에서는 자기표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관계형성과 내담자의 관점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Chris Trotter는 비자발적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54]

비자발적 장병 상담에서 개방형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기법 이상의 의미가 있다. 폐쇄형 질문이 상담자가 이미 설정한 틀 안에서 '예/아니요'의 답을 요구한다면,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관점과 언어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동기강화상담에서는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s), 인정(affirming), 반영(reflecting), 요약(summarizing)을 면담기술인 OARS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과 변화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기본 방법이 된다.[55]

군종목사는 내담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라고 추궁하

53) Rooney & Mirick, *Strategies for Work with Involuntary Clients,* 165-195.

54) Trotte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78-100.

55) Miller & Rollnick, *Motivational Interviewing,* 62-83.

기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부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은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상급자가 보는 것과 본인이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내담자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잘못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언어화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검토하도록 돕는 데 있다. 동기강화상담에서도 상담자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교정반사’를 경계하고, 내담자의 양가감정을 이해하면서 변화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장병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부가 저를 싫어해서 보낸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상담자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 논쟁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대신 “본인은 상담이 필요한 문제라기보다 간부와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군요”라고 반영하면 내담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반영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동의하거나 이를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4. 변화 동기와 저항 다루기

상담자가 변화의 이유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내담자가 변화의 필요성과 이유를 말하도록 돕는 것은 동기강화상담의 변화대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정상적 현상으로 보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적 동기와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변화대화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변화에 관한 언어이며, 상담자는 자신의 논리로 내담자를 설득하기보

다 내담자의 변화 언어가 나타나고 강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군종목사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본인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군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언어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때 변화대화만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나타내는 유지대화도 수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상담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변해도 부대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를 인정하면 나만 불리해진다." 와 같은 말은 상담을 방해하는 언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변화를 주저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기강화상담에서는 변화대화뿐 아니라 유지대화와 상담 관계의 불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다룬다.

저항은 내담자의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 상담자-내담자의 관계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56] 따라서 '저항적인 장병'이라는 표현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장병이 다른 상황에서는 협조적이지만 상담실에서만 침묵하고 방어적이라면, 그 반응이 성격특성보다 상담에 이르게 된 과정, 상담자의 태도, 계급 관계 또는 상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비자발적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선택권의 범위도 상담 과정의 요소가 되므로, 상담자는 이를 고려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57]

---

56) Pat Lincourt et al.,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a Group Setting with Mandated Clients," *Addictive Behaviors* 27, no. 3 (2002), 381-91.

57) Rooney & Mirick, *Strategies for Work with Involuntary Clients,* 1-18.

상담자가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질문을 계속하거나, 부인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며, 내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할수록 내담자는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내담자의 관점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하면 상담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58]

5. 상담 역할 설명과 목표 설정

비자발적 장병 상담에서는 상담 내용뿐 아니라 상담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상담 기법이 될 수 있다. 내담자가 "왜 내가 여기 왔는가?" "누가 나를 보냈는가?" "상담자는 누구 편인가?" "내가 말한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상담자의 질문을 조사나 평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상담 초기에 상담 의뢰자, 상담의 목적, 자신의 역할과 권한, 상담 과정, 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정보의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장병이 군종목사와 지휘체계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므로 내담자의 불신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 과정에서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발적 상담에서 상담자의 권한과 지위를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조건이다.

비자발적 장병은 지휘관이 제시한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58) Trotte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78-100.

들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간부와 더 이상 부딪치고 싶지 않다.” “징계를 받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치고 싶다.” “동료와 관계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공동의 상담 목표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비자발적 상담에서는 문제해결 과정과 목표를 내담자와 협력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원리이다.[59]

따라서 군종목사는 “지휘관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뿐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지휘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동변화와 내담자가 원하는 결과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면 문제에 대한 관점은 다르더라도 행동목표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담이 지휘관이나 상담자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이 되면 내담자에게 또 하나의 명령이 된다. 반면 내담자가 목표 설정과 실행에 함께 참여하면 상담은 자기조절로 이동할 수 있다. 동기강화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준비도에 맞추어 계획 단계로 이동하고, 내담자 자신의 변화 이유와 결정을 강화하도록 한다.[60]

6. 직면과 자기통찰

동기강화상담에서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순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사이의 차이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생활을 문제없이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행동이 그 목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

59) Trotte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78-100.

60) Miller & Rollnick, *Motivational Interviewing*, 157-211.

고 질문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결론을 대신 제시하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이다.[61]

상담자는 직접적인 논박과 설득을 서두르기보다 내담자의 관점을 탐색하고, 개방형 질문과 반영적 경청을 통해 자기 설명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변화의 이유를 내담자가 자신의 언어로 변화의 필요성을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비자발적 상담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직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에 이르는 방법을 지혜롭게 고려하는 데 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도록 하는 질문, 자신의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하는 비유와 사례, 가치와 행동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하는 탐색 및 자신의 언어로 변화의 이유를 표현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만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현대 상담 기법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나단의 접근은 목회적 직면과 자기통찰의 원형으로 이해하되, 구체적인 상담 기법은 비자발적 내담자 연구와 동기강화상담 연구를 학술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V. 닫는 글

1. 요약

이 연구는 군 조직의 권고나 지시, 가족·간부의 요구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으로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장병의 특성을 고찰하고, 상담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과

61) Miller & Rollnick, *Motivational Interviewing*, 157-95.

기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자발적 장병은 상담을 평가와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상담 내용 보고와 낙인에 대한 우려 및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발성은 고정된 특성이나 변화 가능성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점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면 외부의 요구로 시작된 상담을 내담자의 선택과 변화 동기에 기초한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자발적 요청 없이 시작된 개입이 자기판단과 책임 인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단은 다윗을 직접 비난하기보다 비유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게 한 뒤 그의 행동을 직면시켰다. 이는 현대의 전문상담 사례는 아니지만 자기통찰과 회개를 촉진하는 목회적 직면의 원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군종상담에 적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자율성, 역할 명료화, 비밀보장 및 상담 윤리의 원칙 안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군종목사는 성직자이면서 장교, 상담자, 참모라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군 조직과 장병 생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유리하지만, 지휘체계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군종목사는 죄책감, 용서, 상실, 도덕적 갈등 및 삶의 의미와 같은 심리·정서적, 영적·실존적 문제를 다룰 수 있으나 정신장애의 진단, 심리평가 및 임상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역량의 경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장병을 정신건강 전문가나 기관에 연계하면서 목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가 제시한 상담 전략은 비유와 사례, 상담자의 적절한 자

기개방, 내담자의 관점 탐색, 개방형 질문과 반영적 경청, 변화대화 촉진, 저항의 관계적 이해, 관계형성 이후의 직면 및 실행 가능한 목표의 공동 설정이다.

2. 논의

이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비자발적 장병의 '상담 참여 동기'와 '문제해결 동기'를 구별했다는 데 있다. 상담을 거부하는 장병도 불면, 대인관계 갈등, 부대 부적응 및 정서적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의 상담 참여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장병이 현재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탐색해야 한다.

두 번째 의의는 비자발적 내담자의 저항을 개인의 결함이나 불순응이 아니라 상담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했다는 점이다. 군 조직에서는 장병이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담자는 변경할 수 없는 조건과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명료화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통제감을 일부 회복하고 상담자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초기 개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의의는 군종목사 상담의 강점을 접근성, 지속적 돌봄, 영적 자원, 치료적 동맹 및 전문 지원체계 연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군종목사는 상담실 밖에서도 장병과 접촉하며 상담 동기가 낮은 장병에게 초기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성과 성직자의 지위만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판단적 경청과 공감, 일관된 역할 경계 및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네 번째 의의는 목회적·영적 돌봄과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했다는 데 있다. 군종목사는 내담자가 원할 경우 기도, 성경, 예배, 고백, 용서 및 애도 등의 영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개입은 내담자의 동의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며, 임상적 평가와 치료를 종교적 설명이나 훈계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자살사고, 정신병적 증상, 중증 우울 증상 및 물질사용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나 의료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의의는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현대 상담 기법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라 목회적 직면의 원형으로 해석했다는 데 있다. 나단의 비유는 직접적인 비난에 앞서 다윗의 자기판단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유와 질문을 통한 자기통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담 기법의 효과와 적용 근거는 비자발적 내담자 연구와 동기강화상담 및 상담 성과 연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결국 효과적인 직면은 문제 행동을 묵인하거나 내담자의 잘못을 공격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아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행동과 자신의 가치·목표 사이의 불일치를 탐색하고, 자신의 언어로 변화의 이유를 표현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선택하여 변화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비자발적 장병을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비유, 자기개방, 반영적 경청, 변화대화 및 공동목표 설정 등의 상담 기법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지만, 한국군의 비자발적 장병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미군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군종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였다. 미군과 한국군은 군종목사의 법적 지위와 비밀보장의 범위, 정신건강 서비스의 구조 및 조직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군 군사증거규칙에 따른 특권적 의사소통을 한국군 군종상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군 자료는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한국군의 법령과 국방부 규정 및 군종업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비자발적 장병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지휘관의 지시, 가족이나 간부의 권유 및 자살위험이나 문제 행동에 따른 의뢰는 강제성, 문제의 심각성 및 변화 준비도에서 차이가 있다. 계급, 복무기간, 부대환경, 종교적 배경 및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상담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상담 기법을 모든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지휘관의 권고나 지시로 상담에 참여한 장병을 심층면담하여 상담에 대한 불신과 저항, 비밀보장에 대한 인식 및 변화 동기의 형성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비자발적 장병 상담 경험, 역할 갈등, 비밀보장 및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 경험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상담 전략을 회기별 상담 모형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상담 동기, 치료적 동맹, 상담 지속률, 자기개방 및 문제 행동 변화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성의 유형과 변화 준비도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전략도 개발해야 한다. 지휘관의 공식 지시, 가족이나 동료의 권유 및 위기상황에 따른 의뢰에는 서로 다른 초기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군종목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및 지휘관

의 역할 경계를 명료화하고, 비밀보장과 안전보호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절차와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강화상담, 자살위험 평가, 위기개입, 외상 및 상담 윤리교육과 함께 사례자문, 상담 수련감독 및 동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 전략은 비자발적 장병을 설득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로 시작된 상담에서 내담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성을 회복하고 변화의 이유와 목표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군종목사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의 관점을 존중하며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할 때, 군종상담은 상담 동기가 낮은 장병을 자발적 변화와 전문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초기 통로가 될 수 있다.

Abstract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ounseling Motivation of Involuntary Service Member Clients

Joseph Jeon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voluntary military service member clients and explores counseling strategies that military chaplains can employ to strengthen their motivation for counseling. Involuntary clients may enter counseling in response to a command recommendation or directive, requests from family members or military personnel, or interventions following behavioral concerns rather than through their own initiative. Drawing on the literature on involuntary clients, military mental health help-seeking, psychological resistance,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military chaplaincy, this study develops a theoretical and practice-oriented framework for counseling involuntary service members. Such clients may deny the need for counseling or perceive counseling as an instrument of evaluation, surveillance, or control. Concerns about disclosure to the chain of command, adverse career consequences, stigma from peers, and confidentiality may further contribute to avoidance, superficial participation, silence, brief responses, passive noncompliance, active resistance, and reluctance to self-disclose. Involuntariness, however,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xed personality characteristic or as evidence of an absence of motivation for change. Rather, it may be understood as an initial condition that can shift a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develops and as the counselor adopts interventions that respect the client's perspective and autonomy. Accordingly, the central task of counseling is not to overcome resistance through persuasion or confrontation, but to transform an externally initiated encounter into a collaborative process in which

clients identify personally meaningful concerns, reasons for change, and goals of their own. To facilitate this process, the study proposes a set of counseling strategies for military chaplains: the use of metaphors, illustrations, analogies, and cases; appropriate counselor self-disclosure; exploration of the client's perspective; open-ended questions and reflective listening; elicitation of change talk;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resistance; clarification of what is and is not within the client's control; beginning with outcomes valued by the client; early clarification of the chaplain's role and the purpose of counseling; the use of confrontation after establish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small, achievable goals. Because military chaplains occupy multiple roles as commissioned officers, clergy, counselors, and advisors to commanders, they must also maintain clear professional boundaries, recognize the limits of their clinical competence, and collaborate with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en specialized assessment or treatment is required while continuing appropriate pastoral and spiritual care. Ultimately, effective counseling with involuntary service members does not begin by demanding voluntary participation. Rather, it seeks to restore as much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s possible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military environment and to help service members articulate, in their own words, personally meaningful reasons and goals for change.

Key Words

involuntary counseling, military service members,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motivation, motivational interviewing, resistance, military counseling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군선교교역자의 목회 서사 전환과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A P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storal Narrative Transformation and Healing Experiences of Civilian Military missionary: Focusing on Participants of the Military Healing Ministry Academy

» 안남기 Ph.D.*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에 참여한 군선교교역자와 사모들이 경험한 치유의 본질과 목회적 서사 전환의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13가지 주제군'의 스트레스 요인과 치료적 요인을 이론적 기틀로 삼았다.[1)]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군선교교역자들이 성과 중심(Doing)에서 존재 중심(Being) 목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혀냈으며, 스스로를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정체성화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의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자의 '자기 돌봄(Self-care)'과 정서적 건강이 선교적 회복의 선행 조건임을 시사하며, 향후 군선교 정책 수립 및 교육 과정 표준화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중심단어

군선교교역자, 서사적 전환, 콜레지 현상학, 밀리터리 치유목회, 자기 돌봄, 상처 입은 치유자

•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8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8월 26일

* 군선교신학회 상담코칭위원회, 군종목사(예 53기), 힐링밀리터리센터장, 샘솟는교회 담임목사

1) 안남기,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45.

I. 서론

대한민국 군선교(Military Mission)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장병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타문화권 선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 군선교는 '진중세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부흥의 돌파구이자 황금어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와 장병들의 무종교 선호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선교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약 3년 여간의 부대 출입 제한은 오랜 시간 구축해온 전도와 양육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이는 군 사역 현장의 분위기를 급격히 침체시키고 사역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환경적 위기 속에서 '종교 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사역하는 군선교교역자들은 총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안남기의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군 사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13가지 주제군에 걸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다.[2] 따라서 장병들을 돌보기에 앞서, 사역자 자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자기 돌봄(Self-care)'과 내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역자가 먼저 '안전한 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용사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 군 사역자들의 치유 경험과 목회 서사 전환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 군선교 현장에서 치유목회의 실천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논자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해제하고 해명함으로써 귀결에 이르고자

2) 부록에 연구자의 학위 논문 "군선교교역자 스트레스 경험 연구"의 연구 결과를 첨부하였다.

한다.

첫째, 군선교교역자들은 사역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밀리터리치유목회아카데미' 참여자들이 경험한 치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참여자들의 목회 서사는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가?

넷째, 치유경험은 사역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와 치유목회

1) 선행 연구 소개

안남기의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는 군선교교역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구조적 스트레스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논문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들이 군 사역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경험은 현상학적 분석(Colaizzi 방법론)을 통해 52개의 주제와 13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이 주제군들은 크게 스트레스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인 13가지 주제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군선교교역자 스트레스의 원인(주제군 1~6)

- 왜곡된 외부적 평가로 인한 의욕 상실: 한국 교계의 무관심이나 '실패한 목회자가 가는 곳'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다.
-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 민간 목회자, 해외 선교사, 혹은 현역 군종목사들과의 상대적 대우 차이나 성공 여부를 비교하며 굴욕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 제한된 신분과 역할로 인한 무기력 경험: 담임목사직 상실에 따른 슬픔, 갑작스러운 사역지 상실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65세 은퇴 규정에 대한 압박감 등을 경험한다.
- 열악한 목회적 환경에서 오는 총체적 압박: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과 열악한 재정 후원으로 인한 생계 압박, 지휘관 성향에 따라 유동적인 사역 환경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 조직 구성원들과의 긴장된 갈등 구조: 군종목사의 통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신세대 병사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군종병의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한 갈등이다.
-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의 내면적 갈등: 군대를 선교지가 아닌 목회지로 오해해서 생기는 초기 사역의 갈등, 성과 위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장병들의 저조한 예배 참석률로 인한 내적 고뇌이다.

(2) 군선교교역자 스트레스의 증상(주제군 7~8)

- 심리-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타인이 알아볼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 대인 기피, 자기에 대한 비관적 생각, 응집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 신앙적 회의로 인한 영혼의 침체: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 군 사역의 의미 상실로 소명에 대한 회의,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한다.

(3) 스트레스의 치료적 요인(주제군 9~13)

- 신실한 동반자들과의 영적 교제: 군종목사와의 수평적 우정, 지휘관과의 인격적 관계, 동료 그룹 및 아내의 격려를 통해 위

로와 소명을 확인한다.

- 상호 교환적 목회 돌봄을 통한 정체성 확인: 변화되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전역한 병사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신실한 간부 가족들과 형제애를 나눌 때 사역자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 존재 중심의 목회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 '나는 목사다'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한 영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
- 군선교 현장에 대한 긍정적 상황 인식: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수용적으로 인식하고, 군 사역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십자가 체휼 신앙을 통한 희망 경험: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영적 위로를 얻고, 십자가 신앙 안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사역 현장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다.

이 13가지 주제군은 사역자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 어떻게 내면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사명으로 승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2) 현재 논문과 연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군선교 현장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군선교 체계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역자들의 무력감과 정체성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군 사역자들이 치유 경험을 통해 어떠한 서사적 전환과 존재 변화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치유 목회 연결

안남기의 연구는 군선교 사역자의 스트레스 문제를 단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구조와 관계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실존적·관계적 문제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가 강조하는 치유공동체와 자기 돌봄(Self-care), 그리고 존재 중심 목회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2. 이야기 심리학 (Narrative Psychology)

1)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

'이야기 심리학'(Narrative Psychology)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단순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story)로 구성하고 해석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댄 맥아담스(McAdams)는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조직하면서 삶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3] 즉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군선교교역자 역시 자신의 사역 경험을 특정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군선교는 마지막 사역지다, 군대는 척박한 선교 현장이다"와 같은 자기 이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랜 경험 속에서 형성된 삶의 서사(narrative)라고 볼 수 있다.

2) 지배적 이야기(Dominant Narrative)

White와 Epston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정한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강화되면서 하나의 지배적 이야기(Dominant Narrative)

3) 댄 맥아담스 저, 『이야기 심리학: 개인적 신화의 탐색과 재구성』, 양유성·이우금 역 (서울: 학지사, 2015), 75.

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4]이러한 지배적 이야기는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되지만, 때로는 부정적 경험만을 강조하여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역 체계의 붕괴와 열악한 군선교 환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유능한 사역자가 아니다", "군선교는 희망이 없는 사역이다"라는 부정적 지배적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적 이야기는 사역자의 번아웃과 무력감, 그리고 소명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해체(Deconstruction)와 외재화(Externalization)

내러티브 치료에서 치유의 첫 단계는 기존의 지배적 이야기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해체(Deconstruction)' 과정이다.[5] 이야기치료의 기본전제는 지배적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한계를 떠넘기므로, 억눌린 목소리가 확인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지배적인 이야기는 해체되어야 하며,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6]해체란 문제를 개인 내부의 결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형성한 사회적·문화적 담론과 관계 맥락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White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이다(The person i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e problem)"라고 말하며 외재화(Externalization)를 강조하였다.[7] 이는 문제와 사

4) Michael White and David Epston,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0), 45.

5) Ibid., 48.

6) 양유성,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2004), 186.

7) Michael White and David Epston, 110.

람을 분리하여 바라보도록 돕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실패한 목회자로 규정하기보다 코로나19와 군선교 환경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군선교 문화가 자신들의 고통을 만들어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 1 목사가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을 "무용한 암소"로 표현하며 내려놓은 과정은 기존의 지배적 서사를 해체하는 상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Narrative)와 재저작(Re-authoring)

White와 Epston은 치유의 궁극적 목적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는 재저작(Re-authoring)에 있다고 보았다.[8] 이는 개인이 삶 속에서 간과되었던 긍정적 경험과 예외적 사건(Unique Outcomes)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를 통해 동료 군선교사들과 자신의 상처와 실패를 공유하면서 "나만 서툰 것이 아니었다"라는 보편성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패한 목회자"라는 자기 서사에서 벗어나,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군대를 더 이상 "척박한 군선교 현장"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으로 새롭게 의미화하는 서사의 재구성(Re-authoring)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5) 본 연구와 이야기 심리학의 관련성

---

8) *Ibid.,* 48.

본 연구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치유 경험을 단순한 심리적 회복이 아니라 '목회 서사의 전환(Narrative Transition)'으로 이해한다. 즉, 기존의 성과 중심(Doing)의 지배적 이야기가 해체되고, 존재 중심(Being)의 대안적 이야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과거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재정의하며, 군선교 현장을 '희망의 땅'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야기 심리학과 내러티브 치료에서 말하는 해체(Deconstruction),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Narrative), 그리고 재저작(Re-authoring)의 전형적인 치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회 서사 전환(Narrative Transition)'이란, 군선교교역자가 자신과 군선교 현장을 이해하던 지배적 이야기(Dominant Narrative)를 해체하고, 치유 경험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Narrative)와 존재 중심의 목회 정체성을 재구성(Re-authoring)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3. 집단상담 이론

1) 집단상담과 치유공동체

집단상담(Group Counseling)은 참여자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적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특히 얄롬(Yalom)은 집단치료가 단순한 개인 상담의 집합이 아니라 독특한 치료적 요인(Therapeutic Factors)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9]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문화 속에서 고립감과

9) 어빈 얄롬 저,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1), 10.

소명 갈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개인 상담뿐 아니라 동일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의 집단적 만남은 더욱 강력한 치유적 의미를 갖는다.

2) 보편성(Universality)

얄롬은 집단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편성(Universality)을 제시하였다.[10]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통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의미한다.

군선교교역자들은 종종 "나만 사역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나만 실패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심리적 고립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야기 마당」과 아카데미 과정에서 동료들의 실패와 고민을 공유하면서 "나만 서툰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보편성의 경험은 자기 비난과 수치심을 완화하고 치유의 출발점이 된다.

3)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

얄롬은 집단 응집력을 집단상담의 핵심 치료 요인으로 보았다.[11] 집단 응집력이란 참여자들이 집단 안에서 수용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의미한다.

군선교교역자들은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종종 주변인(Minority)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카데미와 이야기마당은 서로의 아픔을 경청하고 지지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전기지(Safe Base)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신실한 동반자들과의 영적 교제'라는 치료적 요인과도 연결

10) *Ibid.,* 23.

11) Ibid., 72.

된다.

4) 이타주의(Altruism)

집단상담에서 참여자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돕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얄롬은 이러한 경험을 이타주의(Altruism)이라고 설명하였다.[1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와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다른 참여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호 돌봄은 목회상담에서 강조하는 '상호 교환적 목회 돌봄(Mutual Pastoral Care)'과 맥락을 같이하며,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치유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닫게 한다.

5) 희망의 고취(Instillation of Hope)

집단 안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회복 경험을 목격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형성하게 한다. 얄롬은 이러한 희망의 형성이 집단치료의 중요한 변화 기제라고 설명하였다.[13]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사역 환경과 번아웃을 경험한 군선교교역자들은 동료들의 회복 이야기와 선배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사역 역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였다. 이는 군대를 '척박한 군선교 현장'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으로 재해석하는 서사적 전환의 토대가 되었다.

6) 대인관계 학습과 공감적 관계 형성(Interpersonal Learning)

얄롬은 집단이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의 장이라고

12) *Ibid.,* 30.

13) Ibid., 21.

보았다.[14]참여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관계 방식을 성찰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경청과 공감 훈련, CARE 4단계 목회돌봄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용사와 가족, 동료 사역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왔다. 이는 군선교 현장에서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와 공감적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7) 실존적 요인(Existential Factors)

얄롬은 인간이 삶의 고통과 한계, 죽음과 상실을 직면할 때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설명하였다.[15] 군선교교역자들은 코로나19, 사역의 침체, 신체적 질병, 은퇴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그러나 아카데미를 통해 이러한 고통을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재정의하게 되었다.

8) 본 연구와 집단상담 이론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와 사전 프로그램인 '이야기 마당'은 얄롬이 제시한 보편성, 집단 응집력, 이타성, 희망의 고취, 대인관계 학습, 실존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치유공동체였다.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안전하게 드러내고,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목회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심리적 회복을 넘어 군선교 현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존재 중심

14) Ibid., 38.

15) *Ibid.,* 115.

의 목회로 전환하는 서사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Ⅲ. 연구 방법-콜레지-(Colaizzi)의 7단계 분석 절차 적용

연구방법을 질적 연구방법론, 특히 콜레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가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 논문을 이 방법론으로 작성한 것이다. 콜레지 방법론을 적용할 때 군선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본질'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자연과학적 방법이 소홀히 하기 쉬운 개인의 생활 세계(Life world)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16] 군선교교역자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사역적 압박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심리적 영역이므로, 참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콜레지 방법이 매우 적합하다. 콜레지 방법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참여자의 공통된 진술 속에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콜레지 방법론은 분석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유리하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17]

> 가. 전체적 맥락 파악: 참여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들으며 그들의 마음을 읽는다.
> 나. 의미 있는 진술 추출: 스트레스의 특성과 관련된 핵심 문장들을 발췌한다.
> 다. 의미 구성: 추출된 진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명확하게 재진술을 한다.
> 라. 주제군 형성: 유사한 의미들을 묶어 주제와 주제군으로 분

16) 신경림 외,『질적 연구 방법론』(서울: 현문사, 2004), 85-92.

17)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ed. R. S. Valle and M. 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48-71.

류한다.
마. 현상학적 기술: 심리적 경험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도록 현상학적 글쓰기를 한다.
바. 근본적 구조 기술: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를 추출한다.
사. 타당성 확인: 분석 결과가 실제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의 엄격성을 높인다.

콜레지 방법론은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판단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참여자들이 부여한 고유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치료적 요인'(예: 신실한 동반자 관계, 십자가 체휼 신앙 등)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와 같은 실제적인 치유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콜레지 방법론은 사역자들의 파편화된 고통의 이야기들을 학술적인 본질(Essence)로 승화시키고, 이를 통해 군선교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도구라 할 수 있다.

Ⅳ.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성

1.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1) 일시: 2026년 3월 9일부터 5월 31일
2) 장소: 힐링밀리터리센터
3) 참가 대상: 군선교교역자(5), 사모(4) (총 9명)
4) 10주간 프로그램 개요

회	일자	프로그램
1	3. 8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군대
2	3. 15	CARE 4단계 목회돌봄 프로그램
3	3. 22	목회에 집단상담 활용하기
4	3. 29	내적 치유와 기도
5	4. 5	공감적 예배
6	4. 12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7	4. 19	용사 이해를 위한 간이 심리검사 활용
8	5. 2	치유적 글쓰기
9	5. 16	자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10	5. 31	은퇴자들과의 대화

1주차: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군대 - 군대를 척박한 군선교현장이 아닌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으로 재정의 하며 사역의 서사적 전환을 시도한다. 사역자가 먼저 '안전한 대상'으로 회복되어야 장병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유목회의 신학적 토대를 다진다.

2주차: CARE 4단계 목회돌봄 프로그램 - 연구자의 연구에서 도출된 접촉(Contact), 다가감(Approach), 회복(Recovery), 격려(Encouragement) 모델의 실천적 기술을 습득한다. 인사하기, 이름 기억하기 등 구체적인 관계 형성 방법을 통해 장병들에게 정서적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목회적 다가감을 훈련한다.

3주차: 목회에 집단상담 활용하기 - 군 공동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집단 역동을 활용하여, 개별 상담보다 강력한 공동체적 치유 효과를 이끌어내는 원리를 배운다. '보편성'의 원리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민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서로 공감하며 회

복되는 상담 기제를 목회에 적용한다.

4주차: 내적 치유와 기도 - 사역자가 타인을 돌보기 전 자신의 상처를 먼저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자기 돌봄'의 영적 과정을 실천한다. 시간 여행 기법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아픔을 객관화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역의 동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5주차: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치유 경험의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장병들의 실존적 상황에 응답하는 소통형 메시지 선포를 연습한다. 군 선교 현장의 특수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지식 전달을 넘어 용사들의 내면적 회복을 돕는 상담학적 관점의 설교 기법을 연구한다.

6주차: 공감적 예배 - 참여자의 삶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을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 아닌 '함께 겪으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예배를 추구한다. 정해진 형식을 넘어 장병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 군대 교회를 치유의 현장으로 변모시키는 예배를 기획한다.

7주차: 용사 이해를 위한 간이 심리검사 활용 - 용사들의 심리 상태와 실존적 고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 심리검사 도구의 활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병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목회적 돌봄의 과학적 기틀을 마련한다.

8주차: 치유적 글쓰기 - 자신의 사역 서사를 글로 기록하며 상처를 객관화하고, 과거의 지배적 서사에서 벗어나 희망의 서사로 다시 쓰는 과정을 체험한다. 글쓰기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역의 의미를 새롭게 발

견한다.

9주차: 자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군부대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상담 기법을 익히고,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용사들을 위한 생명 존중 사역을 학습한다. 위기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군 선교사가 현장에서 생명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주차: 은퇴자들과의 대화 - 군 사역에 헌신한 선배들의 경험을 경청하며 군 목회의 지속성과 정체성을 성찰하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최종 점검한다. 10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성과 중심에서 존재 중심의 목회로 전환된 마음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다시 파송받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본 아카데미는 군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치유목회·상담목회·회복 중심의 실천적 교육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 전에 진행된 5주간의 '이야기 마당' 워크샵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정서적 결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진행되어 워크샵 진행이 순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었다.[18] 이 프로그램이 연구자의 연구에서 도출된 군선교교역자의 스트레스의 치료적 요인들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아카데미 1기 참여자 9인의 자서전적 에세이

18) 2026년 1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5회기의 군선교사와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을 실시했다. 참석 인원은 군선교사 4가족이 참여하였다. 진행자 가족 포함 10명이었다. 참여자 1목사의 사모는 밀리터리치유목회아카데미에 불참하였고, 참가자 5목사가 참여하였다.

1) 참여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사역기간	교단	사역구분
참여자 1	61	18년	예장백석	전담
참여자 2	63	13년	예장백석	전담
참여자 3	50	4년	예장대신	전담
참여자 4	57	3년	예장백석	전담(협력)
참여자 5	53	1년	예장백석	전담
참여자 6	57	3년	참여자 4 사모	
참여자 7	61	5년	참여자 2 사모	
참여자 8	41	4년	참여자 3 사모	
참여자 9	58	3년	진행자 사모	

참여자는 ○ 군단 군선교교역자와 사모로 9인이다. 참여자들은 5주 간의 이야기 마당을 참석하였고, 참여자 5 목사는 본 프로그램만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연구 성격과 맞는 참여자 1 목사와 참여자 6 사모의 자서전적 에세이(소감문)을 사례로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그러나 논의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의 소감문을 모두 참고하였다.

2) 참여자 세부 사항

진행자: 58세 군종목사로 20년 사역을 하였고, 전역 후 10년간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였다. 2024년 힐링밀리터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식적인 군선교를 하고 있다. 현재 군교회 예배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 1: 61세 B교단 목사로 군사역 18년 차이다. 초급장교부터 군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군복무에 임하였고, 현역 장교 시절 군교회를 3동을 짓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 중령으로 전역 후 현재 사역

하고 있는 군교회에서 외부 교회의 협력으로 전도와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사역하다 파킨스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이후 이전 같지 않은 분위기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참여자 2: 62세 B교단 목사로 군사역 13년차이다. 육군 원사로 전역하였고, 입대전 신학대학을 2년 수료하였고, 전역 전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다. 현재 ○군단 군선교교역자 회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참여자 3: 50세 D교단 목사로 군사역 4년차이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포병 부대에서 3년을 사역하고, 현재 부대를 옮겨 사역중이다. 이전 부대에서는 용사들의 예배 참석이 많았으나 현재 부대에서는 저조한 상태이다.

참여자 4: 57세 B교단 목사로 군사역 3년차이다. 참여자 1 목사의 제안으로 같은 부대에서 동사 목회자로 사역중이다. 주중에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일터를 갖고 있다.

참여자 5: 53세 B교단 목사로 군사역 1년차이다. 군선교사 이야기 마당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밀리터리치유목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다. 주중에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일터를 갖고 있다.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용사들의 예배 참석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참여자 6: 참여자 4 목사의 아내이다. 주중에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일터를 갖고 있다.

참여자 7: 참여자 2 목사의 아내이다. 주중에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일터를 갖고 있다.

참여자 8: 참여자 3 목사의 아내이다. 주중에 자비량 사역을 위

한 일터를 갖고 있다.

참여자 9: 진행자(연구자) 목사의 아내이다. 연구자와 함께 군교회 예배를 지원하고 있다.

V. 연구 결과: 경험의 본질적 주제 분석

1. 참여자 1 목사의 '무용한 암소' 폐기와 사명 재구성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1) 1단계: 참여자 1 목사의 기술 읽기 (전체 맥락 파악)

참여자 1 목사는 1985년 입대 이후 25년간 군 생활을 하고 중령으로 전역한 후, 2009년부터 군선교사로 헌신해 온 사역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3년 6개월간 사역 체계가 무너지고 파킨슨 증상이라는 개인적 질병까지 겹치며 깊은 영적침체를 경험했다. 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회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2) 2단계: 의미 있는 진술 추출 (Significant Statements)

- "오랜 시간 세워온 전도와 양육 체계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파킨슨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육체적 피로와 함께 사역에 대한 열정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 "번아웃 가운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 "내 안에 붙들고 있던 '무용한 암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사역의 열매와 경험에 안주하려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 “인생에는 절벽으로 밀어야 할 암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익숙함과 성공, 오래된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3) 3단계: 의미 구성 (재진술) (Formulated Meanings)

-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이 오히려 현재의 위기(코로나19, 질병)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무용한 암소)이 되었음.
- 치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된 과거의 사역 패러다임을 과감히 폐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데서 시작됨.
- 사역의 중심을 ‘성과와 체계’에서 ‘용사들의 상처를 읽고 함께 걷는 공감’으로 이동시킴.

4) 4단계: 주제 및 주제군(Theme Clusters) 형성

주제군 1: 축적된 성공의 붕괴와 실존적 무력감

- 25년 군 경력과 확립된 양육 체계가 환경 변화(코로나)와 신체적 한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됨에 따른 깊은 우울과 번아웃.
- 주제군 2: ‘무용한 암소’와의 결별 (치유의 전환점)
- 과거의 성공 서사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뼈아픈 자기 부정과 익숙한 방식으로부터의 단절.

주제군 3: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 재정의

- 군대를 다시 ‘희망의 땅’으로 정의하고, 설교를 지식 전달이 아닌 내면의 회복을 돕는 ‘치유적 과정’으로 재구성함.

5) 5단계: 현상학적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

참여자 1 목사의 경험은 ‘성공한 사역자라는 자부심의 상실’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 폐기'를 거쳐 '공감하는 목회자로의 부활'로 기술되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역 현장이 폐쇄되고 신체적 질병이 찾아오자, 단순히 하루를 견디는 번아웃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아카데미를 통해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과거의 열매들이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이 과거의 성공(무용한 암소)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6) 6단계: 근본적 구조(Fundamental Structure) 기술

참여자 1 목사에게 치유의 본질은 "과거의 나(성공과 경험)를 죽이고, 현재의 상처 입은 용사들과 함께 걷는 신실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용사들의 마음을 읽는 '치유적 설교'와 '공감의 목회'가 가능해진다는 서사적 전환을 이루었다.

7) 7단계: 타당성 확인 (Validation)

그의 최종 고백은 이 분석이 그의 내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용사들의 마음을 읽는 목회,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 걷는 동행의 목회,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치유의 목회를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 참여자 6 사모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회복과 사역의 재발견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1) 1단계: 참여자 6 사모의 기술 읽기 (전체 맥락 파악)

참여자 6 사모는 사역자이자 사모로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실제 군선교 현장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을 겪고 있었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그녀는 타인을 치유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경험을 했으며, 사역과 일상의 태도가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2) 2단계: 의미 있는 진술 추출 (Significant Statements)

- "그동안 해오던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늘 막막함이 있었다."
- "비슷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지나온 분들의 나눔 속에서 '나만 서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 "이번 아카데미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방법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시간이었다."
- "사람은 배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3) 3단계: 의미 구성 (재진술) (Formulated Meanings)

- 오랜 사역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해 내면의 막막함과 사역적 무력감을 경험함.
- 자신의 부족함을 공동체 안에서 솔직히 드러낼 때 비로소 연대감을 통한 안도감과 정서적 치유가 일어남.
- 환대(정성 어린 간식)는 지친 사역자에게 '사랑으로 채워지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실존적 회복의 수단이 됨.
- 치유 사역의 핵심은 기법의 습득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의 내면이 먼저 돌봄을 받고 회복되는 데 있음.

4) 4단계: 주제 및 주제군(Theme Clusters) 형성

주제군 1: 사역적 미로 속의 막막함

- 예배와 상담, 교제 사이에서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방향 상실의 경험

주제군 2: 공유된 서사가 주는 치유적 안도감

- 동역자들의 솔직한 실패담을 통해 얻은 "나만 서툰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

주제군 3: 일상의 작은 환대가 갖는 치유의 힘

- 정성이 담긴 간식을 통해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존재임을 자각함.

주제군 4: 치유자 자신의 선행적 회복

- 타인을 품기 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며, 가족(남편, 자녀)을 대하는 태도부터 변화됨.

5) 5단계: 현상학적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

참여자 6 사모의 경험은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막막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존재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군 사역의 중심을 잡지 못해 힘겨워했으나, 아카데미에서 동료들의 시행착오를 들으며 고립된 서사에서 벗어나 깊은 안도감을 얻었다. 특히 섬김의 손길(간식)을 통해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경험하며, 사역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따뜻하게 들어주고 곁을 지켜주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됨을 깨달았다. 이는 곧 그녀의 일상으로 이어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6) 6단계: 근본적 구조(Fundamental Structure) 기술

참여자 6 사모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배움이 아닌 은혜의 여정이었다. 그녀가 도출한 경험의 본질은 "치유는 사역자의 유능함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의 회복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공감이며, 작은 환대(간식, 경청)가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이다.

7) 7단계: 타당성 확인 (Validation)

그녀는 마지막 소감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나 또한 위로받으며 회복되어 가는 참 따뜻한 여정이었다"라고 명시하며, 본 분석 결과가 그녀의 실제 경험과 일치함을 확인해 준다.

3. 소감문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별 서사 전환 구조

전 참여자(9인)의 소감문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별 서사 전환 효과 : 본 연구는 사례 분석으로 상세히 다룬 참여자 1 목사와 참여자 6 사모의 자서전적 에세이 외에도, 아카데미 1기 참여자 9인 전체의 소감문과 워크숍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경험한 서사적 전환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0주간의 커리큘럼 중 특정 프로그램들이 참여자들의 사역 정체성과 현장 인식 변화에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1) 지배적 서사의 해체와 정서적 개방을 이끈 초기 프로그램

[1주차: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군대] & 사전 [이야기 마당]

소감 종합: 5주간 진행된 '이야기 마당'과 1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던 사역적 아픔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특히 주중 자비량 일터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던 사모들(참여자 6, 7, 8)은 사역의 주변인으로 머물던 소외감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역자 자기 돌봄

(Self-care)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이 시기에 제공된 작은 환대(간식과 경청)는 이들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존재'임을 재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정서적 안전기지가 되었다.

[3주차: 목회에 집단상담 활용하기]

소감 종합: 집단상담의 역동과 '보편성(Universality)' 원리는 모든 참여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도감을 선사했다. "나만 사역이 어렵고 서툰 것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은 참여자 6 사모뿐 아니라, 부대를 옮긴 후 예배 참석률 저조로 심리적 위축을 겪던 참여자 3 목사, 신생 사역자로서 막막함을 느끼던 참여자 5 목사 모두에게 자기 비난과 수치심을 완화하는 치유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존재 중심 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재저작(Re-authoring)'을 이끈 중·후기 프로그램

[5주차: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 [6주차: 공감적 예배]

소감 종합: 성과 위주의 정책과 세례 숫자에 압박을 받던 목회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사역의 방법론을 완전히 재구성하였다. 18년차 베테랑인 참여자 1 목사를 필두로, 군단 선교교역자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던 참여자 2 목사, 동사 목회자로서 자비량 사역을 하던 참여자 4 목사 등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식 설교에서 탈피하기로 결단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으로 선포하는 치유적 설교와 눈을 맞추는 공감적 예배를 통해, 장병들에게 실존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소감문에 강력히 피력하였다.

[8주차: 치유적 글쓰기]

소감 종합: 글쓰기 프로그램은 축적된 성공의 신화나 실패의 상

처를 객관화하는 거울이 되었다. 참여자 1 목사가 과거의 사역 열매에 안주하던 자신을 '무용한 암소'로 명명하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결단은 전체 참여자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주었다. 다른 목회자들과 사모들 역시 글쓰기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며, 자신을 '완벽한 해결사'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재정의하는 정체성의 변혁을 경험하였다.

[10주차: 은퇴자들과의 대화]

소감 종합: 65세 은퇴 규정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을 느끼던 사역자들에게 선배들과의 만남은 사명의 최종 점검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10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군대를 '척박한 선교지'가 아닌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으로 재정의하였고, Doing(성과)에서 Being(존재) 중심으로 파송 받는 결단의 고백으로 소감문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Ⅵ. 논의

1. 사역자 자기 돌봄(Self-care)과 정서적 건강의 상관관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역자의 정서적 회복이 사역의 질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이라는 점이다. 안남기의 연구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라는 외부의 왜곡된 평가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심각한 자존감 손상과 심리-신체적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역자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사역에만 매진할 경우, 결국 사역적 무기력과 번아웃(Burnout)에 직면하게 된다.

참여자 4 목사는 "군선교사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점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대상이 되어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지적하며 사역자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자 6 사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남편과 자녀, 그리고 사역지의 영혼들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즉, 사역자의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휴식이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위한 '사명의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앙 행위라 할 수 있다.

2. 군 공동체 특성에 최적화된 집단 상담의 효용성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 '운명 공동체'이자 '동일 집단(Homogeneous Unit)'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욱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참여자 4 목사는 용사들이 겪는 가족, 연애, 관계 갈등 등의 문제를 집단 안에서 공유할 때 '보편성(Universality)'의 원리에 의해 치유가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카데미의 사전 프로그램인 5주간의 '이야기 마당'은 이러한 집단 역동의 실천적 모델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동료 사역자들의 솔직한 실패담을 들으며 "나만 서툰 것이 아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을 얻었으며, 이는 사역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성 어린 간식과 환대가 있는 집단적 분위기는 사역자들에게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개방을 촉진했다. 결론적으로 군 공동체에 최적화된 집단적 접근은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돌봄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서로를 돌보는 '상호 교환적 목회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군선교사 정체성 확립

군선교교역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마주하며 깊은 고뇌에 빠진다. 참여자 1 목사는 25년의 군 경력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던 자신의 모습을 '무용한 암소'라고 명명하며 이를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사역자가 자신을 '완벽한 해결사'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재설정하게 만든다. 사역자가 자신을 '완벽한 해결사'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재설정하게 만든다. 이는 8주차 '치유적 글쓰기'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5주차 '치유적 설교' 모델과 결합하면서 존재 중심의 목회 서사로 전환되는 실천적 동력을 얻게 되었다.

사역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수용할 때, 비로소 고통받는 장병들의 실존적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치유적 설교'와 '공감적 예배'가 가능해진다. 이는 하나님을 단순히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겪으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십자가 체휼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군선교사는 자신의 상처를 사역의 걸림돌이 아닌 용사들의 아픔을 품는 동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사역의 성과보다 사역자 자신의 존재와 임마누엘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 중심의 목회'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Ⅶ.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성과 중심에서 존재 중심 목회로의 전환

본 연구는 콜레지(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과 이야기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면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핵심 결과는 군선교사들이 과거의 성과 중심(Doing)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사역자 자신의 존재와 영혼에 집중하는 존재 중심(Being) 목회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19)]

첫째, 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사역 체계의 붕괴 속에서 겪었던 번아웃이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려 했던 '무용한 암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자각하였다. 이를 과감히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 사역자들은 스스로를 '완벽한 해결사'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재정의하게 되었다.[20)]

둘째, 군선교 현장에 대한 서사적 인식이 전환되었다. "피하고 싶은 곳" 혹은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의 장소", "척박한 군선교 현장"이었던 군대는, 이제 장병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걷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였다.

셋째, 사역의 방법론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세례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CARE 4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용사들에게 '안전한 대상'으로 다가가고, 집단상담적 역동을 통해 공동체적 치유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역량을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아카데미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의 총알을 장전하는 시간'이었으며, 존재 중심의 목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여정이었다.

2. 군선교 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아카데미의 지속성 확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의 군선교 현장을 회복시키고 아카데미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한다.

---

19) 양유성, 『이야기 치료와 목회상담』, 서울: 학지사, 2005, p. 115.

20) 헨리 나우엔 저, 윤종석 역, 『상처 입은 치유자』, 서울: 두란노, 2010, p. 118.

1) 사역자 '자기 돌봄(Self-care)' 프로그램의 제도화

군선교교역자들이 겪는 13가지 주제군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아픔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군선교 연합회는 사역자가 먼저 '안전한 대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리 상담 및 영성 지도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2) 현역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신실한 동반자 관계' 구축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강력한 치료적 요인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지지였다. 군 조직 내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사역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 정착되어야 한다.[21] 이를 위해 군단 및 사단급 단위에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과 연합 집단 상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3) 한국교회의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후원 확대

군선교교역자들은 '창끝부대'의 핵심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Minority)의 위치에 처해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군선교사'로서의 공식적인 파송과 예우에 관한 교단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4) '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의 지속적 운영과 확산

이번 1기 아카데미가 증명한 '서사적 전환'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표준 교육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강의 전 단계로 도입된 '이야기 마당'과 같은 정서적 지지 그룹 활동을 강화하여, 사역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21) Chris R. Schlauch, Faithful Companioning: How Pastoral Counseling He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p. 102.

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치유와 회복의 패러다임이 한국 군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고통받는 모든 사역자와 장병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희망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록 1) 군선교교역자 스트레스 경험 연구 결과

주제	주제군	범주
(1) 실패한 목회자라는 심리적 위축감	1) 왜곡된 외부적 평가로 인한 의욕 상실	1. 군선교교역자들의 스트레스의 원인
(2)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들이라는 비애감		
(3) 마지막 사역지라는 절박감		
(4)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초라함		
(5) 신뢰받지 못함에 대한 불쾌감		
(6) 민간목회자들과 비교에서 오는 부적절한 자기평가	2)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	
(7) 해외선교사들과 상대적인 대우에서 오는 소외감		
(8) 군종목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차별감		
(9) 담임목사직을 상실함에서 오는 슬픔	3) 제한된 신분과 역할로 인한 무기력 경험	
(10) 갑작스런 사역지 상실에서 오는 절망감		
(11) 65세 은퇴 규정에 대한 압박감		
(12) 공식적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움		
(13) 신분과 역할로 인한 제한된 목회 활동		
(14) 현역처럼 활동하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반감		
(15)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부담감	4) 열악한 목회적 환경에서 오는 총체적 압박	
(16) 열악한 재정 후원으로 생계에 대한 압박감		
(17) 장교(부사관) 신자들의 부족과 잦은 이동		
(18) 지휘관에 따라 유동적인 사역 환경		

(19) 군종목사의 통제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저항	5) 조직 구성원들과의 긴장된 갈등 구조	
(20) 세대차이 나는 병사들과 소통의 어려움		
(21) 군종병들의 일탈행동		
(22) 교회 제직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23) 군대를 선교지로서가 아니라 목회지로 이해함에서 오는 초기 사역의 갈등	6)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의 내면적 갈등	
(24) 민간목회에 대한 생각과 사역의 기쁨 사이에서 오는 갈등		
(25) 주중 사역을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26) 성과위주의 군선교 정책에 대한 실망		
(27) 공감적 설교에 대한 부담감		
(28) 장병들의 저조한 교회 출석		
(29) 타인이 알아볼 정도의 쇠약해진 모습이 나타남	7) 심리–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2. 군선교교역자들의 스트레스 증상
(30) 의도적으로 사람을 기피하게 됨		
(31) 자기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생김		
(32) 응집된 감정이 터질 것 같음		
(33) 한계를 경험할 때 군사역을 포기하고 싶음		
(34)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 같음		
(35)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함	8) 신앙적 회의로 인한 영혼의 침체	
(36) 군사역의 의미와 동기 상실로 소명에 대한 회의		
(37)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		
(38) 군종목사와 수평적인 우정의 관계	9) 신실한 동반자들 과의 영적 교제	
(39) 지휘관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40) 동료 그룹을 통한 영적 생활		
(41) 아내의 격려를 통해 소명 확인		
(42) 총회, 노회로부터의 관심과 후원		

(43) 변화되는 병사들로 인해 사역의 기쁨	10) 상호 교환적 목회 돌봄을 통한 정체성 확인	3. 군선교 교역자들의 스트레스의 치료적 요인
(44) 전역한 병사들에 대하여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보람		
(45) 신실한 간부 가족들과 형제애		
(46) '나는 목사다' 라는 정체성이 인내하게 함	11) 존재 중심의 목회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	
(47)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음		
(48)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감사		
(49) 적절한 자기 역할과 한계에 대한 수용적 인식	12) 군선교 현장에 대한 긍정적 상황 인식	
(50) 군선교 현장에 대한 공감적 이해		
(51) 고통을 체휼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림	13) 십자가 체휼 신앙을 통한 희망 경험	
(52)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함		

Abstract

A P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storal Narrative Transformation and Healing Experiences of Civilian Military missionary: Focusing on Participants of the Military Healing Ministry Academy

Nam Gi 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henomenologically explore the essence of healing and the structure of pastoral narrative transition experienced by military ministers and their spouses who participated in the "Military Healing Ministry Academy," and to qualitatively analyze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d the "13 theme clusters" of stress factors and therapeutic factors derived from the researcher's previous studies as a theoretical framework.

As for the research method, Colaizzi's 7-step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he research subjects were the autobiographical essays and workshop materials of nine participants from the first cohort of the academy. The essential themes of the experience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revealed their existential loss and limitations faced with a devastated ministry environment and physical illness. Second, through listening and hospitality, they re-awakened to the fact that they are "beings filled with love" and experienced emotional openness. Third, the "dominant narrative" of complacently relying on past successful experiences or methods was deconstructed and transformed into a new narrative. Fourth, a re-authoring of the narrative occurred, redefining the military from a "barren military mission field" into a "land of hope with healing and restoration." Fifth, they acquired

the 4-stage CARE model and secured practical competence as healing ministers.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process by which military ministers shift their pastoral paradigm from performance-oriented (Doing) to presence-oriented (Being) ministry, and proved that they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ir ministry by identifying themselves as "Wounded Heal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care" and emotional health of ministers are prerequisites for missional recovery in the crisis-ridden military mission field, and will provide crucial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future military mission policies and standardizing educational curricula.

Key Words

Military Minister, Narrative Transition, Colaizzi Phenomenology, Military Healing Ministry, Self-care, Wounded Healer

논문 기고자 Email

ankjesus@hanmail.net

일반논문

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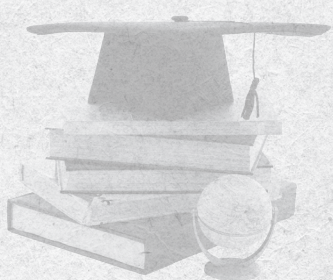
| 박형곤 |

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미래: 회중 찬양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전략

| 최용훈 |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 (Just Peacemaking Theory)"에 대한 이해와 평가

| 김이석 |



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A Mixed Methods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a Small-Group Spirituality Formation Program for New Believers in Minsitary Churches

» 박형곤 T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탈종교화 경향과 군 공동체라는 특수한 지리적·조직적 맥락 속에서, 군인교회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가족(배우자)과 여군간부를 위한 맞춤형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증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증적 연구 결과, 양적으로는 실험군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기 수용도, 타인 개방성, 심리적 안전감 수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p < .001$), 잦은 이사와 배우자의 부재로 유발되던 '이차적 고립감' 지수는 사전 3.82점에서 사후 1.95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도 참가자들은 수평적·비정죄적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교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한 줄 기도 저널 및 식탁 교제 등의 일상 예전을 통해 성령을 친밀한 동반자로 경험하였음을 고백하였다. 나아가 수료자의 72%가 부대 내 장병을 정서적·영적으로 돌보는 '기도어머니' 및 멘토로 거듭나는 영적 정체성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교리로의 정서적 접촉점(Interface)을 재설정함으로써 탈종교화 시대 청년층 사역을 위한 '소그룹 가교(Bridge)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신학적·목회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군종목사의 순환 보직 한계를 극복하고 평신도 리더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군선교 돌봄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실천적으로 기여한다.

중심단어

군선교, 군인교회, 소그룹 영성형성, 관계의 영성, 잠재적 공간, 예전적 습관, 기도어머니, 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2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0일

* 군종목사(72기), 육군 제52사사령부, 화살군인교회 담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현대 한국 사회는 제도권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탈종교화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무종교인 비율은 2005년 45%에서 2015년 56%,[1] 2021년에는 60% 내외로 지속적인 증가[2]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19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층 내 무종교인 비율은 약 78%에 달한다.[3] 그러나 청년세대의 탈종교화가 종교나 초월적 가치 자체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기존 교단의 제도적 구속이나 정형화된 교리에는 반감을 가질지라도, 템플스테이, 순례길 탐방,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정을 모색하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4]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세대적·사회적 변화는 청년층이 집중된 군 공동체 및 군인교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부의 '군종온더블록' 종교소개교육 설문 결과[5]에 따르면, 장병의 83%가 삶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89%가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높은 잠재적 관심에도 불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자료(https://kostat.go.kr)

2) 한국갤럽 민간조사에서 2021년 무종교인 비율 60% 내외로 발표(www.gallup.co.kf)

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자료(2022년 조사)(https://mhdata.or.kr)

4)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7.

5) 2021년 11월 2일 군 장병을 위한 4대 종교 온라인 군종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CBS뉴스] "군 장병 위한 4대 종교 '온라인 군종 콘서트'" 이것을 롤모델로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두 개의 전방 사단을 선정해서 2024년에 10회분의 예산을 내려 교육을 진행하게 됨.

구하고 실제 군인교회 정착률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교회에 출석한 병사의 40%가 단 1회 방문 후 참석을 중단하며, 30%는 5회 미만 출석에 그치는 등 극심한 영적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소그룹에서 '기도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할 군인가족(배우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의 군인가족 역시 90% 이상이 신앙 연수가 짧은 초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교회 내 전문 사역자의 부재 속에서 영적 기초가 미흡한 군인가족이 리더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소그룹 모임이 단순 친교 수준에 그치거나 리더 스스로 영적 이중고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적·수직적 구조가 지배적인 군 환경 내에서 수평적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도널드 위니컷(D. W. Winnicott) 개념의 '잠재적 공간(Potential Space)[6]'으로서의 소그룹과, 이를 뒷받침할 '관계의 영성' 체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탈종교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군인교회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가족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3주간의 임상 과정을 거쳐 그 효과성을 양적·질적 혼합연구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

---

6) 잠재적 공간(Potential Object)은 '이행 대상'이 존재하는 심리적 영역이자, 창조성과 문화 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적 개념이다. '내면의 주관적 현실'과 '외면의 객관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이다.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London: Tavistok Publications, 1971), 97-103 (Chapter2 "The Location of Culture of Experience").

음과 같다.

첫째, 현상 분석 단계로서 탈종교 시대 초신자 군인가족의 종교적 특성과 영적 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진입 시 느끼는 염려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이론적 토대 구축 단계로서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관계의 영성'[7],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의 '습관과 예전'[8], 루이스 램보(Lewis Rambo)의 '회심 7단계 모델'[9]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소그룹 영성형성 모형의 신학적·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실천 및 검증 단계로서 개발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참여자들의 영성 및 공동체 의식 변화를 통계적·질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목회적 모델과 후속 멘토링 체계를 제안한다.

3.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실증적 조사,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라는 삼차원적 구조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탈종교화 현상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고 관계의 영성 및 소그룹 공동체에 관한 신학적·심리학적 이론을 정립한다. 이어 실증 및 실천 연구 단계에서는 군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담 분석을 바탕으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전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증한다.

---

7) Leonard Sweet,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Gettion Lost in the Godlife Relationship*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4), 105-202.

8) James K. A. Smith,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16), 42-57.

9) Lewis R. Rambo,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1-25 (Chapter 1 The Process of Conversion).

본 연구의 공간적·인적 범위는 대한민국 군 공동체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 여군간부, 그리고 군인가족(배우자)으로 한정한다. 잦은 이사와 독박 육아, 배우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차적 고립'을 경험하는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이들이 영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먼저 양육되어 향후 병사들을 돌보는 선순환적 영적 돌봄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탈종교 시대(Post-religious era): 제도권 종교의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명상이나 인문학 등 비제도적 방식을 통해 영적 만족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군종온더블록(Gun-Jong on the Block):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추진한 퀴즈 및 토크쇼 형태의 종교소개교육 프로그램으로, MZ세대 장병들의 종교적 관심을 유도하고 소그룹 유입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무종교인(Religiously Unaffiliated):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영적 경험, 사회적 가치, 삶의 의미 탐색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보이는 다층적 성향의 개인을 가리킨다.

관계의 영성(Relational Spirituality): 일방적인 교리 지식 전달을 넘어 하나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이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성령을 '친밀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10)]

---

10) 김홍근, 『관계』 (서울: 눈, 2019), 113-139.

소그룹(Small Group): 10~13명 규모로 구성되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단위이다. 수직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수평적 관계와 삶의 나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은 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단편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자아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전인적 과정을 의미한다.[11)]

예전 공동체(Liturgical Community): 반복적인 영적 습관과 실천(예전)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재교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신앙적 세계관을 삶의 현장에서 재형성해 나가는 공동체[12)]를 뜻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탈종교화 시대와 한국 사회의 영적 지형 변화

1) 탈종교화 현상과 MZ세대의 영성

현대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Post-religious era) 현상은 단순한 신앙의 소멸이나 완전한 세속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세속화 이론의 전통적 예측과 달리,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교단의 통제적·수직적 구조나 정형화된 교리 체계로부터 탈피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개별적·경험적 종교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9세에서 26세에 이르는 MZ세대의 경우 무종교인 비율

11) Larry Crabb, *Connection: Healing Ourselves and Ours Relationships* (Nasjiville, TN: W Publishing Group, 1997), 202-227.

12) Gorden T. Smith, *Beginning Well: Group Spiritual Direction for Form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2), 83-120, (Chapter 3 The Evangelical Experience: A Historical Perspective).

이 78%에 달할 정도로 제도권 종교에 대한 이탈이 뚜렷하다.[13] 그러나 이들은 영적 안녕과 삶의 의미 탐색에 대해 완전한 폐쇄성을 보이기보다는, 템플스테이, 명상, 순례길 탐방, 인문학적 모임 등 비제도적·체험적 방식을 통해 심리적 안식과 초월성을 추구하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14]

2) 군인교회의 영적 미스매치와 사역적 한계

이러한 세대적 영적 지형의 변화는 청년층이 밀집된 군 공동체 내 군인교회 사역에도 지대한 영향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방부의 '군종온더블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년 장병의 절대다수(83%)는 일상에서 종교나 영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잠재적인 구도(求道)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5]

그러나 실제 군인교회 출석 장병의 정착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다수의 장병이 단발성 출석에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16] 이는 기존 군인교회가 제공해 온 대형 집회 위주의 예배 구조, 교리 주입식 전달 방식, 그리고 강요된 신앙 정체성이 청년 세대의 수평적·관계적 문화와 맞닿지 못한 '영적 미스매치(Spiritual Mismatch)'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

13)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종교 현황, 조사 기간: 2021년 3월 18일~4월 7일, 조사 결과: 연령별 무종교인 비율 중 19-29세는 78%로 가장 높게 나타남(https://gallup.co.kr).

14) 지용근, 김영수, 정재영 외 7인, 『한국교회트렌드2023 2장 SBNR』 (서울: 규장, 2022), 40-75.

15) 2024년 군종온더블록 교육을 A사단에서 10개 부대 16회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얻은 결과.

16) 2024년 A사단에 1-6월에 A사단에 자대배치 받은 병사와 6월에 임관한 초급간부를 추적하여 얻은 A사단에 국한된 결과임.

2. 군인가족 및 여군간부의 삶과 소그룹 공동체

1) 군인가족의 환경적 특수성과 '이차적 고립'

군인교회의 영적 생태계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장병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군인가족(배우자) 및 여군간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인가족은 잦은 관사 이사, 오지 근무, 배우자의 빈번한 훈련 및 비상대기로 인한 독박 육아와 심리적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이는 지역사회 및 기존 관계망으로부터 분리되는 '이차적 고립(Secondary Isolation)'을 초래한다.[17]

이러한 환경적 불안정성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소속 교회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신앙적 아노미(Anomie)를 유발한다. 나아가 군인교회 내 전문 사역자의 부재 속에서 영적 기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초신자 군인가족들이 소그룹 리더로 투입됨에 따라, 이들이 영적·정서적 이중고를 겪는 목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기도어머니'로서의 영적 동질성과 선순환 구조

장병들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정서적·환경적 동질성을 지닌 군인가족이 먼저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양육받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군인가족과 여군간부가 소그룹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영적 회복을 경험할 때, 이들은 장병들을 정서적·영적으로 돌보는 '기도어머니'이자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군인교회 전체의 돌봄 생태계를 재건하는 선순환적 기틀이 된다.

3. 관계의 영성과 소그룹 영성형성의 신학적·심리학적 기초

---

17) 박영숙,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 비교」, 『여성간호학회』 제1권 1호 (1995): 68-80.

1)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관계의 영성'

명제적 교리 지식의 전달에 치중했던 전통적 교육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레너드 스윗의 '관계의 영성(Relational Spirituality)'을 주요 신학적 토대로 삼는다.[18] 스윗에 의하면 참된 영성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인격적·실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성령을 단순한 초자연적 권능의 주체가 아닌 일상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함께 거니는 '친밀한 동반자(Companion)'로 인식할 때, 무종교인과 초신자는 종교적 중압감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2) 도널드 위니컷(D. W. Winnicott)의 '잠재적 공간'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도널드 위니컷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잠재적 공간(Potential Space)' 개념을 소그룹 구조에 적용한다. 위니컷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계급적 위계구조와 수직적 엄숙성이 지배하는 군 조직 내에서, 소그룹 모임은 어떠한 정죄나 평가 없이 존재 자체로 수용받는 수평적 '잠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신앙적·정서적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

3)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의 '습관과 예전'

영성형성의 실천적 방법론으로는 제임스 K. A. 스미스의 '습관과 예전(Habit & Liturgy)' 이론을 도입한다. 스미스는 인간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사고하는 존재(Thinker)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사랑

18) Leonard Sweet,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Gettion Lost in the Godlife Relationship*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4), 196

하는 존재(Lover)로 규정한다. 세속 문화가 형성하는 왜곡된 욕망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내에서 말씀 묵상, 삶의 나눔, 기도, 식탁 교제 등의 신앙적 실천을 일상적 '예전(Liturgy)'으로 반복해야 한다.[19] 이러한 몸의 습관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조정(Re-calibration)된다.

4) 루이스 램보(Lewis Rambo)의 '회심 7단계 모델'

마지막으로 무종교인 및 초신자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고 안내하기 위해 루이스 램보의 '회심 7단계 모델(Conversion Model)'을 적용한다. 램보는 회심을 단회적·결단적 사건이 아닌 맥락(Context)→위기(Crisis)→탐색(Quest)→만남(Encounter)→상호작용(Interaction)→헌신(Commitment)→결과(Consequences)로 이어지는 역동적 동인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모델은 소그룹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영적 성장 단계에 맞춘 세심한 정서적·영적 필터링을 제공하도록 돕는 구체적 이정표가 된다.

4. 이론적 틀의 통합 및 소그룹 영성형성 모형의 당위성

종합하건대, 본 연구는 스윗의 관계의 영성을 영적 지향점으로, 위니컷의 잠재적 공간을 정서적 안전 장으로, 스미스의 예전적 습관을 일상적 실천 도구로, 그리고 램보의 회심 모델을 단계별 성장 과정으로 융합적 체계화를 이룬다.

탈종교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군 환경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무종교인과 초신자 군인가족이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신앙의 일상적 습관을 형성하고 인격적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소그

19) John Mark Comer,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How to Stay Emotionally Healthy and Spiritually Alive in the Chaos of the Modern World* (New York: WaterBrook, 2019), 45.

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증은 신학적·목회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방법 및 한계

1. 연구 설계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탈종교화 시대 군인교회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 가족을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채택한다.[20] 단일 연구방법론이 가질 수 있는 인식론적·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 수치와 정교한 맥락적 서술로 동시에 입증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학문 패러다임에 기반한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적용한다.

본 연구의 전체 임상 및 조사 과정은 총 13주에 걸쳐 추진된다. 사전 단계(1주차)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선발, 연구 윤리 동의 절차 수행, 사전 양적 설문조사 및 기초 심층 면담이 진행된다. 실행 및 임상 단계(10주차)에서는 개발된 10차시 분량의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주 1회 적용하며, 참가자들은 나눔과 식탁 교제, 말씀 묵상, 기도 저널링 등의 예전적 습관을 실천한다. 끝으로 사후 단계(2주차)에서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 사후 양적 설문조사와 성찰록 분석,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양적 변화 결과 뒤에 숨겨진 정서적·영적 역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20) 존 크레스웰. 「연구방법: 질적·양적 및 혼합연구의 설계」, 정종진, 김영숙, 류성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22), 31-58.

2.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공간적·인적 범위는 대한민국 군 공동체 내 군인교회에 출석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가족(배우자)과 여군간부로 한정한다. 여기서 '초신자'는 개신교 입문 3년 이내의 자, 신앙의 기본 개념 정립이 필요한 자, 혹은 특정 종교는 없으나 군인교회 소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구도자를 포함한다.

군 환경의 특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표집 기법은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과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병행한다. 실험군(소그룹 프로그램 참여자)은 정서적 안정감과 소그룹 내 수평적 관계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4명 단위로 분반하여 총 12명 규모로 구성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효과성의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군인교회 출석자 집단을 대조군으로 선출하여 상호 비교를 수행한다.

3. 자료 수집 도구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상호 보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관계의 영성, 예전적 습관, 잠재적 공간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다. 주요 측정 지표는 '관계적 영성 척도(Relational Spirituality Scale)', '공동체 의식 척도(Sense of Community Index)', 그리고 군인 생활 및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안녕감 및 이차적 고립감 척도'이다. 해당 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직전(Pre-test)과 10주 차 프로그램 완료 직후(Post-test)에 동일하게 실시된다.

둘째, 질적 자료 수집은 사전·사후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s) 및 집단&개인 면담(FGI)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무종교인과 초신자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문턱의 변화, 정서적 회복, 영적 성장의 구체적 고백을 수집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매주 작성한 기도 저널, 말씀 묵상 성찰록, 그리고 연구자 및 소그룹 리더의 관찰 일지를 정성적 분석 자료로 통합 수집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양적 및 질적 자료는 연구 질문에 적합한 통계 및 해석학적 기법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된다.

양적 데이터 처리에는 SPSS/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시작으로,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검증한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성숙도 및 공동체 의식 변화를 입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또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적용한다.

질적 데이터 분석은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 6단계(Thematic Analysis)를 적용한다. 녹음 전사본과 성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초기 코드를 추출하고, 이를 '고립에서 연대로의 전환', '교리적 중압감 해소', '일상의 예전화' 등 핵심 주제로 범주화한다. 마지막으로 양적 결과와 질적 데이터, 연구자 관찰 일지를 다각도로 상호 검증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거침으로써 연구 해석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5. 연구 윤리 및 타당성 확보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엄밀성을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비밀보장, 무기명 데이터 처리, 학술 목적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언제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서면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자발적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한다.

질적 연구의 학술적 신뢰성과 타당성(Trustworthiness)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된 결과가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재확인하는 참여자 검증(Member Checking)을 수행한다. 또한 군인교회라는 특수한 조직적·공간적 맥락을 상세히 서술(Thick Description)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타 유사 환경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높인다.

6.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군인교회 사역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학술적·환경적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표집의 한계 및 결과 일반화의 난제이다. 본 연구는 군 공동체라는 특수한 지리적·환경적 여건 속에서 유의 및 편의 표집을 진행하였으므로, 도출된 결과를 일반 민간 교회의 소그룹 환경이나 한국교회 전체로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군 환경 특유의 외생 변인 통제의 어려움이다. 13주간의 임상 기간 중 대상자 배우자의 야외 훈련, 비상근무, 갑작스러운 부대 이동 및 관사 이사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적 요인이 참여 지속성과 측정 데이터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응답의 편향 가능성이다. 양적 설문 및 질적 저

널 작성 시, 참가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소그룹이나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장기적 추적 조사(Longitudinal Study)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13주간의 단기·중기적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신앙 습관의 지속성과 군 장병을 향한 '기도어머니' 및 멘토 역할로의 실질적 전이 효과를 장기 추적·관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제4장 실증적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1. 군인 공동체 실태 분석 및 욕구 조사 결과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군인교회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가족(배우자)과 여군간부의 영적·정서적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84%가 잦은 관사 이사와 남편의 야외 훈련, 비상근무, 오지 생활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고립감'과 독박 육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적 배경이 취약한 초신자 및 구도자 군인가족의 76%는 기존 군인교회의 대예배 중심 구조, 교리 주입식 전달, 즉각적인 신앙 고백 및 과도한 봉사 권유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89%는 정죄나 평가가 배제된 수평적 모임에서 자신의 삶과 고민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소그룹 활동에 강한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국방부 '군종온더블록' 설문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청년 장병 및 군인가족의 절대다수(83%)는 삶의 위기나 고립 상황에서 영적 안식과 초월적 안녕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정착률이 30% 수준에 그치는 까닭은 이들의 비제도적·경험적 영성 탐색 욕구를 군인교회의 본질적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줄 '정서적·관계적 가교(Bridge) 프로그램'이 부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개발 원리

실태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신학적·심리학적 이론 틀을 결합하여, 무종교인과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의 핵심 개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잠재적 공간(Potential Space)'의 원리이다. 수직적 계급 구조와 교리적 중압감을 배제하고, 어떠한 삶의 정황이나 의문도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조성한다.

둘째, '관계의 영성(Relational Spirituality)'의 원리이다. 명제적 교리 학습을 지양하고, 성령을 일상의 외로움을 함께 거니는 친밀한 동반자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타인,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셋째, '예전적 습관(Liturgical Habit)'의 원리이다. 단발성·감정적 결단에 의존하기보다 감사 고백, 한 줄 기도 저널, 식탁 교제 등 일상에서 작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몸짓을 습관화한다.

넷째, '단계적 회심(Conversion Journey)'의 원리이다. 루이스 램보의 모델을 준용하여 참가자가 '맥락 상환→경계 허물기→관계 형성→일상 속 하나님의 임재 발견→공동체적 연대'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 10차시 소그룹 영성형성 커리큘럼의 구조와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 차시는 '도입(Inquiry) - 말씀과 나눔(Interaction) - 예전적 실천(Practice) - 식탁 및 기도(Fellowship)'의 4단계 구조로 전개된다.

1차시(환대: 안전한 포구로의 초대)는 수직적 평가와 계급적 명찰을 내려놓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비밀보장 약조와 함께 수평적 모임의 규칙을 설정하여 위니컷적 '잠재적 공간'을 형성한다. 2차시(경청: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군 생활 및 육아 과정에서 누적된 일상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정죄 없이 터놓으며 정서적 수용을 경험하는 위기(Crisis) 극복 단계이다. 3차시(동행: 외로움 속의 친밀한 동반자)는 레너드 스윗의 신학에 기초하여 성령을 삶의 친밀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영적 탐색(Quest)을 시도한다. 4차시(성찰: 쉼과 자아의 발견)는 '군인의 아내'나 '간부'라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True Self)를 마주하는 만남(Encounter)을 도모한다.

5차시(스토리: 나의 삶, 하나님의 이야기)는 굴곡진 삶의 궤적을 간단한 인생 그래프로 그려보며 그 안에 숨겨진 신적 은혜의 손길을 재해석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단계이다. 6차시(습관 I: 일상 속 작은 예전) 및 7차시(습관 II: 기도 저널과 마음 놓아드리기)는 제임스 스미스의 예전론을 적용하여 Daily 감사 고백, 식탁 교제, 한 줄 기도 저널링 등 삶의 정서를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재조정(Re-calibration)하는 헌신(Commitment)을 실습한다. 8차시(용서와 화해: 얽힌 관계 풀기)는 군 생활 및 가정 내의 얽힌 관계적 상처를 십자가 사랑에 비추어 성찰하고 치유한다.

9차시(연대: '기도어머니'로서의 부르심)는 개인의 영적 회복을 넘어 타인과 군 장병을 정서적·영적으로 돌보는 멘토로서의 시선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끝으로 10차시(파송: 일상과 군 파송의 삶)는 10주간의 영적 성찰을 공유하고, 일상으로의 선교적 파송과 지속 가능한 후속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는 결과(Consequences)의 단계로 마무리된다.

4. 소그룹 운영 매뉴얼 및 리더 양성 가이드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그룹 내부의 정서적 안전망 구축 규칙과 리더 지원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였다.

첫째, 엄격한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을 원칙으로 하여 모임 내 나눔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둘째, 조언 및 교리적 평가 금지(No Unsolicited Advice) 규칙을 도입하여, 타인의 신앙 상태나 삶에 대해 함부로 충고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경청과 공감에 전념하도록 한다. 셋째, 남편의 계급이나 군대 내 신분에 따른 수직적 호칭을 금지하고, 수평적·인격적 호칭(~님, 자매님 등)을 전면 사용하여 평등한 관계적 영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영적·정서적 기초가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초신자 리더가 경험할 수 있는 사역적 이중고를 방지하기 위해, 리더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Teacher)가 아닌 나눔의 조력자(Facilitator)로 재정의하였다. 나아가 전문 사역자 및 선배 리더와의 '주간 리더 코칭 및 멘토링 체계'를 상시 가동함으로써, 매차 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리더 자신의 정서적·영적 돌봄이 선행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제5장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신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12명(4개 소그룹)과 일반 대예배에 출석하는 대조군 34명, 총 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군인가족(배우자) 및 여군간부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여 청년층 중심의 인적 구조를 보였다. 관사 거주 비율은 91.4%로 압도적이었으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관사 이사를 경험한 비율이 77.1%에 달해 환경적 이동성과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신앙적 배경 측면에서는 개신교 입문 3년 이내의 초신자가 62.9%, 무종교 상태에서 참가한 구도자가 37.1%를 차지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참여자 다수는 잦은 이사와 배우자의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이차적 고립감'(평균 3.82/5.00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으며, 기존 군인교회의 대예배 중심 구조와 교리적 강요에 대해 심리적 문턱과 부담감(평균 4.10/5.00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적 효과 검증

10주간의 프로그램 적용 전(Pre-test)과 적용 후(Post-test)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및 대조군과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영성(Relational Spirituality)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승이 관찰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수치는 사전 평균 2.14점에서 사후 평균 4.08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t = -9.84$, $p < .001$), 성령을 엄격한 주관자가 아닌 일상의 친밀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영적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자기 수용도(2.45점

\rightarrow 4.21점)와 타인에 대한 정서적 개방성(2.30점 \rightarrow 4.15점) 역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공동체 의식 및 심리적 안전감 지수는 사전 평균 2.28점에서 사후 평균 4.35점으로 상승하였다($p < .001$). 특히 위니컷의 개념을 적용한 '정서적 안전감 및 비정죄 인식' 항목은 사후 4.62점으로 전체 측정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수평적 소그룹 구조가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용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하였다.

셋째, 정서적 안녕감 및 이차적 고립감의 변화이다. 군 환경 및 육아 과정에서 느끼는 이차적 고립감 지수는 사전 3.82점에서 사후 1.95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t = 8.76$, $p < .001$). 반면, 별도의 소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일반 대예배 출석자)은 사전-사후 간 영성 성숙도 및 고립감 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p > .05$), 본 프로그램의 독립적 효과성이 명확히 검증되었다.

3. 질적 효과 검증 (주제 분석)

참여자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기도 저널, 성찰록, 연구자 관찰 일지를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 6단계로 해석한 결과, 다음 4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평가와 중압감의 공간'에서 '수평적 안식의 잠재적 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참가자들은 기존 교회의 평가적 시선에서 벗어나 정죄 없는 수평적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경험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내 안의 우울함과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아무도 교리적으로 정죄하지 않는 안전함을 느꼈다"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외로운 세속 삶'에서 '동반자 성령과 관계의 영성'으로의 확장]이다.

명제적 교리 지식의 습득이 아닌, 일상의 외로움 속에서 함께 거니시는 성령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재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관사 생활의 고립감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신앙적 탐색(Quest)의 계기였음을 재해석하게 되었다.

셋째, ['감정적 결단'에서 '일상의 예전적 습관'으로의 정착]이다. 매일 작성하는 한 줄 기도 저널, 식사 시간을 활용한 식탁 교제, 하루 한 가지 감사 고백 등 작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일상의 정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조정(Re-calibration)되는 경험을 하였다.

넷째, ['돌봄을 받는 자'에서 '장병과 공동체를 돌보는 기도어머니'로의 영적 정체성 확장]이다. 자신의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면서 소그룹 수료자의 72%가 향후 군인교회 내 장병 멘토링 및 '기도어머니' 중보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영적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종합 논의 및 삼각검증 (Triangulation)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해석을 종합 비교하는 삼각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적 데이터에서 나타난 통계적 수치 상승은 질적 면담과 성찰록에 나타난 정서적 수용 및 습관 형성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이는 위니컷의 잠재적 공간이 초신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필수 정서 장치가 되며, 스윗의 관계의 영성과 스미스의 예전론이 탈종교화 시대 청년층의 신앙 형성을 이끄는 유효한 동력이 됨을 실증한다. 나아가 램보의 회심 모델이 제시하는 '위기(Crisis)→탐색(Quest)→만남(Encounter)→상호작용(Interaction)→헌신(Commitment)→결과(Consequences)'의 단계적 성장이 군인교회 소그룹 현장에서 성

공적으로 작동하였음을 학술적으로 입증한다.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종합

본 연구는 탈종교화 시대라는 시대적 지형 변화와 군 환경이라는 공간적·조직적 특수성 속에서, 무종교인 및 초신자 군인가족(배우자)과 여군간부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증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 공동체 내 무종교인 및 초신자의 정서적·영적 실태를 규명하였다. 군인가족과 여군간부는 잦은 이사와 오지 근무, 배우자의 야외 훈련 및 비상 대기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이차적 고립감'과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군인교회의 대예배 중심 구조, 교리 주입식 전달 방식, 과도한 봉사 권유는 이들에게 심리적 중압감과 문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정죄 없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그룹에 대한 구도자적 니즈는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학제적 이론적 기틀을 융합하여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다. 레너드 스윗의 관계의 영성을 통해 명제적 교리 지식 전달을 넘어 하나님, 타인,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였고, 도널드 위니컷의 잠재적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정죄와 평가가 배제된 '안아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제임스 K. A. 스미스의 예전과 습관 이론에 입각하여 기도 저널, 감사 고백, 식탁 교제 등 일상 속 작고 반복적인 신앙 습관을 정착시켰으며, 이를 루이

스 램보의 회심 7단계 모델과 결합하여 단계적 영성 성장의 이정표를 완성하였다.

셋째,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증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10주간의 임상 적용 결과, 양적으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기 수용도, 타인에 대한 정서적 개방성, 공동체 의식 전 전반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p < .001$), 이차적 고립감 지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질적 주제 분석에서도 참가자들은 교리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식과 일상의 거룩화를 경험하였으며, 나아가 부대 내 장병과 타인을 정서적·영적으로 돌보는 '기도어머니' 및 멘토로 영적 정체성이 확장되는 선순환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2. 신학적 및 목회적 의의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립된다.

학술적·신학적 측면에서는 명제적 교리 전달 중심의 전통적 Christian Education 모형에서 벗어나, 관계성 중심과 몸의 습관을 강조하는 현대 신학적 논의들이 한국 군인교회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회심을 단회적·결단적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 안안감과 일상적 습관이 어우러지는 연속적 동인 과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탈종교화 시대 청년층 영성형성에 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

목회적·사역적 측면에서는 단발성 출석과 대형 집회 위주 사역으로 정착률 저하를 겪던 군인교회에 무종교인과 초신자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서적·관계적 '소그룹 가교(Bridge)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군인가족을 단순한 '사역의 대상'이나 '봉사 자원'으로 소

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장병들을 품는 '기도어머니'이자 멘토로 세우는 지속 가능한 목회 생태계를 재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사역 현장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교회 소그룹 매뉴얼 및 리더 양성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군종목사 및 사역자 교체가 빈번한 군 구조 속에서도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소그룹 커리큘럼과 리더 코칭 매뉴얼을 국방부 군종 라인 및 각 교단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수평적·인격적 소그룹 문화의 확산이다. 계급과 남편의 신분이 영적 공동체에까지 계급화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조언 금지, 수평적 호칭 사용 등 소그룹 운영 규칙(Rules of Engagement)을 군인교회 전반의 사역 원리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후속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10주간의 단기·중기적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므로, 향후 1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신앙 습관의 지속성과 군 장병을 향한 '기도어머니' 및 멘토 역할로의 실질적 전이 효과를 장기 추적·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4. 본 논문을 통한 향후 활용 전망

본 소그룹 프로그램이 단순히 '군인가족(배우자)'의 정서 회복에 그치지 않고, 초급 여군간부 및 초급간부 가정을 군 공동체 내에 연착륙시키는 강력한 정서적·영적 안전망(Holding Environment)으로 기

능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군인교회 구성원과의 갈등 방지 전략도 필요하다. 무종교인과 초신자를 위한 수평적·비정죄적 소그룹이 기존 군인교회의 헌신된 전통적 성도들(중진 간부 및 기존 교인)과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대예배와 본 소그룹 간의 '이중 트랙(Two-Track) 목회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감시자'가 아닌 '기도어머니' 및 '돌봄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교리적 경직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군종목사의 순환 보직(1~2년 단위)은 군 사역의 가장 큰 약점은 사역자(군종목사)의 연속성 결여로 나타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이 군종목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평신도 리더(군인가족 수료자) 중심의 자율적 모임으로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민간교구(군선교연합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군 소그룹 영성형성 매뉴얼'의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추진 한다면 실천적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10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혹은 타 부대로 이사를 간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한 줄 기도 저널'이나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일상 예전이 유지되고 있는 후속 관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종단 연구(Longitudinal Follow-up Study)'를 향후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여 본 연구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회심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위니컷의 대상관계이론이나 심리적 안전감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기독교 영성형성이 아닌 단순 심리 상담이나 치유 모임에 그친 것 아닌가?"라고 보수적 신학자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위니컷의 '안아주는 환경'은 정서적 문턱을 낮추는 '수단(Pre-evangelism/Interface)'일 뿐이며, 궁극적 목적은 제임스 스미스의 '예전적 습관'과 레너드 스윗의 '인격적 성령과의 만남'을 통한 실질적 신앙 형성에 있음을 말하고 싶다.

"본 연구는 탈종교화 시대 군 현장에서 무종교인과 초신자가 정죄 없이 안식할 수 있는 '정서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상의 예전과 관계적 영성을 통해 군 공동체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평신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전공(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등)의 신학 및 교육학 학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직신학과 기독교교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심리적 안전감과 수평적 수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기독교의 핵심인 '죄관(sin)'에 대한 회개나 교리적 엄밀성이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리를 부정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들어가는 '정서적 접촉점(Interface)'을 재설정하는 작업이다. 탈종교화 시대 무종교인과 초신자는 아직 교리적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영적 준비(Pre-evangelism)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

루이스 램보(Lewis Rambo)의 회심 모델에서도 '위기'와 '탐색' 단계에서는 정서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의 10주 커리큘럼이 후반

부(7~10주차)로 갈수록 일상의 예전과 성령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성화(Sanctification) 및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목회상담학과 기독교심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위니컷의 '안아주는 환경'이나 '잠재적 공간'은 영유아기 정신분석학적 개념인데, 성인 군인가족의 영성형성에 적용하는 데 신학적·학문적 비약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서적 취약성은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특히 군 환경이라는 '환경적 고립' 상황에서 위니컷의 개념은 영성적 안식처로 유효하게 작동한다. "위니컷의 발달심리학적 개념"은 현대 목회상담학(권수영, 정석환 등)에서 이미 공동체적 돌봄의 이론적 틀로 널리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관사 생활, 잦은 이사, 배우자의 비상근무 등으로 '정서적 고립'을 겪는 군인가족은 환경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아의 정서적 기틀이 흔들리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정죄 없는 소그룹은 위니컷이 말한 '심리적 안전지대' 역할을 하여, 스스로의 우울과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재탐색(Quest)하게 만드는 영적 토대가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10주라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양적 지표(하나님과의 관계성, 고립감 감소 등)가 급격히 변한 것은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 관심에 의한 일시적 변화)'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단발성 정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몸의 습관을 형성하는 '예전(Liturgy)' 구조를 결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단기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명적 순차 혼합연구(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채택했다. 단순히 인지적 교육이나 일시적 정서 나눔에 그치지 않고,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의 이론에 기초하여 '한 줄 기도 저널', '하루 한 가지 감사', '식탁 교제' 등 일상의 물리적·신체적 습관을 매일 반복하도록 강제하는 예전적 장치를 포함시켰다.

질적 데이터(FGI, 저널 분석)를 삼각검증(Triangulation)한 결과, 변화의 동인이 단순한 관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일상 행동 양식의 재조정(Re-calibration)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다.

실천신학 및 군선교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군 사역 현장은 군종목사의 순환 보직(1~2년)으로 사역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모델이 사역자 교체 후에도 지속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리더(군인가족 수료자) 중심의 자율 생태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군종목사가 설교하고 이끄는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는 '조력자(Facilitator)'로 존재하고 소그룹 자체는 매뉴얼화된 규범(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평신도가 주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군목회자의 양육사역에서 교리나 사역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없도록 개인 경건 영성훈련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0주 과정을 수료한 군인가족이 다음 기수의 리더나 '기도 어머니'로 선순환 참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담당 군종목사가 이동하더라도 군인교회 내 평신도 돌봄 공동체로서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역사신학자들과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을 통해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소그룹 모델이 전통적인 군인교회의 위계적 구조나 기존 교인들과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은 전통 구조와의 대립이 아닌, 교리적 경직성을 완화하는 '투

트랙(Two-Track) 목회적 보완' 모델이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집(Oikos) 모임' 역시 기존의 유대교적 위계 구조 속에서 수평적 펠로우십을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본 소그룹은 기존 군인교회의 대예배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종교인과 초신자가 교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서적 문턱을 낮춰주는 '소그룹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이 소그룹을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정서적으로 품어주는 '영적 멘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체질을 수평적·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초신자·구도자의 문턱을 낮추는 입문용 영성형성'에 집중된 연구임을 명확히 한계지어, 신학적 논쟁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기초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심리학(위니컷)-영성신학(스윗)-예전학(스미스)-회심론(램보)을 통해 서로의 이론을 보완하며 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

부록 1. 10주간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및 리더 가이드

1) 회심 단계 및 이론 연계 커리큘럼 개요

1주차 [관계의 시작]: '나'와 하나님의 만남(위니컷: 정죄 없는 안아주는 환경 / 램보: 맥락 및 위기)

2주차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넘어선 사랑(스윗: 관계의 영성)

3주차 [내 안의 우울과 고립]: 솔직한 감정의 토로(위니컷: 잠재적 공간)

4주차 [성령님과 거닐기]: 일상 속 동반자 성령 인식(스윗: 인격적 상호작용 / 램보: 만남)

5주차 [일상의 습관 1]: 한 줄 기도 저널 쓰기(스미스: 예전적 습관)

6주차 [일상의 습관 2]: 감사 고백과 식탁 교제(스미스: 몸의 신앙 형성)

7주차 [상처의 재해석]: 군 생활 및 이사 고통의 의미 발견(램보: 상호작용 및 재구조화)

8주차 [공동체성 회복]: 수평적 경청과 정서적 연대(위니컷: 안전망 구축)

9주차 [영적 정체성]: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로(램보: 헌신)

10주차 [파송과 순환]: 장병 멘토 및 '기도어머니'로서의 결단(램보: 결과 / 스윗: 관계의 확장)

2) 소그룹 모임 운영 규칙 (Rules of Engagement)

비밀보장: 소그룹 안에서 나눈 개인의 사연, 가정사, 군 생활의 고충은 모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조언 및 평가 금지: 상대방의 고백에 대해 성급한 성경적/교리적 조언이나 정죄를 하지 않으며, 정서적 공감과 안아주는 언어로 반응한다.

수평적 호칭: 계급이나 남편의 직책에 따른 위계 문화를 배제하고, 인격적·수평적 호칭(예: '~님')을 사용한다.

부록 2. 사전·사후 양적 검증 설문지(Quantitative Survey Instruments)

1) 관계적 영성 척도(Relational Spirituality Scale)

하나님과의 관계성(5문항): "나는 성령님을 나의 일상 속 친밀한 동반자로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가 아닌 나를 수용하시는 분으로 인지한다" 등(Likert 5점 척도).

자기 수용도 및 타인 개방성(5문항): "나는 나의 솔직한 정서적

취약성을 공동체에 드러낼 수 있다", "나는 타인의 신앙적 방황을 정죄하지 않는다" 등.

2) 공동체 의식 및 심리적 안전감 척도(Psychological Safety Scale)
정서적 안전감(5문항): "이 모임에서는 내 우울이나 속마음을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다", "나는 이 공간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낀다" 등.

3) 이차적 고립감 척도(Secondary Isolation Scale)
고립감 및 스트레스(5문항): "잦은 이사와 배우자의 비상근무로 인해 정서적 고립감을 느낀다", "군인교회 출석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 등.

부록 3. 질적 연구 자료 수집 양식 및 평가지(Qualitative Evaluation Tools)

1) 한 줄 기도 저널(Daily One-Line Prayer Journal) 양식
일자 / 일상의 사건 / 성령님을 향한 한 줄 기도 / 오늘의 감사 고백

2) 포스크 그룹 인터뷰(FGI) 질문지
Q1. 본 소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군인교회 대예배 및 신앙생활에 대해 느꼈던 심리적 문턱이나 부담감은 무엇이었습니까?
Q2. 10주간의 모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정서적 안식감을 느꼈던 경험은 언제이었습니까?
Q3. '한 줄 기도 저널'과 '식탁 교제' 등의 일상 습관이 본인의 정서 및 영적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Q4. 소그룹 수료 후, 부대 내 장병이나 주변 군인가족을 대하는

본인의 영적 정체성(기도어머니/멘토)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부록 4. 통계 분석 세부 결과표(SPSS Output Tables)

1) 실험군의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세부 수치

(1)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전 평균(SD): 2.14 (0.62)

사후 평균(SD): 4.08 (0.45)

t 값: -9.84 ($p < .001$)

(2) 자기 수용도

사전 평균(SD): 2.45 (0.58)

사후 평균(SD): 4.21 (0.41)

t 값: -8.92 ($p < .001$)

(3) 타인 개방성

사전 평균(SD): 2.30 (0.61)

사후 평균(SD): 4.15 (0.48)

t 값: -9.15 ($p < .001$)

(4) 심리적 안전감(안아주는 환경)

사전 평균(SD): 2.28 (0.55)

사후 평균(SD): 4.62 (0.32)

t 값: -11.23 ($p < .001$)

(5) 이차적 고립감

사전 평균(SD): 3.82 (0.71)

사후 평균(SD): 1.95 (0.52)

t 값: 8.76 ($p < .001$)

2) 실험군-대조군 간 사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실험군(M = 4.08)이 대조군(M = 2.2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t = 12.45, p 〈 .001).
이차적 고립감: 실험군(M = 1.95)이 대조군(M = 3.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립감 지수를 나타냈다(t = -10.12, p 〈 .001).

Abstract

A Mixed-Methods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Small-Group Spiritual Formation Program for New Believers in Military Churches

Hymen Gon Park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tailored "Small-Group Spiritual Formation Program"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non-religious spouses, new believers, and female officers within military churches. In modern Korean society, rapid secularization and the traditional sermon-centered structure of military churches have led to lower retention rates and a serious "spiritual mismatch" among younger generation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builds an interdisciplinary theoretical foundation by integrating:

Leonard Sweet's Relational Spirituality

D. W. Winnicott's Potential Space

James K. A. Smith's Liturgy and Habits

Lewis Rambo's Seven-Stage Conversion Model

This study used a 13-week Explanatory Sequential Mixed-Methods Design. A 10-session small-group program was applied to an experimental group of 12 participants once a week and compared with a control group of 34 participant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and independent t-tests, while qualitative data were examined using Braun & Clarke's six-phase thematic analysis for triangulation.

The results show clear quantitative improvemen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p < .001$)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self-acceptance, openness to others, and psychological safety. Furthermore, their "secondary isolation"—caused by frequent moves and long absences of their military spouses—dropped significantly from 3.82 to 1.95 points. Qualitatively, participants reported that a non-judgmental, "holding environment" helped relieve doctrinal pressure. Through daily spiritual habits like one-line prayer journals and shared meals, they experienced the Holy Spirit as a close companion. Notably, 72% of the graduates grew into "prayer mothers" and mentors who now support other service members emotionally and spiritually.

This study holds theological and pastoral value by providing a "Small-Group Bridge Model" for youth ministry in a secular age. Practically, it helps overcome the limits of chaplain rotations and establishes a sustainable military mission care ecosystem led by lay leaders.

Key Words

Military Mission, Military Church, Small-Group Spiritual Formation, Relational Spirituality, Potential Space, Liturgical Habits, Prayer Mother, Mixed-Methods Research

논문 기고자 **Email**

parkhyeonggon@hanmail.net

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미래: 회중 찬양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전략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Praise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Restoring Congregational Worship and Developing Sustainable Strategies for Military Mission

» 최용훈 D. Min.*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군 환경과 청년세대의 예배문화 속에서 군인교회 찬양사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군선교를 위한 개선 방향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병력 및 군인가족 감소, 부대 편제 변화, 종교활동 참여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군인교회가 자체적으로 찬양팀, 반주자, 성가대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악기와 음향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중요한 구조적 한계로 나타난다.

군인교회 찬양의 발전은 단순한 장비의 현대화나 최신 찬양곡의 도입에 있지 않다. 자대교회에서는 장병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회중 찬양을 회복하고, 권역별 집회와 관문선교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찬양사역을 제공하는 이중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예배 방식의 개선을 넘어 다음 세대 장병의 신앙을 유지하고, 군인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하며, 군선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중심단어

군선교, 찬양사역, 회중 찬양, 관문선교, 군종병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4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9일

* 군종목사(군종 71기), 특수전사령부 사자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군인교회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군선교의 중요한 현장이었다. 특히 군 복무 시기는 많은 청년이 고향과 가정,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군인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군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장병들에게 신앙을 처음 접하게 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이미 신앙을 가진 장병에게는 군 복무 가운데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군 구조와 장병 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군인교회 역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예배와 찬양의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기타 한 대와 몇 명의 찬양 인도자만으로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장병들이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군인교회 자체의 인적·물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들의 예배와 찬양에 대한 경험과 기대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군인교회의 찬양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거나 최신 찬양곡을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변화된 군 구조와 청년세대의 문화 속에서 군인교회가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군선교적 정책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군 구조 변화와 군인교회 찬양 기반의 약화

군인교회 찬양의 현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군 구조의 변

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연대급 부대가 여단급으로 개편되는 등 부대의 명칭과 편제는 변화하였지만, 실제 병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일부 사단급 교회의 예배 인원조차 과거 연대급 교회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장병 수 감소와 더불어 군인 가족의 감소 역시 군인교회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 군인교회에서는 장병뿐 아니라 군인 가족과 자녀들이 성가대, 반주, 교회학교, 찬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가족 동반 거주가 감소하고 부대 주변의 생활환경 또한 변화하면서 이러한 사역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부대별 종교 활동 여건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종교 마일리지와 같이 장병의 종교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 사이에는 실제 예배 참석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군악대가 있는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장병이 배치된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 사이에도 찬양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현재의 군인교회는 과거와 같이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찬양팀과 성가대, 반주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기 어려워지고 있다.

3. 악기 중심의 찬양 구조가 가진 현실적 한계

군인교회 찬양의 또 다른 문제는 악기를 보유하는 것과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데 있다. 군인교회에 드럼, 기타, 베이스기타, 신디사이저 등의 악기가 갖추어

져 있더라도 이를 연주할 장병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어렵다. 군의 특성상 장병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거나 전출되며, 찬양팀이 어느 정도 안정될 무렵 다시 새로운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피아노 반주자의 감소도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피아노를 장기간 배우는 청년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군인교회에서 안정적인 반주자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교회 내 피아노나 음향장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지속적인 조율과 정비, 관리에는 별도의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군인교회 찬양은 '악기가 있으면 찬양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악기의 숫자가 아니라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이끄는 예배 공동체의 역량이다.

4. 청년 장병의 찬양문화 변화와 군인교회의 과제

오늘날 청년들의 찬양문화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유튜브(YouTube)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청년들은 국내외 유명 찬양 사역자와 대형교회의 예배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또한 휴가나 외출 시 유명한 찬양집회나 집회가 열리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이는 오늘날의 장병들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음악적·영상적 예배환경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교회가 이러한 환경과 단순히 장비나 공연의 수준으로 경쟁하려 한다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와 음향·영상 엔지니어, 고가의 믹서와 스피커, 영상 시

스템을 갖춘 대형 민간교회의 예배환경을 개별 군인교회가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군선교 행사인 구국성회와 같은 집회조차 전문 기독교 방송기관의 음향·영상 엔지니어와 전문 장비의 지원을 받는 현실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군인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대형교회의 예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찬양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5.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

군인교회 찬양의 변화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장비의 현대화뿐 아니라 예배 찬양의 본질적 회복이다. 과거 군인교회에는 기타 한 대만 있어도 수많은 장병이 함께 손뼉을 치며 찬양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찬양이 음악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중이 찬양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찬양팀이 노래하고 회중이 감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모든 장병이 함께 노래하는 구조였다.

오늘날 군인교회의 찬양 역시 이러한 원리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교회의 찬양 회복은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갖추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장병이 함께 찬양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 명의 기타 연주자와 단순한 반주만 있어도 예배당 전체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살아 있는 찬양이다. 전문적인 음향과 영상은 찬양을 돕는 수단이지 찬양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군인교회의 찬양은 다시 장병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악기가 되는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

6. 개별 군인교회에서 '권역 중심 찬양사역'으로

동시에 현실적으로 개별 군인교회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군인교회에 수준 높은 찬양팀을 구성하고 전문 음향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병력 감소와 인력 부족의 현실에서 지속 가능성이 작다. 그렇다면 오히려 일정 지역의 군인교회들이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지역 군종목사단을 중심으로 월 1회 정도 권역별 청년 찬양집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거나 인근 지역교회의 찬양팀과 연계하고, 여러 부대의 장병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날 장병들의 외출·외박 여건이 과거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역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장병들에게 민간교회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찬양과 공동체적 예배를 군 복무 중에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신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자대교회가 독립적으로 대규모 찬양집회를 준비하려 하면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며 시설의 제약도 발생한다. 그러나 권역별로 자원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7. 지역교회와 군인교회의 상생형 찬양사역

권역별 찬양집회는 군인교회만을 위한 사업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 역시 청년 인구 감소라는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가 위치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교회에서는 청년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군인교회와 지역교회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교회는 찬양팀과 악기, 음향·영상장비, 장소와 봉사자를 제공하고, 군인교회는 장병들이 지역교회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인교회의 부족한 자원을 지역교회에서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다. 군인교회에는 전문적인 예배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교회에는 새로운 청년세대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군선교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지역교회와 연결된다면 군 복무 중의 신앙이 전역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8. 기독교 군종병 교육에 찬양 인도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군인교회의 찬양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군종병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 현재 종교 특기별 군종병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였거나 민간교회에서 찬양팀 경험이 있는 장병이라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군종병에게 예배 찬양을 맡기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더욱이 군종장교가 부재하거나 작전·훈련 등의 이유로 예배를 직접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군종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독교 군종병 교육과정 안에 최소한의 찬양인도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전문 찬양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있지 않다. 기타 또는 반주 음원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찬양을 인도하는 방법, 곡을 선정하는 방법, 회중의 음역에 맞추는 방법, 마이크와 기본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예배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몇 개의 코드만으로도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기타교육이나 실제 예배에서 자주 사용하는 찬양을 중심으로 한 실습교육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군종병 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군종장교가 없는 작은 부대에서는 하나의 예배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 역량이 될 수 있다.

9. 관문선교기관의 찬양팀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군인교회 찬양 가운데 가장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관문선교기관이다.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 부사관학교, 각 사관학교, 문무대와 같은 교육기관은 많은 비기독교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처음으로 기독교 예배와 찬양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첫 예배의 인상은 이후 자대에서의 종교활동 참여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문선교기관의 찬양팀은 일반적인 교회 찬양팀 이상의 선교적 의미를 가진다. 관문선교기관에는 검증된 찬양인도자와 전문 반주자, 안정적인 음향·영상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 장병들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찬양을 발굴하고 붐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오랫동안 육군교회에서 사랑받아 온 “실로암”과 같은 찬양이다. 특정 세대의 유행을 넘어 수많은 장병이 함께 노래하며 군인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적 경험을 형성해 온 찬양들이 있다. 앞으로도 군인교회의 정체성과 장병들의 공동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해야 한다.

10.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찬양의 본질이 장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설과 장비의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다. 많은 군인교회에서는 믹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의 음향장비뿐 아니라 프로젝터, 스크린, 영상송출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오늘날의 청년세대가 영상과 음향 중심의 환경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예배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교회를 동일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방식보다는 교회의 규모와 임무에 따른 차등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관문선교기관과 권역별 거점교회에는 전문적인 음향·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자대교회에는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비를 보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장비의 구입뿐 아니라 관리와 교육까지 포함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1. 군인교회 찬양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선교적 과제이다

오늘날의 청년 장병은 과거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찬양과 예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예배 공동체를 찾아 움직이는 데에도 익숙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군인교회가 단순히 "장병들이 교회에 와야 한다"는 논리만을 반복한다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인교회가 청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의 변화는 곧 찬양의 대형화나 공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향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기타 한 대만 있어도 모든 장병이 함께 노래할 수 있었

던 군인교회의 순수하고 뜨거운 회중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찬양사역을 권역화·전문화·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 즉 자대교회에서는 단순하지만 뜨겁게 함께 부르는 찬양을 회복하고, 권역별 집회와 관문선교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찬양사역을 제공하는 이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2. 청소년 신앙형성에서 찬양사역이 갖는 의미

군인교회 찬양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신앙형성 과정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고등부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비교적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영역 중 하나가 찬양이다. 설교나 성경공부에 비해 찬양은 청소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앙 활동이며, 악기 연주와 노래, 찬양팀 활동을 통하여 예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찬양팀으로 활동하면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데서 출발하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말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며 이것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찬양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신학교 진학이나 목회, 선교 등, 전임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찬양사역은 단순한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하는 음악적 활동이라기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과 소

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학교 현장에서 찬양팀은 청소년 예배를 이끌어 가는 핵심 공동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찬양팀에 속한 학생들이 예배 준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학생들의 예배 참여를 자연스럽게 독려하면서 중·고등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찬양팀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조직이 아니라 또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군에 입대한다는 점은 군인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했던 장병들이 군에 입대한 후 군인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참여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신앙생활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군인교회가 이들의 찬양 경험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찬양팀 활동 경험이 있는 장병을 단순한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찬양인도자와 반주자, 예배 봉사자로 세운다면 군인교회 안에서 다시 신앙적 주체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다른 장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또래 리더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교회의 찬양사역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찬양은 청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공동체의 주체로 세우고, 때로는 소명까지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형성의 통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교회 찬양의 회복은 이미 민간교회에서 찬양을 통해 형성된 청년들의 신앙적 경험을 군 복무기간 동안 단절시키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비기독교 장병들에게는 찬양을 통하여 처음으로 예배와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새로운 접촉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찬양은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예배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며, 예배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이고, 나아가 그들을 예배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사역의 장이라 할 수 있다.

13. 나가는 말

군인교회의 약화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군선교 전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병력 감소, 군인가족 감소, 군 복무문화의 변화, 청년세대의 종교적 관심 감소와 예배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인교회의 찬양 역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군종병에게 찬양인도의 기본 역량을 교육하고, 지역 군종목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찬양집회를 정례화하며, 지역교회와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관문선교기관의 찬양팀에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군인교회에 적합한 찬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군인교회만의 예배문화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좋은 음향장비가 없더라도, 화려한 조명이 없더라도,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없더라도 장병들이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인교회 찬양이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훈련소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한목소리로 불렀던 찬양의 열기가 자대교회까지 이어져야 한다. 관문선교 현장에서 처음 경험한 찬양의 감동이 자대에서도 지속되고, 자대에서 이어진 예배가 다시 전역 이후 지역교회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인교회 찬양의 변화는 단순한 예배 방식의 개선이 아니다. 이는 다음 세대 장병을 복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군선교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며, 동시에 군인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선교적 과제이다.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Praise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Restoring Congregational Worship and Developing Sustainable Strategies for Military Mission

Yong Hun Choi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praise and worship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amid changes in the military environment and the worship culture of younger generations, and proposes practic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military ministry. Recent changes, including a decline in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familie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differences in opportunities for religious participation among units, have weakened the human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s of military churches. Even when musical instruments and sound equipment are available, many churches experience difficulty in securing trained personnel who can operate them consistently.

At the same time, today's young service members are accustomed to high-quality worship music and media through YouTube, online platforms, large churches, and professional worship gatherings. However, it is neither realistic nor sustainable for military churches to imitate such environments primarily through equipment, performance, or production quality. Therefore, while professional resources and modernization remain necessary, the more fundamental task is to restore congregational worship in which service members themselves actively participate as the primary worshiping community.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dual and network-based strategy. Local military churches should emphasize simple but participatory congregational

singing, while ministries requiring greater professional resources should be organized regionally through chaplain networks. Partnerships with local civilian churches should also be strengthened, basic worship-leading and audio-operation training should be included in Christian religious affairs specialist education, and gateway ministry institutions such as basic training centers, recruit training centers, noncommissioned officer academies, and military academies should receive strategic priority in professional personnel and audiovisual support. Service members with previous worship ministry experience should also be identified and empowered as worship leaders, musicians, and peer leaders.

In conclusion, the renewal of praise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the modernization of equipment or the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worship songs. A dual strategy is required: restoring vibrant congregational worship in local military churches while providing more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worship ministry through regional gatherings and gateway ministry institutions. This approach represents not simply an improvement in worship style, but an important missionary strategy for sustaining the faith of the next generation of service members, strengthening connection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churches, and enhanc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military ministry.

Key Words

Military Ministry, Praise and Worship Ministry, Congregational Worship, Gateway Ministry, Religious Affairs Specialist

논문 기고자 Email

cyh2643@naver.com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 (Just Peacemaking Theory)”에 대한 이해와 평가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Theory”

» 김이석 *

국문초록

본고는 기독교 전쟁윤리 전통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온 ‘정당한 전쟁론’의 주장과 역사적 전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대안이자 보완책으로 제시된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Just Peacemaking Theory)’의 신학적·실천적 함의를 고찰한다.

스타센은 산상수훈에 기초한 ‘변혁적 주도권’과 기독교 현실주의의 통찰을 결합하여, 전쟁을 사후에 판가름하는 방식을 넘어 분쟁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당한 평화론을 주장하고 구체적 실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스타센의 이론이 정당한 전쟁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전통적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을 서로 포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소홀히 해온 전쟁의 사전 예방과 실천의 영역을 두텁게 채워주는 상보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또한 예언자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평화론에 비판적 성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의 지정학적 위기가 제기하는 도전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분단 상황 속에서 암묵적으로 정당한 전쟁론에 의존해 온 한국교회와 군선교가 평화 형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신학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글렌 스타센, 정당한 전쟁론, 정당한 평화론, 군선교, 어거스틴

• 논문 투고일: 2026년 9월 9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9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7일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I. 서론

전쟁과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군선교를 목적으로 전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교단 그리고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등에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대는 신앙전력화와 사생관이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와 군진신학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불의한 명령에 의한 폭력이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전쟁도 따를 것인가? 신앙은 마지막 양심의 자리인데 교회는 고민하는 기독장병의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가? 기독군인이나 군인교회에서 평화는 명목인가 아니면 목적으로서 추구할 대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군진신학은 대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기독교 신학은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양극단의 주장 사이에 존재해왔다.[1]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비폭력의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많은 이들에게 성경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평화주의는 폭력에 대한 단호한 거절은 좋지만 현실을 볼 때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이상적이라고 세상도 이상적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른뺨을 맞는 폭력을 당해도 왼뺨도 내주라는 말씀을 따른다면 적의 침입 때마다 다 양보할까? 원수를 사랑하기에 재판관은 중범죄자를 매번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클라우제비츠

1) 노만 가이슬러(Norman L. Geisler)는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님이 정부를 만드셨으니 정부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함이 맞다는 행동주의, 일체의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주의, 그리고 정당성이 확보된 전쟁만 선별하여 지지한다는 선별주의로 구분하였다. Norman L. Geisler, *Ethics: Alternatives and Issues*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1), 158.

의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은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비극이라거나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낭만적 주장이 아닌 정치라는 권력과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동원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보여준다. 전쟁은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당한 전쟁론은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와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거치며 정교화되어,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권위, 최후 수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전쟁 참여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한편으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당성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하느냐는 의문도 갖게 했다.

냉전의 종식과 1990-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이 오래된 이분법적 구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그리스도교 윤리학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미국 침례교 전통 출신으로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그리스도교 윤리학을 가르친 글렌 해럴드 스타센(Glen Harold Stassen, 1936-2014)이다. 본고는 먼저 스타센의 정당한 평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정당한 전쟁론의 역사적 형성 과정 -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어거스틴의 신학적 체계화, 그리고 현대적 삼분법 구조로의 발전 - 을 개괄하고, 이 이론이 노출해 온 신학적·윤리적 한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당한 평화론 등장의 토양을 확인한다.

이후에는 스타센이 제시한 정당한 평화론의 핵심 주장과 그 구조를 이루는 XY축 모델을 통해서 정당한 평화론과 평화주의 및 정

당한 전쟁론이 상호적으로 작동하고 협력 중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실천으로서 23명의 학자들이 함께 제안한 열 가지 실천을 검토하고, 끝으로 이 이론에 대한 학문적 평가와 비판으로서 리사 캐힐과 로널드 스톤, 나단 펑크 등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스톤의 예언자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비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최근의 사태가 이 이론의 유효성에 제기하는 도전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정당한 평화론이 정당한 전쟁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소홀히 해 온 예방의 영역을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지니는 신학적·실천적 함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II. 정당한 전쟁론의 주장

A.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당한 전쟁론

정당한 전쟁론은 기독교만의 이론이 아니다. 이 이론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Plato)은『법률』에서 전쟁이란 오직 공공의 정의와 국토 방어라는 명확한 법적 명분 아래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이 국가의 승인 없이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반역이라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시민도 공적 지시나 법적 정당성 없이 사적으로 적과 평화 협정을 맺거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의 승인 없이 개인이 전쟁이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취하거나, 적국으로부터 부당한 뇌물이나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가의 무력행사는 오직 공공의 정의와 국토 방어라는 명확한 법적 명분

아래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2)]

나아가 그는 전쟁의 궁극적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평화야말로 국정의 으뜸가는 목적이다. 참된 입법자는 평화를 위해 전쟁 관련 법률을 세우는 것이지, 전쟁을 위해 평화 관련 법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3)] 전쟁의 목적은 평화의 회복에 있다고 보았고, 정의를 위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평화와 폭력의 최소화는 같은 교전원칙을 세운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그리스 도시국가간의 다툼은 전쟁이 아닌 내란이며, 아무리 전투를 하더라도 집을 불사르지 말고 책임을 소수에게만 물어서 집단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는 결국 아무리 싸웠어도 언젠가는 화해하여 다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4)] 플라톤의 정당한 전쟁론은 같은 그리스인을 위한 전쟁에 제한된다는 약점을 보여준다.

B. 어거스틴 이전

로버트 클라우스(Robert Clouse)에 따르면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는 주후 170년까지 기독교인으로서 로마군에 복무한 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로마는 징병제가 아니었고 또 군역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기 때문이다.[5)] 기독교 초기부터 콘스탄틴 황제 전까지는 기독교의 주된 주장은 평화주의였다. 순교자 저스틴은 기독교의 전

2) 플라톤『법률』, 제12권, 955cd.

3) 위의 책, 제1권, 628ce.

4) 플라톤,『국가』, 황학수 역 (동서문화사, 2016), 278.

5) Robert H. Clouse, *War: Four Christian View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1), 11-12.

파를 평화의 전파로 보았다.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위한 전쟁에서 당신들의 조력자들이요 동지들입니다"[6]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교의 전파야말로 모든 전쟁을 종결짓는 구원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7] 전쟁소식만 전하는 로마제국주의와 달리 복음은 평화요 세상의 전쟁과 폭력을 끝낼 소식이라는 것이다.

오리겐 역시 켈수스 반박론에서 기독교는 평화라고 주장했다.

> 우리는 자신들의 적들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때 사용했던 검을 부스러뜨리고 전투에서 사용하던 창을 밭 가는 쟁기로 바꾸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나라들과 맞서 칼을 뽑지 않으며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8]

기독교는 무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전쟁은 영적 싸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육체적 물리적 전투를 비판하였다. "켈투스에 반대하며"에서 오리겐은 왕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전쟁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 우리는 경건한 기도와 더불어 자기 절제와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공적인 일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에게 쾌락을 멀리하고 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한 왕을 위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싸우는 이들은 없습니다. 비록 왕이 요구한다 해도 우리가 그의 휘하에서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경건의 군대'라는 특

---

6)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of Justin*, XII in *THE ANTE-NICENE FATHERS*. Vol. I. 이하 *THE ANTE-NICENE FATHERS*는 *ANF*.로 표기함.

7) 위의 책, XLVII.

8) Origen, *Against Celsus*, 8.33, *ANF*. vol. 4.

별한 군대를 이루어 그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9]

하지만 현역 로마군인 중에서 개종이 늘어나면서 점차 전쟁관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변하기 시작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극은 이를 급가속화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와 기독교를 하나로 결합시켰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메시아 통치자"로 추앙받았다.[10] 이런 변화 속에서 기독교의 공인 이후 태어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국가의 수호를 신앙의 수호와 동일시하였다. 당시 이단으로 판결난 아리우스파 지역은 로마의 적이었던 야만인들 지역과 겹쳤다. 이런 이유로 신앙의 전투와 접경 지역에서의 전투는 동일하게 여긴 것이다.[11]

암브로시우스는 정열적으로 악을 제어하길 원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관의 칼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성직자의 의무(On the Duties of the Clergy)』는 키케로의 『의무론(De Officiis)』을 재해석한 것으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어야 하며 적에게도 신의를 지켜야 했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한 하에서 그것이 수행되어야 하며, 불의에 대한 징벌 및 평화의 목적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복수심이나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전쟁에 참여하는 대상에 있어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구분하였다. 평신도들은

9) 위의 책, VIII. 73.

10)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ashiville: Abingdon Press, 1960), 85.

11) 위의 책, 90.

로마 시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도 참가해야 한다. 반면 성직자는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자이기에 전투행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2] "전쟁과 관련된 일은 우리의 직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육체의 일보다는 영혼의 의무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며, 무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다."[13] 전쟁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교회와 사제가 국가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해야 함도 주장하고 있다.

C.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의 정당한 전쟁론

암브로시우스가 정당한 전쟁론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이루었다. 서기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 1세가 로마를 침략하고 약탈한 사건은 제국 전역에 신학적·사상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800년 만의 침탈이라는 사회정치적 충격도 있었지만 신학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 기독교는 공적 종교로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였다. 정치와 종교가 깊숙이 결합한 기독교 국가로서 로마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번영을 약속받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고트족의 침탈은 이러한 기대와 신학을 무너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거스틴은 신학적 응답의 필요성을 느꼈고 "신의 도성" 외 여러 저술들을 통해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포함한 역사철학을 담아냈다. 그의 정당한 전쟁론은 플라톤과 키케로의 정당한 전쟁론에 기독교적 철학을 담아서

12)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PER & ROW, 1975), 244.

13) Ambrose, *On the Duties of the Clergy, Nice and Post-Nicene Fathers(NPNF)*, 2/10.

주장했으며 이는 후대 기독교 신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당한 전쟁으로 본다.

1.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

전쟁의 정당성은 개인의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공의 안녕을 위임받은 통치자의 공적 명령에 의해 수행되어야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어거스틴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은 사실상 정당하다고 평했다.[14)]

> 공공의 평화를 책임지는 자연적 질서에 따라, 전쟁을 선포할 권한과 결정은 통치자에게 속한다. 군인은 군사적 의무를 이행할 때 통치자의 명에 따라 무력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사적인 살인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적 순종이다.[15)]

어거스틴에 의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공화국 사회를 가져오고 전폭적이고 영속적 평화를 수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십계명에서 살인을 처방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나 국가의 권위에 의해 전쟁이 실행된다면 살인도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16)] 하나님의 섭리만이 사람들 사이의 왕국건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은 황제를 세울 뿐만 아니라 화려한 황제의 일시적 영광과 함께 이교도 로마의 덕을 보상하기까지 한다.[17)]

2. 정당한 원인(Just Cause)

---

14) Augustine, *the City of God,* 5. 24

15)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eum*, 22. 75.『마니교 박멸론/파우스투스 반박집』, 교부문헌 번역총서 (서울: 기독교문사, 1998), 22.75, 514.

16) Augustinus, *the City of God,,* 1.21.

17)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eum*, 22.74.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의 원인은 정복과 탐욕, 복수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 전쟁에서 진짜 비판받아야 할 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싸움에서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아니다. 진짜 악은 바로 지배욕, 잔혹한 보복심, 누그러지지 않는 적개심, 폭동에 대한 야만적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다. 정당한 자들이 관대함과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통치자나 하나님 자신의 명에 따라 전쟁을 수행할 때 비판받는 것은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다.[18]

보복이나 지배욕, 적개심 등으로 일으킨 전쟁은 악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정당한 전쟁은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악을 제어하려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심판적 기능에서도 찾는다. "정당한 전쟁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다."[19] 이는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징벌은 증오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사랑의 선택이기에 전쟁은 징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적에게라도 관용과 정의, 경건의 정신을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악을 징벌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오히려 지독한 심판이며 탐욕에 재갈을 물리는 바른 정부가 있다면 전쟁의 방법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 정당한 전쟁 중 하나는 지배자의 부정

---

18) 위의 책, 22.74.

19) 위의 책, 22.75

20) Augustine, *Letters of Augustine*, 138. 9-15. 어거스틴, 『어거스틴 서간집 I』, 교부총서 (서울: 분도출판사, 2001),

당함을 바로 잡는 것이다. 곧 한 국가나 지배자가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공격적일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 드는 채찍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성을 가진다.[21]

3.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

탐욕, 영토 확장, 권력욕, 적에 대한 잔혹성이 아닌 '평화의 회복과 정의의 수립'만을 목적이 정당성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어거스틴은 로마 세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전쟁의 상흔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두 도성의 이론에서 인간 도성의 본질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인간의 도시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고질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어거스틴은 전쟁을 언급할 때마다 탄식했다.[22] 그래서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피를 흘리기 전에 말로써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추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평화를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고귀한 영광입니다. 싸우는 자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기에 분명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 평화는 피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피 흘림을 막는 것입니다.[23]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자체가 무익하다고 보진 않았다.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통해 평화를 목적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니파키우

---

21) Augustine, *the City of God*, 19, 16.

22) 위의 책, 18. 54

23) Augustine, *Letters*, 229. 2.

스에게 보낸 편지"[24]에서 이렇게 말한다.

> 싸울 때조차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당신에게 승리가 찾아왔을 때, 싸운 상대마저도 평화의 유익에 참여시킬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평화는 당신의 '선택'이자 목적이어야 한다.[25]

4. 정당한 전쟁론의 세 가지 범주로의 발전

정당한 전쟁론은 이후 3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개시 정의(jus ad bellum), 수행 정의(jus in bello), 전후 정의(jus post bellum)이다. 개시 정의는 전쟁개시의 정당성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여부, 비례성 등을 기준 삼는다. 수행 정의는 전투과정 중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다. 비전투원 보호와 수단의 비례성 등을 중시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전쟁수단도 과도하지 않게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압도적 무력 등으로 과도하게 살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경계라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범주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신학과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한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등의 법철학에서 발전시켰다. 이들 모두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전쟁 발발 후에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너무 늦었다. 이미 일어난 전쟁의 정당성을 묻게 된다면 결국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뿐 사전에

24) 위의 책, 189.

25) 위의 책, 189.6.

막거나 평화를 만드는 논리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 범주 "전쟁 후 정의(jus post bellum)"는 임마누엘 칸트부터 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 서설"에서 전쟁 전, 전쟁 중의 법 외에 전쟁 후 법에 대해 다루며 전후 정의를 다룬다.[26] 전후 정의는 전쟁의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을 속히 종전해야 하며 전후 재판에서는 최소한의 사람,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영토와 주권 등은 전후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27]와 브라이언 오렌(Brian Orend)[28]가 세가지 범주로 현대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삼분법적 구조는 전쟁을 무제한의 폭력으로 방치하지 않고 윤리와 법적 틀 안에서 통제하려는 지속적 시도라 하겠다.

5. 정당한 전쟁론 비판

정당한 전쟁론은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전쟁에 대해 윤리적으로 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은 폭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전쟁은 고삐 풀린 말과 같아서 무제한적 유혈 사태나 맹목적 애국주의로 치닫기 쉽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전쟁의 광기를 제어하고, 국제법과 교전 수칙의 윤리적 기틀을 제공함으로서 전쟁의 악의를 제어하였다. 또한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시민이나 종교인에게는 참전해야 하는 필연성에 도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정당성을 획득한 전쟁의 참전은 구

---

26)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12), 331-333.

27)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4th ed., New York: Basic Books, 2006), xivxvii.

28) Brian Orend, *The Morality of War* (Broadview Press, 2006 / 2nd ed., 2013), Chapter 6 ("Jus Post Bellum"), 160-189.

원적이며 희생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론은 그 형성 목적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노출해 왔다. 첫째, 정당화의 논리로 이용이 아닌 악용되기 쉬웠다. 정당한 전쟁론의 항목들 - 정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최후의 수단 등 - 은 역사적으로 국가 통치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스타센은 나치 체제하의 독일 군종목사들이 정당한 권위(히틀러 정권)에 대한 순종과 조국 방위라는 명목 아래 나치의 인종학살과 침략 전쟁에 대해 신학적 비판을 가하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정당한 전쟁 전통이 본래 폭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제 역사 속에서는 군사적 행동을 윤리적으로 면죄해 주고 국가의 결정을 신학적으로 승인해 주는 정당화의 도구로 악용되는 한계를 반복해서 드러냈다고 지적한다.[29] 마이클 왈저 역시 정당한 전쟁론에 대해 이 이론이 오히려 전쟁에 도덕성을 부여하고 그로써 전쟁을 더 쉽게 만든다는 비판을 하였다.[30]

둘째, 판단의 주관성이다. 무엇이 '정당한 명분'인지, 언제 '최후의 수단'이 도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정자가 부재하며, 전쟁 당사자들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당함 혹은 정의로움이 누구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결국 강자의 정의이고 정당함을 강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 정당한 전쟁은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31]

---

29) Glen Stassen, *Just Peacemaking: Ten Practices for Abolishing War*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

30)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1.

31) 위의 책, 3

종교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한 도리스 베르겐(Doris L. Bergen)의 연구는 군종장교와 군선교에 큰 무게를 싣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는 쓴 연구이다. 베르겐은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군종장교들의 설교와 서신들을 통해 히틀러와 학살을 정당화한 비극을 비판했다. 독일 나치체제하에 1천 명의 군종장교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국가체제를 보호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쟁 중 이들은 비윤리적 학살을 목격하였고 십자가와 하켄크로이츠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였다. "군종장교들은 소련 전선이든, 점령된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학살 문화에 연루되었다.…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32] 이들은 전장의 장병들의 위로자였지만 또한 제노사이드의 목격자이면서 방관자이기도 하였다. 정당한 전쟁론은 군종장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유용성을 증명하려고 애쓴 논리였다. 그리고 그 논리로서 학살자, 가해자들을 장례와 기념식을 통해 영웅으로 성자화하였다.

> 기독교는…폭력을 정당화하고, 마법처럼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피를 통한 구원과 대속의 서사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는 '제노사이드 문화(genocidal culture)'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기독교는 강력한 도구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세력이었으며, 기존의 종교적, 공동체적 전통을 파괴하는 데 공모했고, 그 자리를 대신한 학살 문화의 중심 요소가 되어 폭력을 정당화하고, 가해자를 희생자로, 희생자를 가해자로 마법처럼 변모시키며, 피를 통한 구원과 속죄라는 서사를 제공했다."[33]

32) 위의 책, 172.

33) 위의 책, 171.

정당한 전쟁론은 정당화를 넘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고 더군다나 가해자를 영웅과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정당함의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한 것이다. 정당한 전쟁론이 정말 정당한지, 정당화의 세례를 베푸는 악인인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셋째, 현대전의 성격 변화로 인해 정당한 전쟁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한 시대에는 비전투원 보호나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잠재적 사망자는 약 50만 명에 이르며, 집속탄 희생자의 98퍼센트가 민간인이었다는 것은 현대전이 더 이상 고전적 의미에서 '정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넷째, 이론의 정적 성격이다. 스타센은 정당한 전쟁론은 이미 일어난 전쟁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사후적·소극적 윤리에 머물러 있어, 전쟁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실천적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34)]

이런 비판 속에서 전쟁을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국가체제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렌 스타센의 정당한 평화론이 등장한다.

III.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 주장

A. 등장 배경과 신학적 토대

보수적 침례교 신학 배경 속에서 성장한 스타센은 뉴욕 유니온

34) Glen Stassen, "The Unity, Realism, and Obligatoriness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 no. 1(2003), 171.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작하고 듀크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다. 1957년 유엔 냉전 군축 회담에서 소련과 함께 제한적 핵실험 금지를 추진하는 등 현실 정치·사회 문제에 윤리적 통찰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실천한 학자였다.

정당한 평화론은 1990-1991년 걸프전에 대한 칼럼니스트 앤드류 설리반(Andrew Sullivan)과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논쟁 속에서 태동하였다. 설리반은 사담 후세인의 침략이 불법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하우어워스는 비폭력과 평화주의를 옹호하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반문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2003년 이라크전을 앞두고 열린 기독교윤리학회 연례회의에서도 윤리학자 제임스 칠드레스(James Childress)가 정당한 전쟁론의 관점에서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언했을 때, 참석자들은 동의하면서도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35] 스타센은 이러한 반복된 논쟁의 교착 상태 -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이 서로를 비판할 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를 정당한 평화론 개발의 직접적 동기로 삼았다.

스타센은 1992년 『정당한 평화 만들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변혁적 주도권(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을 시작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의 학자·국제정치학자·평화운

35) Glen Stassen, "Just Peacemaking as Hermeneutical Ke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4, no.2(2004), 171-192.

동가 23인과의 협업을 통해 1998년『정당한 평화 만들기: 전쟁 폐지를 위한 열 가지 실천(Just Peacemaking: Ten practices for Abolishing War)』을 편집·출간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까지 확장한『정당한 평화 만들기: 전쟁과 평화 윤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을 발표하였다. 이 저작들을 통해 그는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이 "정당한 전쟁론 및 평화주의와 나란히 서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이 이론이 두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36]

정당한 평화론의 신학적 토대는 마태복음 5-7장 산상수훈에 대한 스타센 고유의 해석, 곧 '변혁적 주도권(transforming initiatives)' 개념에 있다. 그는 산상수훈의 반제(反題) 구절들 - 예컨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 이 단순한 수동적 감수(感受)의 명령이 아니라, 억압자의 폭력 논리를 뒤흔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제3의 대응 방식을 예시한다고 주장하며, 산상수훈 전체에서 총 열네 개의 '은혜에 기반한 변혁적 주도권'을 도출한다.[37] 동시에 스타센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로 대표되는 기독교 현실주의의 통찰을 적극 수용하여, 정당한 평화 만들기가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국제정치의 죄성(罪性)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니버의 원리 중심적 현실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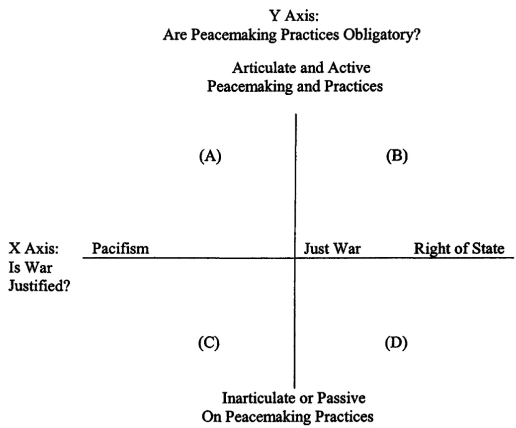
36) Stassen, *Just Peacemaking: Ten Practices for Abolishing War*, 2., Stassen, "The Unity, Realism, and Obligatoriness," 171.

37)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141.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실천의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니버와 구별된다.[38]

B. 정당한 평화만들기의 XY 축

스타센은 2003년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의 통일성, 현실주의, 그리고 의무성"[39]이라는 논문에서 정당한 평화론을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제3의 대안으로 배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세 이론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XY축 모델을 통해 공존가능함을 제시했다. 이 도표는 그의 정당한 평화론이 다른 이론들을 배타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스타센은 이 모델에서 X축은 '전쟁이 정당화되는가(Is War Justified?)'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평화주의(Pacifism)와 정당한 전쟁

38) Glen H. Stassen, ed.,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Cleveland: Pilgrim Press, 2008).

39) Stassen, "The Unity, Realism, and Obligatoriness of Just Peacemaking Theory," 176.

론/국가의 권리(Just War/Right of State)를 좌우로 배치하며, Y축은 '평화 조성 실천이 의무적인가(Are Peacemaking Practices Obligatory?)'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명료하고 적극적인 평화 조성(Articulate and Active Peacemaking)과 불명료하거나 소극적인 평화 조성(Inarticulate or Passive on Peacemaking Practices)을 상하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네 개의 사분면이 구성된다. (A) 사분면은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 이들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다수의 퀘이커 교도, 하워드 요더(Howard Yoder),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등이 해당된다. 적극 평화주의자들이다.[40] (B) 사분면은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평화 조성자인 정당한 전쟁 이론가들이다. 이들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나 장로교인 등이 해당된다.[41] 이들은 적극 정의로운 전쟁론 지지자로서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C) 사분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자이지만 평화 조성 활동에 명확히 참여하지는 않는 수동적 비폭력주의자들이다.[42] (D) 사분면은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되 평화 조성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들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침략자를 제지하기 위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교 현실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43] 스타센에게 이 도표의 함의는 명확하다. 세 이론은 결코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오히려 겹치는 영역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평화가 전쟁을 완전히

40) 위의 책, 176.

41) 위의 책, 176.

42) 위의 책, 177.

43) 위의 책, 176-177.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며, "전쟁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다[44]

C. 열 가지 실천과 독립적 이니셔티브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의 핵심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쟁을 예방·중단·제한하는 데 실제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열 가지 구체적 실천 항목이다.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 전쟁 폐지를 위한 10가지 실천』의 저자들은 "이 책은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45] 전쟁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 이론은 여전히 매우 필요하다.[46] 하지만 정당한 평화론과 정당한 전쟁론의 작동하는 계기와 내용은 다르다.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은 전쟁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정당한 전쟁론은 이미 전쟁이 임박했거나 발발한 상황에서 그 도덕적 허용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 스타센의 지적이다. 반면 평화주의는 전쟁에 대한 절대적 반대라는 원칙은 분명하

44) 위의 책, 172.

45) Stassen, *Just Peacemaking: Ten Practices for Abolishing War,* 2.

46) Stassen, "The Unity, Realism, and Obligatoriness of Just Peacemaking Theory," 171.

지만, 국제정치의 냉엄한 권력관계 속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전략을 결여하고 있다고 스타센은 평가한다. 이 점에서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은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그것이 다루지 못한 예방의 영역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의 핵심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쟁을 예방·중단·제한하는 데 실제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열 가지 구체적 실천 항목이다. 1998년 저작에서 제시된 이 열 가지 실천은 다음과 같다.

1. 비폭력 직접행동을 지지할 것 - 필리핀의 '피플 파워' 혁명(1986)이나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난 비폭력 대중운동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이는 폭력적 봉기나 무력 진압이 아니라 조직된 비폭력 저항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실증한다.

2. 위협을 줄이기 위한 독자적 주도권을 취할 것 - 상대의 선제적 양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먼저 긴장완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일방적 군축 조치와 이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의 호응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3. 협력적 갈등 해결을 사용할 것 - 제로섬적 대립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국제 중재와 다자간 협상 메커니즘의 활용이 강조된다.

4. 갈등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할 것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전형적 사례로 제시되며,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지속가능한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5. 민주주의, 인권, 종교의 자유를 신장할 것 - 민주적 제도와 인권 보장이 대내외적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줄인다는 민주평화론의 통찰과 맥을 같이한다.

6.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 -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이 분쟁과 폭력적 급진화의 온상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정한 경제발전을 평화의 구조적 조건으로 제시한다.

7. 국제 체제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협력적 세력과 함께 일할 것 - 국제 시민사회, 초국가적 네트워크, 지역협력기구 등 국가 중심 질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8. 유엔과 국제 협력·인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분쟁예방·평화유지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이는 뒤에서 살펴볼 최근의 비판,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마비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9. 공격용 무기와 무기 거래를 축소할 것 - 1987년 미소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과 같은 군축 협정이 실증적 사례로 제시된다.

10. 풀뿌리 평화운동 단체와 자발적 결사체를 장려할 것 -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을 시민사회 차원의 자발적 평화운동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앞의 아홉 가지 실천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스타센의 평화 개념은 단순한 '무력 충돌의 부재(negative peace)'가 아니라 정의와 인권, 불평등 해소가 수반되는 '관계의 완전함으로서의 샬롬(shalom)', 곧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지향한다.[47] 이는

47)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33-48.

안보 개념을 군사력 중심에서 인간 및 구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쟁 이후의 정의 - 정당한 종결, 비례적 처벌, 권리 복원, 정치적 재건 - 역시 정당한 평화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 고리로 포함된다.

스타센과 그의 동료 학자들은 이 열 가지 실천이 역사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된 구체적 사례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을 단순한 규범적 이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실천이론(practice theory)으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IV. 평가와 비판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은 발표 이후 그리스도교 윤리학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에 『기독교윤리학회지(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권 1호는 이 이론을 특집으로 다루어서 여러 기고자들이 집중적으로 정당한 평화론에 대해 평가하였다.

A. 긍정평가

긍정적 평가자들은 정당한 평화만들기 이론이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 사이의 소모적인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에 속한 학자들 사이의 실천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리사 캐힐(Lisa Sowle Cahill)은 정당한 평화 만들기가 정당한 전쟁 이론과 평화주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성경적 신앙에 대한 헌신과 정치적 참여를 결합하고 다양한 신앙·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전쟁 및 정치적 폭력을 실제로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48] 캐힐은 스타센의 연구가 가톨릭에 미친 영향도 지적한다. 2016년 로마에서 개최된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회의(Nonviolence and Just Peace Conference)'에서는 가톨릭 신학자와 활동가 85인이 모여 정당한 전쟁론의 공식적 폐기를 요청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스타센이 처음 제기한 문제의식이 개신교권을 넘어 가톨릭 교회의 공적 논의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49]

로널드 스톤(Ronald H. Stone)도 스타센의 평화론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이 이론이 기독교의 평화 담론을 확장하여 기존의 전쟁 참여론, 평화주의, 정당한 전쟁론, 성전(crusade) 모델을 뛰어넘는 제3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50] 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 윤리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책임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 평화 정책들을 체계적인 정책 문서로 정리할 수 있었다.[51] 또한 비폭력 사회변화 전략, 평화형성을 위한 독자적 이니셔티브, 종교적 평화단체의 역할 등은 과거 연방교회협의회(FCC)의 '평화의 여섯 기둥' 선언보다 진일보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제시한다고 보았다.[52]

나단 펑크(Nathan C. Funk)는 이 이론이 정당화의 물음이 아니라

48) Lisa Cahill, "Just Peacemaking as a Bridge to Ecumenical and Interfaith Solidarity for Pea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 no. 1(2003) 195.

49) Lisa Cahill, "Just War, Pacifism, Just Peace, and Peacebuilding," *Theological Studies* 80 no. 1(2019) 169-185.

50) Ronald H. Stone,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1, 2003, 257.

51) 위의 책, 257.

52) 위의 책, 257, 259.

예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종교간 대화와 에큐메니컬 협력의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하였다.[53]

B. 비판적 평가

하지만 스톤은 스타센이 제시한 "전쟁 폐지를 위한 10가지 실천(Ten Practices for Abolishing War)"은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보기에 극도로 유토피아적이라고 본다. 역사적 현실에서 무정부 상태, 불의, 인간의 영적 오만이 완전히 극복되기 전에는 전쟁의 폐지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54] 또한 평화형성론의 10가지 원칙은 '정의로운 전쟁론'과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서술되지만 실질적 제재력이 부재한 선언적 규범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한다.[55] 또한 유엔(UNO)이 자체 군대를 보유하여 평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마이클 스미스의 전망이나,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풍요와 정당성을 낳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폴 슈뢰더의 주장은 지나치게 안이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본다.[56]

스톤은 스타센의 낙관적 성경 해석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구약 성서 예언자적 현실주의(Prophetic Realism)를 주장한다. 이는 라인홀드 니버류의 기독교적 현실주의를 비판적으로 본다. 스톤은 아모스에게서 사회정의와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적 현실인식을 보며 예언자의 비관적 현실인식을 통해서 기독교현실주의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센의 평화형성론의 실천적 원

53) Nathan Funk, "Just Peacemaking as a Bridge to Ecumenical and Interfaith Solidarity for Peace." In *Pacifism's Appeal: Ethos, History, Politics*, ed. Jorg Kustermans, Tom Sauer, Dominiek Lootens, and Barbara Segaert (Palgrave Macmillan, 2019).

54) Stone,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258.

55) 위의 책, 257.

56) 위의 책, 259.

칙들은 수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지닌 유토피아적 낙관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이 만들어낼 평화에 대한 환상은 강력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관주의적 평화주의보다는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에 기반한 '예언자적 현실주의(Prophetic Realism)'가 요구된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57]

네덜란드의 신학자 모리츠 포타펠(Maurits Potappel)은『종교·문화·민주주의 저널(Journal of Religion, Culture & Democracy)』에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전쟁은 어떻게 정당한 평화 이론에 도전하는가"라는 논문[58]에서, 정당한 평화이론의 유효성이 의심받는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당한 평화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잠잠함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는 정당한 전쟁을 정당한 평화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지적한다. 이 비판처럼 전쟁 전에 평화를 만들겠다는 정당한 평화론의 노력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잔인한지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한다.

그럼에도 스타센의 정당한 평화론은 갈등의 현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대니얼 K. 윌리엄스(Daniel K. Williams)는 2024년 5월 한 신학 칼럼에서 2023년 이후 격화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스타센의 정당한 평화 만들기 원칙, 특히 그 핵심 원칙인 "분쟁 당사자 쌍방의 안보에 대한 상호적 헌신(a commitment to mutual security for both parties in a conflict)"을 적용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안

57) 위의 책, 256.

58) Maurits Potappel, "How Ukraine's Just War Challenges Just Peace Theory," *Journal of Religion, Culture & Democracy* 2, no. 1 (2024).

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59] 윌리엄스의 논의는 학술논문이 아니라 대중적 신학 칼럼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스타센의 원칙이 여전히 정책적 준거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V. 결론

정당한 전쟁론은 기독교인들이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국가간의 전쟁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군종장교들은 이에 의하여 신념을 가지고 군선교에 집중하며 군 신자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전쟁론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정치권력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불의를 종교적으로 성화시키는 악역까지도 맡을 소지가 많았다. 도리스 베르겐의 연구는 이런 점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사후 약방문 같은 정당한 전쟁론의 약점을 비판적으로 보완할 이론으로서 정당한 평화론이 등장하였다. 정당한 평화론은 정당한 전쟁론을 완전히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다. 정당한 전쟁론이 소홀히 다루어 온 예방의 영역을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보완하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센의 기여는 정당한 전쟁론을 부정하는 데 있다기보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최후의 수단과 정당한 의도 원칙의 내용을 구체적 평화 조성 실천으로 두텁게 채워 넣은 데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실

59) Daniel K. Williams, “A ‘Just Peace’ For Both Israel And The Palestinians,” *Patheos* (28) 2024

제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참여하기도 하였다.

정당한 평화 만들기 이론이 21세기 그리스도교 전쟁윤리 논의에 '예방'이라는 새로운 축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신학적·교파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 사이의 실천적 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사적 기여는 부정하기 어렵다. "전쟁이 정당한가?"라는 사후적 질문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떠한 평화 형성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동적·예방적 질문으로의 전환은,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사후적·판정적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신학적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다시 점증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한국교회와 군선교는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를 재고해야 하는 순간을 맞았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민족의 위기에 동참하여왔다. 매주일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기도는 한국교회 전통에서 빠지지 않고 있으며 군선교는 군대의 한복판에서 장병들의 마지막 호흡기 같은 역할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신학적 기초는 정당한 전쟁론 등이 사후 정당화로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해 둔 상태이다. "군선교는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군대에서 이룰 것인가 혹은 사회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두었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Theory"

Isaac Kim

This article critically evaluates the claim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Just War Theory," which has occupied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Christian tradition of just war ethics, and examines the the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Theory," proposed as an alternative and complement to the just war tradition. Originating in ancient Greek philosophy and subsequently systematized through the work of Ambrose and Augustine, Just War Theory has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by criticizing war and providing it with an ethical framework. Nevertheless, in the course of actual history, including the World Wars, it has revealed fundamental limitations: it has at times been misused as a means by which state powers arbitrarily justify warfare, or has remained largely a retrospective and adjudicative ethic, thereby failing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ng war before it occurs.

In an effort to overcome this impasse, Stassen developed Just Peacemaking Theory by combining "transformative initiatives," ground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with the insights of Christian realism. Rather than merely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war after the fact, Stassen sought to prevent the cycle of conflict before it escalates and consequently formulated concrete practices for peacemaking. This article argues that Stassen's theory need not replace Just War Theory altogether but can function as a complementary paradigm that brings the traditional approaches of pacifism and just war ethics into

a mutually inclusive relationship while substantially strengthening the neglected dimensions of preemptive conflict prevention and practical peacemaking.

Furthermore, by critically reflecting on Just Peacemaking Theory as a form of prophetic realism and examining the challenges posed by contemporary geopolitical cris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Korean church and military ministry, which have implicitly relied on Just War Theory 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ace a theological task: to seek practical alternatives for peacebuilding.

Key Words

Glen Stassen, just war theory, just peacemaking theory, military evangelism, Augustinus

논문 기고자 **Email**

withnim@gmail.com

부록 1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상담코칭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회 커리큘럼, 복음세미나 /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한다.

제9조 (상담코칭위원회)

1. 구성 : 상담코칭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활동 : 위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관리, 상담코칭 이론과 실제 교육, 국내·외 군상담 코칭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과정으로 접목한다.

제10조

1. 군선교신학회 정기회의 : 신학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11월 중 소집한다.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나. 대주제는 '비전2030 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시한다.

제11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비 대책

가. 군내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 사이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

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7차개정 : 2024. 12. 10

부록 1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1)]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논문 제목 ⑵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⑶ 논문 본문 ⑷ 참고문헌

---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조치 됩니다.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2)]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으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57.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N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B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쟈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쟈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장절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⑴, (가) 의 순으로 한다.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각주 방식
   ⑴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⑵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⑶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부록 2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 현황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종 군종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장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종목사	
제2권	2004.5.30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정두영 목사	367면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종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종목사	
제3권	2005.6.10	귀납적 설교의 비결	곽선희 목사	390면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종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500면
		교회 공동체와 국가	이종윤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종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에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227면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종윤 목사	318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종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위원입교인규됴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이종윤 목사	320면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종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측』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이종윤 목사	309면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종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선샤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샤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종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션예수교쟝로회혼샹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사문 목사	
		ACT(수용전념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I)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I)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II)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II)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폭력에서 사랑으로	김성봉 교수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뱁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종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사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신종훈 전도사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오늘의 설교개혁	이종윤 목사	270면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안만국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익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종윤 목사	341면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김성봉 교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제18권	2019.10.10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종윤 목사	432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기획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주연종 목사	544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기획논문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제20권	2021.10.26	진리란 무엇인가?	곽요셉	328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전요섭 교수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김아영 교수	
	일반논문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강사문 명예교수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이규철 목사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김상만 목사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전요섭 교수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제21권	2022.10.25	이 천국 복음	곽요셉	456면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이규철 목사	
		이규철의 논문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이석영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전요섭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담긴 함의	이규철 목사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일반 논문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윤상철 목사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이용락 목사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은성 목사	
제22권	2023.10.24	Words matter!	김철우 목사	280면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종활동 강화 방안	주연종 목사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안남기 목사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김택조 목사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이규철 목사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전요섭 교수	
	외국논문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전요섭 교수	
	일반논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오희준 목사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정대호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23권	2024.10.22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정비호 군종목사	264면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목사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권수영 목사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에 대한 논찬	나성한 군종목사	
	연구위원 논문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코칭의 이해와 군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	전요섭 교수	
		복음의 증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문시영 교수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이용락 목사	
제24권	2025.10.31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이규철 목사	376면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전요섭 목사	
		전요섭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논찬	김영호 목사	
		비전2030 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위진섭 목사	
		위진섭의 논문 "비전2030 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상만 목사	
	연구위원 논문	장병의 거절 민감성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	전요섭 교수	
		성경의 리더십 계승 성공 사례와 원리 연구	이용락 목사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안남기 목사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임정인, 정세준 목사	
	기획 논문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ldiers of Kierkegaard's View on Suffering	김이석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25권	2026.10.28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진중군인교회 찬양 영성	이규철 목사	320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	임정인 목사	
		임정인의 논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군선교 전략 제안"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석곤 목사	
		이석곤의 논문 "군인교회 회중 찬양의 선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연구위원 논문	비자발적 장병 내담자의 상담동기강화를 위한 군종목사의 상담 전략	전요섭 교수	
		군선교교역자의 목회 서사 전환과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밀리터리 치유목회 아카데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안남기 목사	
	일반 논문	군인교회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 영성형성 프로그램 사례소개 및 효과 혼합연구	박형곤 목사	
		군인교회 찬양의 현주소와 미래: 회중 찬양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전략	최용훈 목사	
		글렌 스타센(Glen Stassen)의 "정당한 평화론(Just Peacemaking Theory)"에 대한 이해와 평가	김이석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5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6년 10월 28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meak.or.kr
E-mail _ meak2661@hanmail.net

제작처 _ 쿰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쿰란, 쿰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5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위 원: 이규철, 전요섭, 김상만
담 당: 박종민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발간도서



군선교신학 논문집 총 25권

권당 15,000원

한국교회의 올바른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신학적 뒷받침을 위해 매년 논문집을 발간,
현재 25권까지 출판



대한민국 1004 군인교회 총람집

비매품

1004군인교회 육 · 해 · 공군 · 해병대 교회건물들을 총 망라하여
사진으로 수집하여 발간



한국교회 언론사 군선교 보도기사 모음집 (I)

권당 50,000원

한국교회 군선교 현장을 보도한 교계 언론사들의 보도기사 원문을 주제별,
연대순으로 분류하여 모음집을 출판, 군선교역사의 또 하나의 대작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병영상담1)

권당 15,000원

1992년 군선교신문에 매월 게재해 온 군종목사들의 장병상담내용을
종합한 병영상담 1집을 발간



목사님, 도와주세요! (병영상담2)

권당 11,000원

2005년 7년 만에 군 현장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병영상담 2집을 발간



The 좋은 군사 군인교회 초신자 양육교재 (2)

권당 9,000원

장병들의 신앙생활과 일반생활의 괴리와 간격을 줄이고 장병 제자훈련
생활편으로 발행된 교재



군인교회 예식서

권당 10,000원

대한민국 1004군인교회에서 집례되는 각종 예식의 실제 지침서



선물 II (새신자 나침반)

권당 1,500원

세례, 침례 받은 국군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새신자 양육 교재



MISSION GROUND

비매품

훈련소 기간 동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다니엘 용사로 임명하
기 위한 안내서

-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and the Praise Spirituality in Military Churches – Kyu Chul Lee
- A Suggestions for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in a Changing Environ ment – Jung In Lim
- A Comment: A Suggestions for Effective Futur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 Yeon Jong Ju
- A Study on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Military Mission and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for Young Soldiers – Seok Gon Lee
- A Comment: A Study on the Missionary Function of Congregational Worship in Military Churches: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Military Mission and a Congregational Worship Model for Young Soldiers – Joseph Jeon
-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ounseling Motivation of Involuntary Service Member Clients – Joseph Jeon
- A P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storal Narrative Transformation and Healing Experiences of Civilian Military missionary: Focusing on Participants of the Military Healing Ministry Academy – Nam Gi An
- A Mixed-Methods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Small-Group Spiritual Formation Program for New Believers in Military Churches – Hymen Gon Park
-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Praise Ministry in Military Churches: Restoring Congregational Worship and Developing Sustainable Strategies for Military Mission – Yong Hun Choi
-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Theory" – Isaac Kim

65
9 772586 202000
ISSN 2586-2022